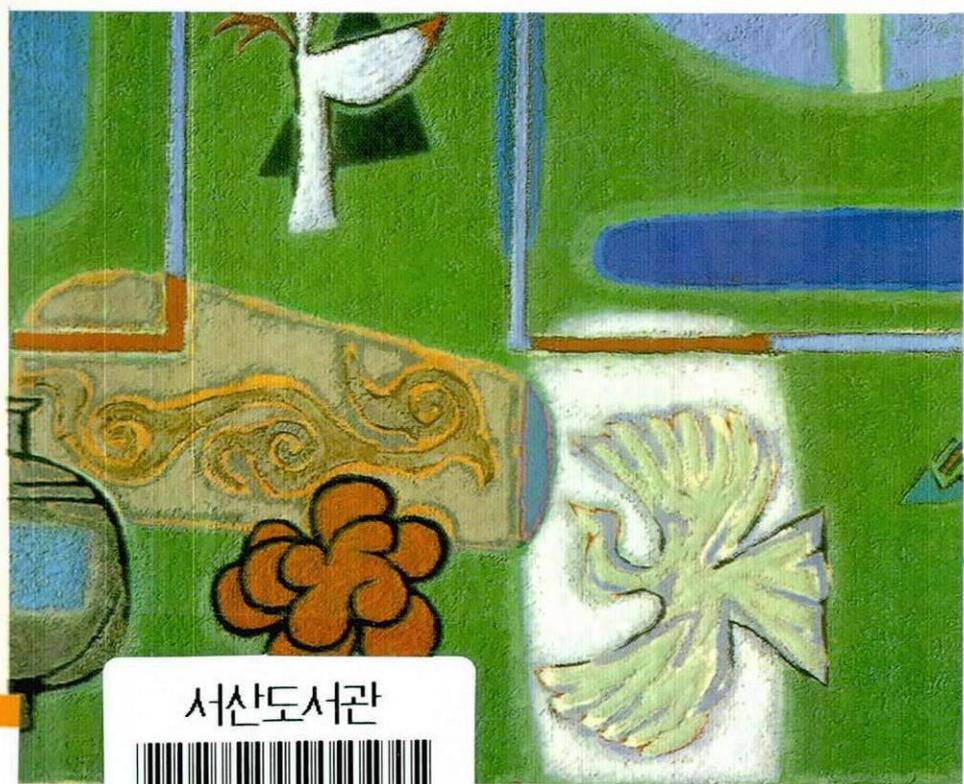


瑞山文學

창간호 · 1991



서산도서관



EM010221

서산문학회

0



창

간

성모의원

원장 김정선

서산시 동문동 315

☎ 665-2328

변호사
이장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장환

☎ (0455)665-3794

64-0637

65-4952

충남 서산시 동문동 934-5



창

간

삼성사

대표 : 김보환

☎ 665-3116

학습교재사

학습교재교구 도·산매
능력 개발 동화사 서산대리점

대표 : 지병송

서산시 동문동 816

☎ 665-3830
64-0493



창

간

서산서점

초·중·고 각종참고서
도·산매
(동아·한샘·지학사
서산대리점)

대표 김기윤

서산시 동문동 928-5 ☎ 665-2272, 3824

쥬리 미용실

피부관리
신부화장
드레스 대여

원장 정정숙

서산시 동문동 럭키증권
후문 옆

☎ 64-2884



창

간

생화, 난, 관엽

하얀 꽃집

대표: 안문규

서산시 동문동 924-6

☎ 62-2235
64-0865(야)
FAX : 62-2235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畫村

☎ (0455) 64-5121
665-6081



창

간

한국미술 협회
서산지부

☎ (0455) 64-6767

서전 안경테 선그라스
서산시특약점

NICON컴퓨터 시력측정무료
첨단의 장비시스템 · 높은품질 · 아프터서비스의 만전

심안과 지정안경원 **리스본안경**

대표: 정창현

서산시 동문동 934-4 서산우체국 앞 ☎ 665-9422

*6개월에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하여 시력을 보호하십시오

瑞山文學

● 瑞山文學 創刊에 즈음하여

————— 柳商東 12

● 수 필

趣味에 관하여 ————— 權聖重 17

멍청이 外 1편 ————— 金容東 19

애항비 건립소식 ————— 柳商東 26

삶 外 1편 ————— 徐宗淑 30

나의 삶과 새벽 外 2편 ————— 宋國範 40

은행나무가로수길 外 2편 ————— 신득균 50

鍼德으로 外 1편 ————— 李英夏 64

꿈을꾸자, 그리고 희망을 가꾸자
————— 인성희 72

변산반도 ————— 崔京玉 76

● 공 트

너무성급하셔 ————— 南廷華 80

겨울비는 우박되어 外 1편 ————— 文熙泰 85

과욕 ————— 리성주 95

● 회원주소록 211

● 편집 後記 212

창간호·1991

● 시

- 瑞山 장터사람들 ————— 金淳一 103
黃金山 外 4편 ————— 金泰愚 110
외롭지않아 外 2편 ————— 文秀鎬 116
행복한 주란이 ————— 徐宗淑 119
내고향 五月 ————— 申得均 122
가을 斷想 外 3편 ————— 한근식 124
고향 ————— 韓東喆 128

● 동 화

- 감나무 ————— 서종숙 131

● 소년소설

- 영길이의 꿈 ————— 李成周 140

● 출향작가 초대 단편소설

- 돼지꿈 ————— 權純河 145

● 기행문

- 白頭山 가는 길 ————— 韓東喆 172

● 평 론

- 바닷가의 殉鄉者的 나뭇군나뭇날 — 鄭鎭石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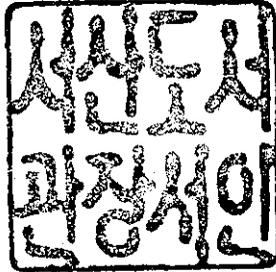


서산문학 발간을 축하합니다.

교단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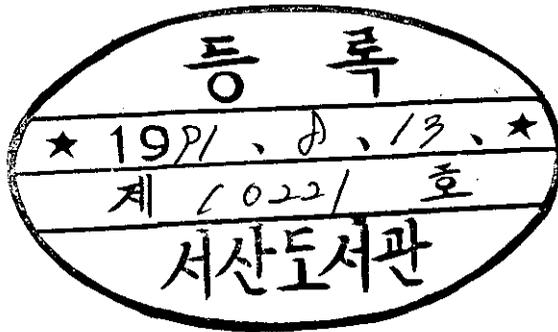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3 동 402 - 34
전화 309 - 0939, 308 - 8371

瑞山文學



1991
창간호

8/10.82



서산문학회

“瑞山文學”創刊에 즈음하여

고향 서산, 농어촌의 진솔(眞率)한 삶의 모습과 풍경을 토대로 한 공감(共感)의 시(詩)를 써주시는 김순일(金淳一)님은 어느날 글하는 이, 아니더라도 글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의 협력대(協力帶)를 만들고 싶었던지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서신을 띄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는 꼭 곡차(曲茶, 穀茶)를 곁들이며 삶의 문제나 문단(文壇) 소식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하거나 농담이나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7년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회원들이 쓴 작품을 돌려 읽기도 하며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감탄의 소리도 내면서 모임의 이름도 지어보자 하여 ‘갯글’이란 이름 아래 3년여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분군(瑞山·泰安)이 되고 고향의 바다는 좁아지고 하여 ‘갯글’이란 이름보다는 글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문심회(文心會)’라 개명(改名)하여 다시 3년여를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말 ‘서산 문학회’라 이름을 다시 고치고 모임의 목적을 뚜렷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문학쪽의 냄새가 짙고 색깔이 담긴 특색도 살리고 응집력(凝集力)을 높이면서 공부

柳 商 東
(瑞山文學會長)

하는 학도의 자세로 창발력(創發力)을 키워 나가려면 조그마한 문
집이라도 펴 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瑞山文學'이라 이름 지은 창간호를 내어 놓게 된 것입
니다.

모양새를 갖추려 많이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을 줄
로 생각되며 여기 실린 글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
기처럼 서두르고 또한 수줍어 떨리는 손으로 써 놓은 것도 있음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겠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읽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라오며 동시에 발돋움의
용기와 발전에 대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끈기있게 추진해 주신 본 모
임의 한동철(韓東喆) 총무님과 바쁜 틈을 내시어 편집에 골몰해
주신 김순일(金淳一) 문희태(文熙泰), 이영하(李英夏) 회우님 그
밖에 열심히 작품을 써 내 주신 모든 회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
다. 그리고 이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고마운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瑞山文學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필

- 權聖重/ 趣味에 관하여
金容東/ 명칭이 外 1편
柳商東/ 애향비 건립소식
徐宗淑/ 삶 外 1편
宋國範/ 나의 삶과 새벽 外 2편
申得均/ 은행나무 가로수길 外 2편
李英夏/ 鍼德으로 外 1편
인성희/ 꿈을 꾸자, 그리고
희망을 가꾸자
崔京玉/ 변산반도

趣味에 관하여

權 聖 重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고달픈 일이라고 한다. 더욱이 그 삶이 특별한 才能도 富도 없는 凡人들의 삶이라면 일상의 삶은 가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이세상을 苦海에 비유하셨는지도 모른다. 이런 凡人들의 日常의 삶은 자기만의 일, 자기만의 위치가 없기에 자칫하면 기계속의 한 부속품같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며 생활에 권태를 느끼게 된다.

이런 고단한 삶의 속에서 우리를 慰撫하고 달래주는 것이 바로 취미 생활이 아닌가 한다.

취미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애호하는 취미 또한 같지 않다. 스포츠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과감한 정신과 풍성한 힘의 과시가 있어 좋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취가 있고 그윽한 품격이 있어 좋다. 여행은 생활의 무거운 짐에서 잠시 해방되는 자유의 즐거움이 있어서 좋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오를 때만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단한 감정을 떨쳐 버리고 산을 정복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산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건전한 투지요, 희망임에 틀림없다.

우뚝 솟아 있는 산은 우리에게 말없는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꾸밈없이 솔직해서 좋다.

이렇듯 취미는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작은 시내요, 미소 짓게 하는 들꽃인가 한다.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 좋다. 여유가 있으면 원대한 뜻을 가질 수 있고,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실현해 나가는 힘도 길러진다. 이에 반하여 아무 취미도 갖지 못한 사람은 항상 현실 생활에 조그마한 여유도 없을 뿐더러 품성도 자연 삭막하게 된다.

취미는 이렇듯 일상의 일에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활발한 활력을 가지게 한다. 더구나 그것이 고상한 취미라면 우리의 교양을 깊게 하고 품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크다. 바르게 선택한 취미는 품성을 높이고 人格을 원만하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취미는 이해 득실을 떠나서 물질 이외의, 생활 이외의 방면에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품성은 고상하게 되고 마음은 유유자적하여 진실로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인 군자가 아닌 凡人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충실하게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永續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무에 충실하면 충실하는 만큼 그 무엇인가 간절한 정신적 안정을 바라게 된다.

취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접근하여, 시달려 피곤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어딘가 비어 있는 허전한 마음의 한 구석을 채워준다.

그러므로 취미는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취미는 잡초가운데 피어난 한 그루의 꽃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멍청이

김 용 동

어리 석고 정신이 흐릿하여 사물을 똑똑하게 처리하는 힘이 없으면 ‘멍청하다’고 말하고, 멍청한 사람을 ‘멍청이’ 또는(바보)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부터 ‘멍청이’라고 해야 옳은지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진짜 ‘멍청이’로 규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甲이란 사람이 볼 땐 똑똑한 사람도 乙이란 사람이 볼 땐 ‘멍청이’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개는 경우에 따른 멍청이고, 모든 경우에 다 부합되는 진짜 ‘멍청이’는 아주 드문 것 같다.

우리 집 막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일년쯤 전의 일이다.

“제 형은 예닐곱 살에 글도 읽고 구구단까지 외웠는데 저 앤 그 나이에 제 이름도 잘못 쓰니 ‘바보’인가봐”

제 엄마가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다. 어린 것이라도 듣기 싫은지 “왜 내가 바보야, 난 바보가 아니야”

하며 울먹이는 것을 보고 온 가족이 웃었던 일이 생각난다.

제 말대로 바보 ‘멍청이’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당시엔 큰 놈과 비교해 볼 때 워낙 지능이 낮은 것 같아서, 학교에 들어가면 중간 정도나 하면 다행이겠지 생각하며 우리 내외는 은근히 걱정했던 아이인데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벌 반장까지 하며 마쳤고,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다.

그러니 이 애가 ‘멍청이’는 면했다고 봐야 할 것인지 나는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공부 잘한다고 다 똑똑한 것이 아니며, 앞에서 말했듯이 ‘멍청이’의 기준은 뚜렷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때로는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으로 ‘멍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테니 얼마나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안경으로 내다보고 자신의 자로 재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 ‘멍청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잘 사는 친구한테 “이 멍청아 너는 무엇하고 이때 돈도 못벌었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못 사는 사람은 ‘멍청이’로 인정하는 의식이 그 친구에겐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황금만능 시대엔 부자가 볼 땐 가난한 사람이 ‘멍청이’일게고, 남의 돈 때먹는 사람에겐 때이는 사람이 ‘멍청이’다. 사치와 허영에 들뜬 사람에겐 근면 검소한 이가 ‘멍청이’다. 명예와 권세 있는 사람에겐 이름없는 필부가 오직 조강지처 하나와 해로하는 사람이 멍청이다. 퇴근하면 틀림없이 제 시간에 집으로 직행하는 남편이 귀찮은 여인도 없지는 않다. 그 여인에겐 외박 잘하고 주색잡기에 능한 남자가 똑똑하고 잘난 줄로 믿어질 게다. 도박과 노름꾼이 볼 땐 그것 못하는 이가 ‘멍청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두 주관적 편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의 경우 위에 열거한 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진짜 ‘멍청이’에 틀림없는 것 같다.

나이 50이 넘도록 건평 19평 5흡에 정원 하나 꾸밀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말단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부자되기는 틀렸으니 그렇고, 서산시 석남동 46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를 모르는 이가 더 많은 미미한 존재이니 그렇고, 도박판에 끼들긴 고사하고 상가에서 밤샘을 위한 고스톱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서니 그렇고, 남의 돈 때 먹긴 고사하고 지금도 10만원 이상은 빌려 써 본 기억도 없다. 남들은 부동산 투기로 잘도 벌던데 그것 한번 못해 보고, 똑똑한 사람이 잘 간다는 유치장에도 한 번 못 가봤으니 그렇다. 승용차는 첩과 같은 것이라는 데 조강지처 하나밖에 고물차 한 대도 없다. 나의 ‘멍청이’ 요소는 또 있다. 공직 생활에 처음 출장가서의 일이다. 어려서부터 못쓰고 절약하던 버릇으로 여인숙에서 잠자고 국수·짜장면같은 값싼 음식을 사 먹고 돌아왔을 때 출장비가 남았다. 출장비가 남았든 부족했던 상관도 않는 서무직원에게 남은 것을 되돌려주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 넣은 사람은 그러냐고 두 말 없이 받으면서 속으로 ‘멍청이’라고 얼마나 웃었을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멍청이로 살아오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멍청이가 아닌 사람이 진짜 떳떳치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더 많으리라.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도 ‘멍청이’로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엔 나같은 ‘멍청이’도 더러 있어서 한 자리에 만나면 부담없이 마음이 편하다. 오늘도 ‘멍청이’끼리 만나서 조금만 마시면 보약이요, 도가 넘으면 독약이라는 술을 2차, 3차 하다보니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안 자고 기다리던 아내가 말없이 쳐다보는 눈초

리에서 읽을 수 있는 말,

“무슨 보약이라고 남이 먹기 전에 한 잔이라도 더 먹으려고 부지런히 마셨겠지……”

‘명청이……명청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膳物

최초의 선물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준 데서부터 생겼는지 과문한 나로서는 알길이 없었으나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단군신화에 보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곰과 범에게 환웅이 썩 한 자루와 마늘 20 톨을 주었으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베들레헴에 강탄했을 때 동박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유향·몰약의 세 가지 선물을 바쳤다고 하며, 삼국유사엔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龍에게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선물했다는 것을 보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느님도 성자도 주고 받아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인류의 물질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많은 선물을 교환하며 생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선물은 앞으로도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없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물은 받아서

즐겁고 주어서 즐거우며 또한 사랑의 표시이며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마음과 마음을 결속시켜 주는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선물은 옛날 국가의 공신에게 임금에 내려주던 ‘食邑’과 같이 값지고 큰 것에서부터 어린 애들이 주고받는 종이쪽이나 나뭇잎같이 아주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선물, 정신적인 선물도 있다. 또 새해 선물·추석선물·성탄선물과 같은 명절선물이 있는가 하면, 결혼선물·회갑선물·생일선물·입학선물·졸업선물·취직선물·여행선물 등이루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이세상 모든 것은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하찮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겪어 본 바로는 다정다감한 사람은 선물을 잘 하고 무뚝뚝한 사람은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가끔 소갈이 무뚝뚝하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는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선물을 주고받아 본 일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 겨울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처음으로 서울에 직장을 갖게 되어 첫월급을 탔을 때이다. 첫월급을 타면 부모에게 옷을 선물한다던가? 그래서 나는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 한창 유행이던 털배자를 샀다. 그런데 내가 색상을 잘 고를 자신이 없어서 백화점 점원 아가씨에게 어머니 연령을 대고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 달라고 해서 샀던 것이다. 고향집에 갈 때 내뒀던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선물을 흐뭇한 마음으로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조금도 기뻐하시는 기색이 없으셨다. 오히려 색상이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라며 제 처에게 주려고 샀다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셨다. 그리고 너의 처에게나 주라고 하셨다.(지금 생각하면 내 아내의 선물은 사지 않았기 때문인것 같음) 그럼 바꿔다 드리겠다고 했으나 그만두라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씩씩하게 물러선 적이 있다. 결국 처음으로 어머니께 선
물해 본 기분은 망쳐버렸다고나 할까?

그 후 어쩐지 남에게 선물하기가 조심스럽고 쑥스러운 느낌이 든
다. 결혼하여 20여 년이 넘게 살아오는 동안 내 아내도 나한테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을 것이다. 어디에 며칠 여행이라도 가면 남들은 가
족이나 친지에게 선물할 것을 열심히 고르고 있다. 그리고 집에 갈 땐
사 모은 선물이 한보파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선물
센타에 서서 아무리 봐도 살 것이 없다. 그래서 번번이 빈 손으로 돌
아오곤 한다. 이런 사람이라서 나의 아내나 이이들은 아예 선물을 바
라지도 않는다. 언젠가 과일을 조금 사가지고 집에 들어 갔더니 오늘
은 웬일이냐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는등 우리 아버지도 이런 때가
있었던나고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며칠 전 학교에 출근해 보니 내 책상 위에 포장지에 쓴 조그만 선
물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살펴보니 “○○선생님”이라고 쓰고 다음에
학생 이름이 써어 있었다. 조금은 아는 2학년 학생이지만 3학년 교과
만 담당하고 3학년 담임인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아이였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받았나 살펴봤으나 오직 나에게만 준 것 같았다. 내
용물은 관광지에서 흔히 파는 나무로 깎은 안마기였다. 그걸 보고서야
2학년 학생들이 어제 수학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학생
이 내가 담당한 특활부원임을 생각해냈다.

값어치는 몇 백원에 지나지 않겠지만 자기 부모가 여행비로 조금
준 것을 아껴서 담임선생도 아닌 나에게 선물한 것을 생각하니 무척
고맙고 그 학생의 또 다른 좋은 점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한편, 이 선물
은 내가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 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나 상대방의 정성된 마음을
꺾는 것같아 그만 두기로 했다.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했는데 일부러

부르기도 안 됐다. 그래서 며칠 뒤인 오늘에야 우연히 운동장에서 만나 “선물은 고맙게 받았으나 너에게 잘 해 준 것도 없이 받아서 마음은 편치 않다”고 했을 뿐 별로 할말이 없었다. 앞으로 그 학생에게 답례 선물할 것을 생각해 보나 그날이 언제 오려는지 모르겠다.

요즈음은 백화점이나 가게에 진열된 물품들이 거의 선물용인가 하면 어디를 가나 “선물센터”라는 간판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선물주고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랑과 존경의 선물,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즐거운 선물이 오고 가는 세상은 밝고 명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는 선물 본연의 뜻이 아닌 뇌물로 둔갑하는 풍토 때문에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라는 사회정화 운동의 과제로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선물을 잘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내가 국가시책에 잘 따르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애향비 건립소식

柳 商 東

90. 5. 26 대전일보 「내고장 화제」란에 조기자님이 취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서산군 해미면 석포리와 고북면 신정리 등 비행기지 500여 세대주민들이 누대에 쌓이고 맺어진 연정의 빗들을 고향에 세우고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의 광장을 열어 서로 얼싸안고 반기려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기지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상 대대로 애환이 서린 삶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 가슴아파 데모의 합성을 지르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순박 후덕하고 이해성이 많은 주민들이 어느날 인가 모든것을 수용하고 본군 박군수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삿짐차뒤에서 서로 헤어지기 아쉬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토록 뜻있는 일을 의논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끼고 가꾼 관상수를 팔기도 하고 여러모로 기금을 모아 이룩될 이 애향의 동산에는 오랫동안 손길이 닿아 때가 묻은 삶의 동반자였던 농기구를 모아 농업 박물관까지 구상하고 있으니 모범적인

고향사람의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가친척과 사랑하던 이웃과 헤어져야 할 때의 사무치는 인정과 따스한 향수를 한포기 그림을 보는 듯 몇번이고 되새겨 보게되며, 이와같은 계획적인 대규모의 이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향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전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치 않게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부모처자와 생이별의 슬픔을 당하기도 하였던 사람들, 이러한 이주민들이나 이산가족들은 어딘가에서 또다른 이웃과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살고 있겠지만 항상 자라온 고향을 그리는 심정은 변함이 없으리라.

요즈음 옛날의 아름답던 농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아쉽고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특히 보기 드문 농촌 후계청년들을 만날 때에는 외락 달려가서 반갑고 고마운 손을 잡고 농촌의 아물거리는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은 충동이 일게 된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성장하고 농촌의 산야에서 자란것이 자랑스럽고 어린시절 머리와 마음에 새겨진 영상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자연의 섭리에 감사드리고 싶어진다.

나의 고향은 이곳 서산땅, 도비산을 배경으로 하여 천수만을 접하면서 멀리 가야산 줄기가 넘보이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그때 그 시절의 들리던 소리, 계절따라 변하는 진풍경, 맛있게 먹던 것들, 몇가지 안되었지만 해지는 줄모르던 아이들의 놀이, 지워지지 않는 냄새 등을 꺼내놓고 경험한 이들, 모르는 이들과 더불어 구수한 추억을 풀어놓고 싶다.

앞뒷산의 피고리소리, 참새떼의 지저귀, 온동네를 울려대는 매키소리, 웅앵이, 개구리 합창소리, 여치소리 벼포기 속의 뚝부기소리, 송아

지와 어미소가 서로 찾는 소리, 귀뚜라미우는 소리, 떼지어 날아오고 가는 게우떼소리, 맑기도 하던 까치 까마귀소리, 어느해 6월의 대포소리 콩볶듯 쏘아대는 총소리, 실새없는 비행기소리, 자위대집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서로 놀랜 한숨소리, 다락방에 숨어사는 피난은 노인의 기침소리, 아낙네의 베짜는 소리, 사랑방의 이야기책 읽는 소리, 자리매는 고드래소리, 마당마다 요란한 도르개질 소리, 무명짜는 물레소리, 시냇가 두레박 물푸는 소리, 집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지금도 귀것을 맴돈다.

요새말로는 자연식품이라 하겠지만 그런 것도 모른채 밭뚝 냇뚝 뽕나무의 오대따먹기, 찢레순 꺾어먹기, 송기, 잔디밭 억새풀 사이에서 뽑아먹는 빠비, 감나무꽃 풀줄기로 꺾어 목에 메고 뽑아먹기, 덜익은 목화 다래 따먹기, 시냇물에 발치고 물게 잡아 장쩌먹기, 바가지로 웅달샘을 물 퍼내고 붓어, 장어 잡아 졸여먹기, 어린 칙순 진내먹기, 삼태미 덧놓아 참새잡아 구워먹기, 보리 서되 들고가서 개구리참외 한구력사다가 풀잎으로 덮어 놓고 먹기, 콩과 보리가 섞인 누룽갱이 나누어 먹기.

농촌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 그저 어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것들을 흉내내기도 하여 어디에서나 전해들어오거나 간단히 생각한 몇가지가 있었다.

새끼줄 돌돌말아 축구공을 만들어 시합하기,깡통차기,술래잡기 손으로 재어 땅뺨기, 자치기, 허리띠 붙잡고 씨름하다 벗어져 웃음바다되기, 질그릇밀차로 쪽썰아 저수지 만들기, 흙은 밥이요 풀썰어 반찬하고 조개껍질 그릇으로 밥상차려 놓은 소꿉장난, 얼굴에 숫검병칠하고 가면놀이하기.

그저 싱그럽기만 한 고향의 냄새

앞들의 두엄씩는 김냄새, 모기불의 연기냄새, 농촌의 향기라 했던

거름말라 풍기는 냄새, 들기름 불심지에서 끌어나는 냄새, 소여물 삶는 구수한 냄새, 마지구더리 두엄냄새, 간드레불냄새, 장다리는 냄새, 제삿날 저녁 철질하는 냄새, 군불때어 자리누는 냄새, 석양길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나는 솔나무 가지 때는 냄새.

가을 누렇게 익어 흔들거리는 벼이삭, 초가을 지붕위에 널은 고추빛, 가을 추수후 새 짚으로 엮은 초가지붕의 노랑빛, 파랑치마빛, 발귀통이에 마음대로 누워있는 호박빛, 잎이 다 떨어진 채 매달려 있는 주렁주렁 감빛, 아주까리 기름으로 곱게 빛은 여인의 머리빛, 줄지어가시는 어른들의 흰두루마기빛

이렇듯 옛고향을 그리며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게한 애향비건립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연상과 바람을 갖게 해주었다.

이 기사를 계기로 내고향 찾아보기 운동이 유행병처럼 퍼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애향의 동산이 만들어졌으면……

특별히 마련한 고향사랑의 광장이 아니더라도 마을마다 세워진 새마을 회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린시절 다니던 학교도 멋진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시골 농촌의 풍경속에서 정서를 찾고 잃었던 인간미를 되살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논밭에 김을 매면서, 내가정, 내직장, 내조국이 더욱 발전하고 복받기만을 소원하는 기도의 순간을 가져보고 체육기구를 가지고 던지고 당기고 하느니 보다는 고향의 농촌에서 생산활동으로 땀흘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

내고향에 심어놓은 단풍나무 묘목을 잘키워서 애향탑도 세우고 애향수로 남기고 싶다.

삶

서 중 속

한 밤중에 잠이 깨었다.

5층짜리 스탠드 불빛이 제 능력만큼 어둠을 태우고 있었다.

태고적 고요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 시계추 소리만이 내 심장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세파에 쫓겨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여유도 없이 허둥지둥 달려온 지난날들.

참으로 오랜만에 내 영혼은 부시시 잠을 깨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의 일들에 습관적으로 떠밀려 이곳까지 왔다. 20대까지는 누군가에 의해 장님처럼 이끌려 왔고, 30이 넘고부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활에 밀려 부유(浮遊)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내 인생이란 것은 출발점에서 부터 결승점까지의 중간 지점쯤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삶이란 무엇일까?

쉽게 죽음이란 단어와 대칭되어 감지된다.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이라는 단어에 더 곱게 채색하길 원한다. 확실히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는 고독의 절절한 슬픔일지라도 처연한 아름다움이 있다.

죽음은 훨씬 낯설고 결끄러운 질감으로 느껴진다. 때에 따라서는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싶다. 두려움 때문일까?

문득 친구의 죽음이 생각났다.

그 친구의 티없이 맑은 웃음이 또렷이 떠올랐다.

교통사고.

흔해빠진 이 우연이 그 친구와 나 사이를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놓을 줄 몰랐다.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개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개인의 감성들, 그리고 제각기 부여된 시간과 공간, 이런 여러 가닥의 끈들이 함께 얽혀서 생긴 사건.

수없이 많은 필연들이 엮어낸 그 작은 사건은 우연이라고 규정지어졌다. 그리고 그 우연(사건)이 바로 그 친구와의 만남을 냉정하게 단절시킨 유일한 이유였다.

너무나 엄격히 분리된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여러 갈래의 필연들이 만든 매듭, 그 매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神의 얼굴이 아닐까!

그 친구는 지금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는 화석처럼 웃고있는 낡은 사진과, 자라지 않은 모습으로 그 영상조차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내 추억 속에서 뿐이다.

아직도 그 친구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도 한데, 따스한 그 친구의 손끝이 만져질 듯도 한데…….

상상속의 그 친구의 웃는 모습처럼 삶이란 觀念일 뿐인가?

언젠가는 나도 그 친구처럼 삶의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사실 생활 속에는 그림자처럼 항상 죽음이 共存한다.

뉴스시간에 끊임없이 전해지는 사고 소식, 편리한 문명 속에서 댓가처럼 치루어지는 현대병들. 그속에 우리의 몫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부푼 고무 풍선 속의 기체 분자들처럼 고무막 속에 갇혀 여기 저기 부딪히며 위태위태하게 내포되어 있다가 고무풍선이 평하고 터지는 순간, 삶은 그 자체가 변질된 채 죽음이란 외연 속으로 튕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이 생활 공간과 죽음과의 경계선은 고무 풍선만큼도 질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 어린 시절, 한 생의 마감을 알리는 부고장이 날아오면, 어른들은 이 기분 나쁜 물건을 집안에 들여 놓는 일조차 꺼려 문간 옆이나 담장 틈서리에 끼어 두었다가 불쏘시개로 쓰던가 1년을 마감하는 선달 어느날에 한꺼번에 태워 바람결에 재로 날려 보내곤 하셨다.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앞에 놓여진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떨쳐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남은 생은 내 의지대로 살고 싶다.

누구의 삶과도 닮지 않은, 내 주관대로 그려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 후회없는 삶을 영위하고 싶다.

쓰레기더미 위에 돌아난 잡초에게도 그 몫의 삶은 있는 것이다. 잡초는 잡초대로의 삶이, 나에게서는 내 의지대로의 삶이 있을 뿐이다. 잡초도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아있는 내 모습을 실감하고 싶어 거울 앞에 섰다.

내 안의 나를 들여다 본다. 거울 속엔 낯선 여인의 무심한 자태가 박혀 있을 뿐이었다. 영혼은 그를 담은 그릇인 육신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던가!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떤 형상일까. 작은 아기곰 귀여운 어릴적 모습일까, 순진무구하고 수줍은 소녀적 모습일까.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월이 내 육신을 변화시켰듯이 내 영혼의 모습도 따라 변한다면, 앞으로 몇 십 년 후의 내 모습과 내 영혼은 주름살투성이의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게 틀림없다.

서글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다만 내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내 의지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내 시각에서만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 몫으로 돌리자. 나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내 생활이, 내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하다.

북적거리는 시장 바닥에서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며, 몇 알의 덩이라도 더 얻으려고 깻것 장수와 입씨름하고, 보다 값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시장 안을 몇 바퀴나 맴돈 후에 고른 생선을 비닐봉지에 싸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엔 콧노래가 저절로 매달린다. 김이 나는 찌개를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격의없이 나누는 대화들, 이런 화사한 분위기를 상상하면 즐거워진다.

허름한 티셔츠에 바지차림이면 어떡나, 그따위 하찮은 체면에는 마음 쓰지 않으리라. 화려한 의상과 값비싼 악세사리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다.

아니다.

때로는 아껴두었던 가장 멋진 옷차림으로 분위기 좋은 찻집에 앉아 향기로운 차 한잔을 마음 맞는 지기와 마주앉아 음미해 보는 시간은 또 얼마나 근사한가.

참으로 오랫동안 깨어난 내 속의 나에게 다짐한다.

내 육신이 몸 담고 있는 이 시공속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의지대로 살자고.

내 스스로 만들지 않은 권위 앞에서는 위축되지 말 것이며, 가치없
는 체면에 이끌리지 말아야지. 지나친 형식은 무시하며 진솔하게 살리
라.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온 정열을 쏟으며 영혼을 아름답게 가
꾸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아끼지 않으리라.

神께 간절히 회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내 영혼이 너무 갑자기
육신을 떠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산 자들
끼리 충분히 이별할 시간을 줍시사하고 기도하리라.

육신과 이별의 순간을 만족스럽게 맞기 위해 오늘도 내 시간들을
마름질하고 곱게 채색한다.

충실한 삶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길

비가 온다.

텅빈 교정에 잿빛 침묵 사이로 두옥 떨어지는 빗방울.

초연해지는 수목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각기 서둘러 탐스런 열매들을 남기고, 사명을
다 한 낙엽들은 화려했던 단풍 시절을 회상하며 빛바랜 흑백 사진으
로 차곡차곡 내려 쌓인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엔 언제부턴지 해마다 겪어야 하는 지병이 도진다.

아이들은 수선스런 메아리만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데, 텅 빈 교실만큼이나 허전한 가슴.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스런 고독이지만, 실루엣처럼 지워지지 않는 심 선생님의 모습들이 얼룩처럼 기억 속에 침착되고부터는 씩씩한 한약을 마시듯 음미할 줄도 알게 되었다.

늦도록 응달에 쌓인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이곳 오지에서, 새학기를 맞은 난 무척이나 분주했다.

교단에 선 지 겨우 세 번째 봄을 맞은 나는 이제서야 선생님이라는 호명에 쫓스러움이 가실만한 햇병아리 교사였다.

교정의 수목들은 뾰족한 새싹을 매달고, 과수원의 붉으스름한 화초리들은 햇볕에 졸고 있을 무렵 진근 오신 심 선생님은 나와 동학년이 되었다.

희갑이 가까와옴직한 그의 모습에선 화사한 햇살같은 미소가 흘러 나왔으나, 평생을 몸담아 온 직장에서 교감 승진도 못한 그분의 웃음은 내 눈엔 오히려 무능의 상징으로 비치어졌다.

반 편성 자료를 심지 뽑을 때 내 기도가 유효했음인지 나는 희망했던 5학년 1반을 맡게 되었고, 심 선생님은 어렸을 때 뇌염을 앓아 정박아가 되어버린 영철이가 포함된 5학년 2반의 담임을 맡게 되어 원로 교사와 햇병아리 교사가 동학년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겨우 아이들과의 어울림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는 주말마저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매사에 저돌적일만큼 열성을 다했다.

월말고사에는 전교 1위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고, 교내의 각종 경연대회에서는 최우수 표창을 따야만 마음이 흡족하였다.

물론, 옆반의 심 선생님도 퇴근시간이 다 되도록 교실에 붙어 앉아 아이들을 지도하였지만, 월말고사 결과는 우리반인 1반과 평균 성적이 10점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뒤지고 있었다.

여가에 잠시 2반 교실에 들어가 보면 지진아 몇 명이 1학년 교과서를 놓고 ‘가가거겨’를 공부하고 있을 뿐 각종 대회는 관심 밖이었다. 그 중에서 영철이는 언제나 이름공부, 하루종일 쓰고 읽는 ‘유영철’이란 석자! ‘철’자가 비슷하게 그려졌구나 싶으면 다시 풀어져 버리는 그 아이.

“선생님 학급 평균을 올릴려면요, 그런 지진아 지도 보다는 중간 이상인 아이들을 지도해야 돼요. 영철이 같은 아이는 매일 지도해 봤자 시간 낭비하는 거라구요.”

월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 걱정을 들으시는 심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와 햇병아리가 대원로에게 위로점, 주제넘는 충고를 해드렸으나 한번 웃으시고는 태연하셨다.

영철이는 지능만 뒤지는게 아니라 가정 환경 조차 형편없는 지경이었다. 술주정뱅이에 무능한 아버지와 올망졸망한 오남매는 읍내 분식점에서 일하는 엄마 덕분에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니 옷차림이 남루함은 물론 학습지도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심 선생님 반에는 영철이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서너 명이나 더 있었다. 물론 시골의 어느 학교에나 마찬가지로 학급당 서너 명은 가정 형편이 딱한 어린이가 양념처럼 끼어있긴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수한 어린이들에게 당연히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심 선생님은 점심 시간에도 머리와 복장이 불결하여 냄새가 풍기는 아이들과도 스스럼없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곤 하셨다. 가끔 당직일 때는 아이들 머리도 손수 깎아 주셨고 운동화도 남 모르게 사다

신기곤 하셨다.

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몹시 못마땅하였다.

‘교사가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사회복지가야? 자선사업가야? 아예 교아원을 하나 만드시지! 지금이 어느 땐데 페스탈로찌처럼 아이들 머리까지 깎아줘야 하느냐고! 제부모들도 무관심한 아이들을 선생이 어떻게 일일이 목욕시키고 빨래까지 해 입히느냐고!’

동료 직원들의 비아냥거림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난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2반 아이들은 물기오른 과수원처럼 점점 싱싱하게 변하고 있었다.

주눅들어 머뭇거리던 아이들의 입이 열리고 좁처럼 웃을 줄 모르던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항상 담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 선생님을 흡사 친부모인 양 의지하고 따랐다.

그래도 여전히 교내외의 모든 경연대회에서 2반 아이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두 반을 놓고 교장, 교감은 특하면 1반처럼 해 보라거나, 1반 선생님처럼 열성을 보이라느니 하며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추켜 세울 때마다, 나는 수소가스가 든 고무 풍선처럼 더욱 의기양양 해졌고, 월말고사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사랑의 매’는 그 회수가 더욱 빈번해지곤 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공명심이었던지……

실력 향상이란 허울좋은 명분 아래 서슴없이 내려치던 회초리는 내 자만심을 위한 근사한 포장지였음을 안 것은 겨우 얼마전부터이다. 영철이는 국민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마을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농부가 되었다. 잔피를 모르고 미련스럽도록 충직한 그를 가장 힘든 일이 생겼을때마다 마을 사람은 서로 부른다.

해가 저도 말은 일은 끝내고야 마는 성실함과 함정에 빠질지라도 회피할 줄 모르는 정직함은 바로 심 선생님께서 전수 받은 교육의 소산이었음을 알았을 때,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우수 학급 표창과 각종 상장은 빛을 잃었고 오히려 심 선생님께 부끄럽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물론, 내가 말아서 우수했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여전한 우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대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은 실력 향상을 위하여, 허울좋은 명분을 위하여 내리치던 '사랑의 매'가 빛깔 좋은 포장지였음을 눈치 채 단정거라는 자책감이 느껴진다.

하긴 엇그제까지도 난 내가 그렇게 애착스럽게 지도했던 녀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나와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아이들이 섭섭하기까지 했다.

내 스스로 진정한 교육을 정의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심 선생님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한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농부로, 점원으로, 이발사로 사회에 봉사하며 진실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 버릇없는 후배에게 먼저 인사하여 겸손을 가리치시던 그 분이야말로 교육자의 산 표본이었다.

빛나는 상장이 없어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심 선생님, 조용함 뒤에 용광로 같이 뜨거운 정열을 담고 계셨던 분, 고통을 즐기듯 스스로 가서 면류관을 만들어 쓰신 심 선생님, 박수 소리 없어도 혼자 만족해 하실 줄 안 그 분은 최상의 욕구 충족 수단인 자아실현의 보람보다 더 번치않고 화려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음을 진작 알고 계셨던 거다.

난 얼마나 근시안적인 교육을 하였던가! 어렸을 때의 교육을 밑거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월말고사 성적 따위에만 집착하

였으니……

선생님이 보여 주신 모든 모습들은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서 흘러 나온 인간애 바로 그것이었으며, 누구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하고 소박한 표현이었다.

지금도 어느 하늘 밑에서 봄비처럼 소리없는 사랑을 쏟고 계실 심 선생님, 세월이 흘렀어도 바위처럼 변함없으실 것을 확신한다.

이제 교단에 선지 10여 년이 넘은 지금 그 분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나누어 갖고 싶다.

아무 때나 밀려오는 고독감과, 아무런 결실도 없이 스쳐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허전함, 상부로부터의 눈치살핌, 이런 것들로 부터 의연해지고 싶다.

봄햇살이 훈훈하게 소리없이 언 눈을 녹이듯 그렇게 화사한 미소를 갖고 싶다. 박수 소리 들리지 않아도 혼자만의 보람으로 가슴 뿌듯해지고 싶다. 진정으로 심 선생님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선생님의 품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먼 훗날 이 나라의 충실한 일군이 될 것이며 참으로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교육만이 선생인 내게 진정한 영광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나의 삶과 새벽

송 국 범

난 어려서부터 초저녁잠이 많기로 유명했다. 어려선 저녁밥이 늦으면 저녁을 못먹고 잔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저녁에는 영 그놈의 잠이 밀려와서 맥을 추지 못했다. 내일이 시험이라 급한 나머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앞에서 한없이 졸다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었으니 가히 짐작하리라.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했다.

“선생님, 저녁에 공부를 하려해도 한없이 밀려오는 초저녁 잠 앞에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모질게 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저녁 잠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아 보기도 하고 돌아다녀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초저녁 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저녁에 더 빨리 자는 방향으로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

난 그때부터 나의 장기인 새벽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정착시키고 말았다.

바둑에 철저하게 심취했을 때 동생과 바둑을 두다가 바둑돌을 든 채 눈감고 잠을 잤던 일, 밥먹다 밥수저 들고 졸던 일, 9시 뉴스를 거의 끝까지 못듣고 하염없이 TV앞에 절하던 일, 친척집에 좋은 일이 생겨 방문하여 재미있게 노는 틈에서 벗어나 한 귀퉁이에서 고꾸라져 자던 일, 저녁 미사에 다녀오다 졸다 넘어졌던 일,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관에 가서 그 재미있고 스릴있는 광경을 무시하고 꾸벅꾸벅 졸다 망신 당한 일…….

나와 같이 생활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 엄청난 초저녁잠을 잘 안다.

결혼해서 문제가 되었다. 저녁만 먹으면 이불부터 펴고 잘 준비를 서두르는 나의 성미, 반대로 저녁 늦게까지 잠이 없는 아내…….

대화할 시간도 없이 거꾸러져 자는 나를 이해하는 데는 한동안이 걸렸고 불평도 했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삼아 언제 사랑을 나누느냐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너무 길게 초저녁 잠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나 저녁엔 것처럼 맥을 못추는 대신 새벽만 되면 힘이 절로 솟는다. 아무런 걱정도 없다.

요즈음은 조금 늦어졌지만 학교 다닐 때는 새벽 2~3시면 일어나 그때부터 나의 일과가 시작이 되었다. 이젠 너무도 고요하고 적막하여 외로움까지 느낄 정도였다. 숙제도, 시험공부도, 독서도, 일기도, 계획도 새벽에 다 이루어졌다. 저녁에 3~4시간 걸려도 해결 못한 것도 난 새벽이면 1시간이면 족히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많은 친구도 사귀고 침식도 같이한 친구들도 있었건만 언제나 나

만 새벽잠이 없고 내 주변 친구들은 모두 새벽의 잠꾸러기들이었다. 새벽에 기차를 타야 될 일도, 새벽에 긴급히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도 나만 있으면 하나도 걱정이 없다. 자취를 한적이 있는데 아침밥은 도맡아 내가 했다.

이처럼 나의 그동안의 삶은 새벽과 더불어 친숙하고 밀접하게 살아 온 새벽과 더불어 애환을 해온 삶이었다.

새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다 초저녁 잠을 놓치고 늦게 잠이 드는 날이면 난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늦게 잔다고 해서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시각은 정해져 있으니 수면의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리하여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상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일 이른 아침 옥녀봉을 오른다.

나처럼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싶고, 살갓을 상쾌하게 스치는 새벽 바람을 맞고 싶고, 한잔의 생수가 그립고, 새벽 공기 맛이 너무너무 좋아 일과처럼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초저녁잠이 많은 탓에 이루어진 산물이라 생각한다.

4시쯤 일어나 독서하고, 그날의 계획을 세우며 메모하고, 새벽길을 달리는 일, 이런 새벽의 삶을 이젠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고 나와 똑같이 초저녁잠이 많고 새벽에 모든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라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결혼하고 보니 장모님이 나의 삶과 똑같이 나를 부지런한 사위라고 늘상 칭찬이 대단해서 더욱 기분이 좋다.

너무도 고요한 침묵과 적막함의 새벽이 이젠 없어서는 안될 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이 고요함 속에 깊이 잠든 아내와 아무 걱정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는 두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새벽의 일과처럼 되었다.

새벽은 너무도 아름다운 시각이고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치

도 헛된 시간으로 낭비할 수 없는 엄숙함이 지배해서 더욱 좋다. 스스로 대화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다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새벽을 한 없이 사랑한다.

새벽의 찬란한 별빛,
수북히 쌓인 눈 위에 처음으로 내 발자국을 내는 일,
옥녀봉 정상에서 '아——호'의 함성…….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짜릿한 순간 순간들이
다.
새벽이여, 화이팅!

청소년과 독서

학생 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학생들이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서를 멀리하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본다. 과열된 학력 중심에서 오는 점수따기 경쟁,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교, 학부모, 사회가 한가롭게만 보이는 독서를 하도록 너그럽게 용인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일게다.

독서를 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나에게 피부에 닿는 도움이 안되는 것같다는 것이 학생들

의 주장이니까 그렇다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절을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데만 온 정성을 다 쏟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역사의 큰 심판을 받을 길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책속에는 수많은 길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짧게 생각하면 한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권의 문제집을 푸는 것이 점수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이해력, 창의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어휘력, 논리성 등이 몰라보게 신장되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튼튼히 조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만 같다.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사회도…… 잘 할 수 있는 길…….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이고, 효도하는 길이며 어떤 길이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길이고 봉사하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런 삶의 가치를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많은 간접경험을 통해서 냉엄한 현실 사회에 뛰어들어가 자기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본다. 그 간접 경험은 독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책속에서 공자도 만나고, 톨스토이, 슈바이처, 간디, 헨켈켈러, 도산 안창호, 김구도…… 수없이 많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 엄청난 역경을 딛고 참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온 주옥같은 가르침을 본받아 나 자신의 삶의 방향도 잡아야 되고, 소설속의 주인공으로 나를 던져 같이 호흡도 해보고, 많은 시집 속의 시구절을 음미하며 시심에 젖어 거칠고 황량한 마음을 풍요로 바꾸는 마음을 무력무력 키울 때 한없이 크고 넓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두뇌는 항상 폭넓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흡수로 신뢰질을 형성해 가는데 그 기회를 놓쳐 신뢰질 형성기에 신뢰질을 형성시키지 못하면 편집성 인간이 된다고 한다. 편집성 인간이 되면 사고가 단순하고, 합리성이 결여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동부터 일으키는 정신 풍토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청소년 비행, 폭력, 살인,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풍토들로 나타나고말았다.

물론 이런 요인들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독서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책속에는 길이 있고 뜻이 있으며 기쁨과 사랑이 들어 있고, 지혜가 들어 있으며, 희망과 꿈과 기대가 가득차며 내가 가야할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하루의 일과를 잠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만이 가능한 추리력, 상상력, 비판력, 창의력과 같은 이른바 고등정신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길은 어릴때부터 책을 읽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전세계의 노벨상의 1/3을 차지한 가장 우수 두뇌를 배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는 우리의 교육제도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고, 학력과 점수에 모든 것을 다 거는 학교 교육도 크게 반성해야 되며, 어릴 때부터 컴퓨터 학원, 피아노 학원, 웅변 학원, 속셈 학원 등으로 독서할 틈을 빼앗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극성에서 좀 벗어나야겠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온 가족이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가족의 풍토, 책의 소중함과 가치로움을 어릴때부터 간직하며 독

서가 생활화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술한 시간을 T·V 앞에서만 매달리고서는, 살림 장만하고 여흥비에 쓰는데는 돈을 푹푹 쓰는데 책 한권 사는데는 인색한 가정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시장에 다녀오면서 한권의 시집을 사기 위해 책방문을 두드리는 엄마, 친구들과 어울려 차 한 잔하고 돌아오며 책방에 들러 수필집 하나 사오는 아버들이 많아질 때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달에 읽는 책은 0.8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속에서 앞으로 선진 국가를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폭넓은 사고와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합리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이 되도록 가르치는 길 그것은 영어나, 수학 공부에서가 아니라, 독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요, 꿈이며 기대이다. 이들의 삶이 참으로 가치롭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자.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하기위해서 온가족이 독서 시간을 갖고, 학교에서도 독서시간을 배정하여 청소년들과 더불어 책을 읽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청소년들이 건조하고 삭막하며 포악하고 방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둑돌의 의미

내가 바둑을 알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시절이다. 동네 어른들이 두는 바둑을 두어 보고 싶은 충동은 어마어마하게 강했

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바둑은 절대 금물이었다. 오목을 두다가 혼이 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둑을 마치 화투처럼 성인들의 오락물, 즉 어린이들에겐 금기시되는 것으로 못을 박았었다. 왜냐하면 어른들 대부분이 바둑을 통하여 내기를 하였으니 그럴 법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둑을 배운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호기심으로 쳐다보다 오목 정도 두는 것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말았다.

본격적인 바둑 수업에 들어간 것은 대학교 2학년 때나 되어서였다.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었다. 바둑이란 어떤 것이라는 아무런 기초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론적 바탕도 없이 상대를 이기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아집스런 생각 속에서 바둑돌을 만졌고, 때론 시간 때우는 지극히 한가한 오락물로 생각하며 바둑을 두었다. 이런 얕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바둑을 두다 흥분하고, 바둑판을 뒤엎고, 심하면 상대방과 말다툼까지도 하는 시행착오를 숭하게 범하였다.

다시는 바둑돌을 안 잡으리라 이런 고집으로 몇 개월도 보냈고…… 그 흥분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화를 삭이지 못해 뒤척이었던 적도 얼마나 많았던가?

바둑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3학년말 겨울방학이었다. 본격적인 바둑 공부에 돌입했다. 사까다씨의 “포석의 묘” 월간 바둑지, 기초적인 바둑책들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했다. 변칙과 술수의 얕은 바둑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정통 바둑 공부를 하였다.

기초가 되는 정석을 바둑판에 놓는 일에서부터 바둑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까지 안목을 넓히는 일을 방학 동안에 해내고야 말았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바둑은 오락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이고 도(道)인데…… 이런 생각을 굳히고 바둑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동네 어른을 찾아 뵙고 무릎꿇고 바둑 실전작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나의 기초적인 정석바둑이 그분들의 변칙에 의한 노련한 솜씨에 의해 맥을 쓰지 못했다. 집에 와서 다시 복기를 해 보고 온종일 바둑돌하고만 씨름을 하였다. 이런 각고의 인내와 노력이 있어서인지 신기하게도 나의 바둑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6점, 4점, 3점……

방학이 끝날 2월 말쯤엔 잘두시는 동네어른들과 거의 비슷한 바둑이 되고 말았다.

왜 이처럼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흔히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한판의 바둑속에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죽은 돌이 갑자기 살기도 하고, 자신의 몇 점의 돌을 아깝지만 과감하게 희생시키는 것이 현명할 때도 많다. 때론 타협도 해야 되고, 과감하게 적진 속에 들어가 외로운 혈투도 해야 된다. 어느때는 일찍 돌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바둑으로 실패를 거울 삼아 착실히 다시 시작하는 현명함도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둑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가를 깨닫게도 해준다.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를 생각해 주기도 한다.

바둑을 두어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유연한 사람, 고집 센 사람, 끈질긴 사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투쟁을 좋아하는 사람, 타협할 줄 아는 사람, 일찍 좌절하는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믿음성이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중후한 사람……

다시는 두고 싶지 않은 사람, 오래오래 다시 두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한판의 바둑을 처음 시작부터 신중하게 두는 자세. 그는 바로 인생

을 성실하게 살려는 자세나 같다. 바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지 않나? 그래서 바둑은 道라고 하기도 하지 않나?

그처럼 심취했던 바둑들과 멀어진 지 10여 년이 넘었다. 그만큼 일에 쫓겨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예를 아는 그런 다정한 기우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도 있으리……

그동안 멀리했던 바둑들을 매만져 보고 싶은 충동이 마구인다. 언제쯤 가능할런지, 그런 여유있는 시간이 언제쯤 나에게 올 수 있을런지……

한판 한판의 바둑판 속에서 어떤 삶이 가치있는가를 배우는 참으로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가 언제쯤 올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나서야지……

그것은 나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능할테지…….

은행나무 가로수 길

신 득 균

라 할까?
향수 불현듯 초임지가 그리워진다.

대천.

확트인 페이브먼트 시가지. 정연한 건물, 친절한 상인. 시민들의 질서…….

웬지 밀고 밀림과 눈치와 작은 재주가 필요없는 앞서 가는 도시의 인상이다.

찾집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키곤 곰곰 생각해 왔다.

18년. 하기사 강산이 두 번을 변할 수 있는 세월이라곤 하지만 변모의 원천을 시간에서만 찾기에 질투가 날만큼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다. 창 밖을 바라보노라니 무심코 지나쳤던 감나무들이 눈에 들어 왔다. 시가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중앙로뿐만 아니라 블록의 작은 길가에 마저도 감나무들이 질서 정연하게 심어져 있다.

만추의 창공과 잎들 사이 절반쯤 영근 속살을 감추듯 드러내는 실

한 감들. 그대로 불후의 명화다.

어쩌면 저 많은 가로수의 감들을 저리도 고스란히 놓아 두었을까?
아마 이곳의 사람들은 썸을 아는 어른도 심술보 아이들도 없나 보다.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맨처음 저 나무를 심은 이는 누구였을까? 그는 하필 감나무를 가로수로 그리고 지금, 저 많은 감나무들을 가꾸고 아끼고 보살피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어떤 신분과 연령, 환경과 입장에 있던 분명한 것은 이곳의 시민이란 사실이다.

초임 시절,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탄가루와 비가 올 때마다 온통 질척거리는 거리의 가난한 기억이 전부인 나에게 이렇게 성숙되고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 도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고층 빌딩?

부쩍 늘어난 차량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따져 본다면 갯시(市)로 승격되어 시세도 그리 크지 못한 우리 서산보다 나올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느 다른 도회에서 느낄 수 없는 이 건강하고 활기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도회의 포플러 대신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가꾼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들은 시가지의 가로수로 감나무를 가꾸어 오면서 어떻게 해야 보다 건강한 나무로 성장시키고 실한 열매를 맺게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체험하고 터득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단군의 파아란 하늘과 한국의 감나무, 거기에 빌딩 숲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물질 문명을 가장 자연스럽게 접목해 놓은 것

이다.

빼앗기지지도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도도히 우리의 것 속에 다른 것을 포용한 것이다. 시간의 공존과 공간의 질서를 가장 조화있게 창출해 낸 예술가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감나무의 주인들로 하나되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다.

감나무가 낳은 '시민정신'이라고 할까.....

우리는 이 지구상의 많은 위대한 도시와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론 선망하기도 한다.

반면, 퇴폐와 향락으로 병들어 가는 양적으로만 팽창한 도회와 그곳의 실의에 빠진 시민들을 보고 안타까움과 경멸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지역과 그곳의 주민들은 서로 운명을 함께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시민의 의식 여하에 따라 그 시는 성장을 할 수도 파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뉴욕의 시민들은 맨하탄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며 자유의 진리를 실천하는 '미국정신'의 요람이 되었고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고 있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에 대한 열정으로 경제 기적을 일으켜 조국의 통일을 가져 왔고,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의 자존심으로 무력의 만주족을 그들속에 흡수해 버렸으며, 덴마크인들은 달가스의 동상 앞에서 황무지를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영국의 어린이들은 숲으로 둘러 싸인 그들 전통의 학교를 오가며 신사도를 배우고, 스위스의 아이들은 알프스의 초원을 바라보며 규폐증의 자기 희생을 통한 세계 제일의 관광지를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 주었다. 오늘도 네델란드의 청소년들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풍차 앞에서 무엇을 다짐하고 있을까?

그럼에 내가 살아 가고 있는 서산을 생각해 본다.

서산에 와 살아오는 이 6년, 나도 내 아이들도 서산 사투리에 길들여지고 어리글것에 미각을 돌구는 서산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부춘산을 산책하며 간밤 바람에 불려 나뭇가지라도 부러져 있을라치면 안타깝기도 하고, 비록 등기난 내 집은 가지지 못했지만, 늘어난 아파트하며 마천루의 빌딩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노라면 나는 그대로 유치원 아이가 된다.

애써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을 뿐 정말은 아름답고 멋스럽고 여유있는 곳이다.

부춘루에서 바라다 보는 여명의 운무는 어떠하며 '님의 침묵'을 연상케 하는 산책로의 솔숲은 우리 모두를 시인되게 한다. 거기에 미래의 대산공단 해미비행장…….

그야말로 쉽고 일터가 함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나를 서산인으로 붙드는 것이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고 신바람나는 것이 있다.

서산 여자 중·고등학교의 입구에서 부터 시내를 향해 시원스레 뚫린 4차선 포장도로 양길가에 심겨진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활주로같은 그 멋진 도로도 체증 뚫리는 일이거니와 행복을 가로수로 택한 것은 정말 어깨춤이 절로 나는 일이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소녀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등학교 길이라는데 더욱 그러하다.

이제 머지 않아 우쪽 자란 행복의 가로수는 여름철이면 은행나무 그늘을 드리워 우리의 소녀들에게 푸른 꿈과 젊음의 이상을 키워줄 것이고, 가을이면 국화꽃으로 물들어 매마름으로부터 소녀들을 지켜 때론 눈물 그렁이기도 하고 고뇌와 우수에 젖어 보기도 하는 문학소

너로 만들기도 하고, 떨어져 누운 잎들은 책갈피에 끼워져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 할 줄 아는 여유와 사랑을 갖게 하리라.

이제 우리들의 소녀들은 차에 먼저 오르려 친구를 밀치지도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 옆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으리라. 행목의 숲사이로 단정히 교복을 차려 입고는 마리아 릴케의 명상록을 읽고, 윤 동주의 서시를 외고, 이젤을 들고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며 그 거리를 오가리라. 질주하던 차량들도 이 지성의 거리에서만은 잠시 속력을 낮추고, 경적소리 울려대지 않으며 외지의 관광객들조차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잠시 잠깐 그들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아득한 옛날 그렇게도 가슴 두근거리게 하였던 단발머리 소녀들을 떠올리게 하리라.

소녀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가득하고 고운 잇속 드러낸 하얀 미소가 은행잎 사이 더욱 반짝이리라.

시간의 공존과 꿈의 향연이 잉태되는곳.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길, 낭만의 거리 동경의 공간이 어디 또 있을 수 있을까?

한 그루의 작은 감나무 가로수에서 수만 시민의 시민의식이 일깨워졌 듯, 하나의 작은 거리에서 잉태된 자유 정신이 세계의 정신으로 승화되었 듯, 이제 우리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더욱 시내로 이어져 중앙로를 지나고 동네 고샅의 작은 길목에까지 이어져 서산 시민을 하나되게 하고 가장 서산인답게 만드는 '서산 정신'의 요람이 되리라.

맨처음 행목을 심은 이가? 그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할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서산인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빨사, 우리의 서산에 그런 자궁의 거리가 없다면, 그런 동경의 길이 없다면, 나는 내일 아침 부춘산의 산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예견된 실락원을 찾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 미래의 길이 있는 이상 서산은 나의 복락원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여고 입구에서 하차를 했다. 아직은 유목에 지나지 않아 그늘조차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했지만 노오란 아가의 옷을 입고 석양에 반짝이는 은행목 줄지어선 가로수 길을 걸으며, 저만큼 앞서 가는 어느 노인이, 젊은이가, 아이가, 소녀들이 왜 이리도 정이 가는지 모르겠다.

나의 어머니

세 모.

한 해가 저무는 무렵이란 뜻일 게다.

감나무 한 잎이 O. 헨리의 마지막 담쟁이 잎처럼 애처롭다. 바람이 불때 마다 사라져버릴 듯 간당이는 모습이 차라리 내 손으로 떼어 주었으면 싶다.

바람일 뿐, 가없는 잎 하나로 겨울을 막을 수 있으랴!

현기증이 나도록 변모 심한 세상에 살다보니 늘 계절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 서운하고 안타깝고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변화에 길들여질 여유도 없이 떠밀리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기분이다.

마지막 잎새인들 계절이 바뀌면 다른 주인을 위해 자리 비워야하는 시간의 질서를 모르랴

스스로 떠남이 곧고 강한 새 생명 탄생의 잉태임을 어찌 모르랴?

마지막 잎새는 작은 몸을 던져 우직하게 겨울막이가 되고 있다.

나도 이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모든 변화 속에 불변으로 남겨진
우리들의 진리이고 사랑의 마지막인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
'삶의 원천이며 영원의 안식처'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우리들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매서운 계절은 끝내 우리들에게서 그런 진리마저 빛바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내 어머니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잎새의 우직함보다는 너무 쉽게 계절에 순응해 가는 현명함에 웬지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가져진다.

퍼머·고데·노란물을 들인 서구의 헤어 스타일이 쪽을 틀고 비녀
를 꽂은 우리의 어머니들을, 1회용 지저귀·가공된 분유·유모차가 지
저귀를 빨고 새참의 논둑 젖을 물리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세련
된 탭시에 카메라 후레쉬 세례를 받으며 작은 영웅이 되어 가고 있는
주부가요 열창이 메주를 띄우고 바늘귀를 더듬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들을, 해외 나들이·전자기기·아파트문화·네온사인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득 놀랍고 서러운 생각에 나의 어머니, 아니, 우리들의 어머니에
게로 달려가게 한다.

나의 어머니는 고향을 훨씬 넘겨 얼굴엔 온갖 주름이 드리워 지고
치아가 없어 김치뿌렁이 하나 제대로 씹지 못하시는 언젠가부터 손주
녀석들에게 '팔죽 할머니'란 슬픈 변명이 붙여진 그런 늙은 어머니이
시다.

자기 이름 석 자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분이시지만 다른 것은 몰
라도 아들이 살고 있는 곳만은 그곳이 어디든 분명히 기억하신다. 친
안으로 이사를 하든 대전으로, 서산으로 하든 용케도 기억해 내시고

찾아 오신다.

그 노령의 몸으로 손수 모종을 하고 두엄을 내고 김을 매어 지으신 고구마며 감자를 누더기 보따리에 싸들곤 틀림없이 찾아 오시는 것이다. 버스에 적힌 행선지도 모르시건만 아마도 어머니에겐 아들이 사는 곳만은 찾아내시는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 보다.

별보다는 스스로 깜깜한 밤이 되길 원하시기에 그런 빛 가려진 세상에도 익숙하신가 보다.

유난히 자식을 많이 두어 항상 힘드셨던 어머니. 요즈음 와선 무척 연로해 보이신다.

매년 1월 1일은 일 년 중 유일하게 우리 칠 남매 모두가 고향의 집에 모이는 날이다.

뜻이야 어머니를 위로해 드린다고 하지만 걱정과 수고로움만을 안겨드리기 일쑤다. 자식들을 만나는 기쁨은 전날로 다 끝내야 하고 정작 그날이 되면 떠나 보내야 할 자식들 걱정에 편히 따뜻한 국 한그릇을 다 비우지 못하신다.

다 주시고 이제는 병들고 지치신 늙은 몸밖에 없으시련만, 행여 내년엔 못보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인지 손이 넘은 큰딸에서부터 아직 성사 못시킨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꼬레꼬레 봉승을 싸 놓으셨다.

농촌 사는 큰딸 봉승엔 작년 아들이 다녀가며 사드렸던 영양제를 한두 알쯤 드셨을까 아들 몰래 고스란히 넣어 놓으셨다. 서울 사는 아들에겐 모두가 돈이라며 알이 고른 고추며, 참깨·마늘을……. 이래저래 다 싸주시곤 당신계신 정작 못 먹게 된 쪽정어만을 남겨 놓으신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 모두 보내시고 홀로 남겨진 당신은 그날부터 또 삼백 예순 다섯 날 내내 달력을 지워가시며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차마 사립문조차 잠그시지 못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문득 잠이 깨어 계실 어머니이시건만 우리는 바쁜 삶을 핑계로 너무나 철저히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

지난 해 모였을 때의 일이었다.

이제는 장성하여 나이 마흔이 넘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건만 당신에게 있어 아들은 어린 시절 그대로일뿐 더 자라지도 나이를 먹지도 않나 보다. 늘 말라 있고 약해 보이는 둘째 녀석이 못내 안타까운 것이다.

옛 어려웠던 시절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학비 한번 재때에 주지 못한 모든 것이 당신의 죄인양 마음에 걸리시는지 늘 성화이다. 잠들어 있는 둘째 곁으로 돌아 누우셔선 얼굴 부비시며 눈물 그렁이신다.

다음 날 집을 나섰을 때였다.

누가 볼새라 머뭇머뭇 다가오시더니 손을 만지시는 체 무언가 얼른 쥐어 주는 것이 있었다. 한참을 가다 펼쳐보니 웬 돈이었다. 꾸겨지다 못해 헤어지다 싶이 한 어머니 뺨지 속에 들어가 처음 나와 보는 돈이다. 다른 자식들의 눈치도 살피야 하고, 때론 발도 매셔야 하고 감도 내다 파셔서 모아온 9만원이나 되는 돈이었다. 약이나 지어 먹으라며 주시는 것이다.

아무렴, 내게 그런 돈이 없으려구.

가슴이 뭉클하다.

그 돈을 일 년 가까이 모아 오시며 나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도 철저히 잊고 지내는 몸쓸 자식이련만.....

어쩌다 시간을 내어 집에라도 갈라치면 반가와 울먹이시면서도 무엇하러 왔느냐고 꾸지람을 주신다.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못내 아쉬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며 짧은 시절 넘으시던 고개 마루를 구태어 고집하신다. 다른 것은 다 자식을 위해 주시지만 고향지킴과 고개 마루까지를 고집하시는 성화만은 늘 자식을 이기신다.

이쯤이면 돌아가셨겠지 한참을 오다가 되돌아 봐도 나의 어머니는 그대로 하나의 꼬부라진 할미꽃이 되어 휘이휘이 손을 젓고 계시다. 또, 한참을 가다 되돌아 보아도 나의 어머니는 하나의 석상이 되어 영원히 아들의 돌아가는 길을 지키고 계시다.

내가 멈춰 서면 그만큼 어머니는 앞내 찬바람을 안고 서 계시야 한다.

바람이라도 제발 세차게 불지 않았으면 눈이라도 제발 세차게 때리지 않았으면 나는 독 아래 몸을 숨기고 못난 자식의 눈물을 닦는다.

나의, 어머니 오늘도 시간의 질서 저 편 끝자리 홀로 서 온몸으로 겨울을 거부하고 계시는 나의 우리의 '마지막 잎새'이다.

돈 키호테 스타일 남성

요 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돈 키호테 스타일 남성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

‘돈 키호테’라면 스페인의 문호 미겔·데·세르반테스·사아베드라가 중세 유럽 사회에 유행되었던 황당무제한 기사도의 이야기를 타도하기 위해 지은 장편 풍자 소설 속의 주인공이다.

‘돈 키호테’ 말만 들어도 웃음부터 난다. 그의 행동 어느 한 가지도 엉뚱하고 우습지 않은 것이 없다.

여인숙의 주인을 성주로 상상하고 기사 임명식을 받는 일이라든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에게 적이라 외치며 창을 뽑아 들고 달려 나갔다가 목동들에게 붙들려 실컷 매를 맞는 장면, 풍차를 악한으로 여기고 덤벼들다가 상처를 입는 일 등

“라만차의 돈 키호테가 여기 있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의 광기의 발현과 희극적 우행에 우린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처럼 영악하고 계산 빠른 현명한 사람들이 좀더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 남성이 아닌 엉뚱하고 바보스런 인간형을 선호한다니 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하기사, 소매치기의 현장 앞에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 눈을 피해버리는 요즈음의 용기없는 남성들, 불량배의 희롱이나 폭행을 목격하면서도 보복이 무서워 주먹 한번 힘껏 쥐어 보지 못하는 세상이고 보니 차라리, 현실과 상상조차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망정 소설 마지막 장면 기우제에서처럼, 흰옷 입은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 동상에 검정 부대를 씌워 걸머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악한들이 귀부인을 잡아가는 것으로 상상 그들의 앞을 막고

“저 아름다운 공주를 이 자리에서 당장 자유의 몸이 되게 해드려라.”

“이러한 폭력을 없애려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공주를 살리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당당히 외치는 그의 용기있고 정의적인 면이 시대 상황에 따라 요즈음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재평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와 함께, 시집을 때 해 가지고 오는 장농 열쇠,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사무실 열쇠 등 소위 열쇠의 수요에 따라 신부의 짐수를 매기려 드는 극단의 타산과 물질 만능 출세 제일주의적인 못남성들로부터의 실망과 염증이 돈 키호테 스타일로의 복고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로 본다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꽤나 멋있는 사람들이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순애적인 사랑보다는 A(Age-나이), B(Back-배경), C(Character-성격), D(Degree-학벌, 학위), E(Economic-경제력)의 조건에 맞추어 가며 백화점의 물건을 고르듯 품질 보증의 신랑감을 사려고 뚜쟁이를 동원하며 망신스런 신조어를 만들어 내더니.....

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멋있는 개선인가?

진작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신혼의 신부가 혼수감의 시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라든지 더 많은 열쇠를 강요하는 남편을 고소하는 등 슬픈 이야기가 신문 기사의 노리갯감이 되지 않았으련만.....

‘돈 키호테’ 생각할수록 부담없이 좋은 인간상이다.

어리석고, 엉뚱하고, 우직하고, 시절스럽고, 다소 나사가 풀린 듯한 그러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정직하고 외골스런 그런 사람인 듯하다. 대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지 않고 나를 꾸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의 삶은 영위한다기보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비참한 전쟁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늘 남을 의식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 속을 계산해야 하고 자신을 위장해야 하고 공격과 방어·공존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이런 지쳐있고 피곤해 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폭 쉬어 보고 싶다.

나는 너무 똑똑하다거나, 잘 생겼다거나, 명문가라거나, 유능하다거나 하는 일류라는 마크를 이름자 앞에 명함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을 대할 때면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대하기 거북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진다. 열등 의식도 있겠지만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몇 배의 방어력을 준비할 필요도, 그들의 우쭐거림을 수용할 남다른 자제력도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난, 돈 키호테 같은 사람이 좋다. 제자, 후배, 선배, 직장 동료, 친구 등 가능하다면 내 주위엔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편해서 좋고 자존심 상할 염려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좋다.

있는 그대로 낮잠 중 부시시한 얼굴이건, 잇속 사이 고추 가루가 끼었거나, 마늘 냄새가 나거나, 양복 위에 비듬 몇 개쯤이 떨어져 있어도 책을 잡히지 않을 것 같아 편하다.

아마, 돈 키호테 스타일을 취향하는 현대 여성들 또한 나와 같은 이 유에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남성과 함께 하니 열쇠의 강요없어 친정 부모 집 안되어 좋고, 결눈질할 염려 전혀 없으니 성형 수술 필요 없고, 출세 야망 없으니 사장님댁 사모님 생일 기억할 필요 없어 좋고, 표정이 곧 속마음이니 눈치 살필 수고 없고, 사람 좋아 다루는 일 없으니 퇴근 후 짜증 안내 좋고, 좋은 것뿐,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다. 그냥 처음 태어날 때 그 마음 모습 그대로 보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진실하고 따뜻한 행복이 어디 더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그들의 삶은 선악과의 원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쪽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두가 원죄 이전의 하와들이다.

그러나 후일, 요즈음 여성들이 선망하고 있는 ‘돈 키호테’ 스타일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지식한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신조 은어로서 전혀 딴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돈(돈많고), 키(키크고), 호(호탕하고), 테(제주, 수완있는) 남자를 일컫는다는 것이다.

입맛이 씹쓸함을 느꼈다. 그들에게 가져졌던 신선한 그리움은 연민과 후회로 바뀌었다.

믿음 또한 실망을 수반하는 것을……

원죄를 범하기 전 동경의 하와는 이제 뱀의 붉은 혀에 현혹되고 아담마저 멸망시키는 한낱 요부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마저 생각되었다.

수년 전 우리를 슬프게 하던 결혼 풍속도인 A.B.C.D.E 조건보다 더 물질 추구적이고 감각 지향적이 아닌가?

또, 앞으론 어떤 남성 스타일이 여성들의 구미의 대상이 될까?

웬지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가 않다. 왜, 그네들은 스스로 에덴의 동쪽을 버리고 구태여 선악과의 게임에 주사위를 던지려는 것일까?

나는 몇 번이고 힘껏 고개를 가로저었다.

‘돈 키호테’은어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내 온전치 못한 귀가 잠시 청각 장애를 일으킨 것뿐이라고…….

나는 성치 못한 내 오관을 책하며 나의 아씨들은 진짜 돈 키호테 스타일의 백마(로시난테)탄 왕자를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네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내 예쁜 종이학 한쌍을 접으리라.

鍼德으로

李 英 夏

“맥도 모르고 침통만 혼드는 사람입니다.”
찾아오는 병자에게 우선 한자락 겸손의 자리부터 펴고 보지만 침은 신묘한 것이다. 사람을 구제하는데 때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시술이 용이하나 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立秋가 지나 조석으로만 서늘한 늦저녁이다. 요란한 초인종소리에 대문을 열자 달려들듯 다가서는 칠십 전후한 남자 노인을 선두로 잠바로 어린애를 감싸안은 삼십이 가까운 젊은이와 그 발을 붙들고 흐느끼는 부인, 이 낯선 일행은 심야에 실례한다는 말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쫓기듯 들어선다. 내려놓은 아이는 너더뭇 살쪼매 보이니 이미 축 늘어진 몸에 눈을 홑뜨고 코는 올려붙여 있으며 입술은 푸르고 허영게 변색된 채 사지는 점차 경직되어 간다. 그들은 옛 동헌의 사또앞에 불려온 죄인이듯 “살려달라”는 애원만 연발하는데 슬며시 다가온 아내는 내 옆구리를 슬쩍 꼬집고 물러선다. 손대지 말라는 신호이런만 둘러앉은 시선들이 일제히 내게 얹히는게 느

꺼온다.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침을 잡고 다가 앉노라니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고 머릿속은 시러온다. 침을 꽂은 지 담배 한 대 태울 시간이 되면 뒤를렀던 수족부터 풀리고 콧등에 얹은 땀이 솟아 맺히며 눈가에 가늘게 경련이 지나서야 비로서 가슴조이며 들이쉬었던 숨들을 길게 내쉰다. 옛부터 一鍼·二灸·三藥이라고 일러 온 것은 이렇듯 침의 효력이 우수한데서 연유하였을 것이며 달에도 다녀오고 별을 향하여 출발 연습을 하는 과학의 첨단시대에도 침이 점차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약물에서 올 수도 있는 부작용의 걱정 없이도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겠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의 복잡해가는 산업사회에서처럼 재화나 명예의 욕망에 사로 잡히지 않고도 넉넉히 단순한 삶을 누리었는지니 질병에 걸린다 하여도 곁몸에만 가볍게 머물뿐 뼈속까지 깊숙히 침입받는 정신적인 병은 적었을 것이니 곁몸에 자극만 주어도 쉽게 풀렸으리라. 그러니 돌침이나 뼈침, 대침정도로도 잘 들었을것이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쇠, 스테인레스, 은, 금으로 제조하여 쓰는가하면 전자침까지 등장하고 있다. 침이라면 華陀나 扁鵲을 원조로 치지만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물론 인도의 노파도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을 치료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메리카의 잉카족들 유적지에서도 머리수술 흔적과 금침이 발견되었다 한다. 우리에게도 함경도 석가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침과 뼈침이라던지 삼국시대 일본에서 배워갔다는 기록, 고려때 왕실치료사례, 조선시대의 법제화 했던 실록 등은 선인들이 물려준 커다란 유산자원이겠다. 근래에 남미나 호주 등에서 침술을 배우러 오고 있고 선진화됐다는 유럽쪽에서도 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세계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더니 드디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침구치료가 전인류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학으로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나도 어릴적(6·25전)엔 침덥을 단단히 입었던 시절이 있었다. 철들기 전엔

선친의 엄한 명령(?)에 따라 그 무서워 보이던 윤생원께 세배를 드리러 다녔고 지각이 들면서 문안드리러 다니는 사이 은연중에 보여지기 시작한 仙骨의 정갈한 풍모에 구도적 생활은 가히 경외스러운 서늘함을 느꼈었다. 기인이라고 여기던 그 어른께서는 봄이면 목적지도 없이 훌쩍 떠났다가 여러날만에 불쑥 들어 오시고 여름엔 미리 만들어 놓은 棺위에서 시원하게 주무시면서 탈속 생활을 하시다가도 침시술도 하고 약을 지어 주시는 등 자유자재로 지내시지만 훗날 물 한그릇 떠서 놓아드릴 자식하나 없고 후계자도 있어 봐지 않는 이 달인은 말씀 시작 하시면 몇 시간이고 나직나직 이어가심이 마치 심산유곡을 흐르는 한줄기 가을 물길을 연상케 한다.

“대우주의 축소판이 인간인지라……”에서부터 누에가 실 풀듯 거침 없이 나오는 말씀을 온몸으로 들으며 우러러 바라보면 이 어른의 상이야말로 빈 계곡을 꽉 채우며 천년을 지켜온 둔후한 석불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聖書에도 환자의 맘먹기에 따라 간절히 간구하며 구원받기만 원하여도 예수께서 손을 대든 안대든 문둥병, 증풍, 소경, 병어리들이 씻은듯 완치가 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도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만으로도 앓은뱅이는 물론 죽은 자 까지도 소생 시킨다. 당시에 현대와 같은 우수한 의료기나 약품이 없이도 정신료법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였으리라. 그렇다. 환자의 신뢰도에 따라 병은 상당한 변화의 차이를 가져오는게 사실이다. 대개의 환자를 두 부류로 분류해 본다면 먼 지방에 사는이들이라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인근에서 면식도 없건만 전화상으로 요런 상태인데 고칠 수 있느냐고 지나는 말로 물어오는 환자가 있어 치료과정에서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속이 열린 전례의 환자는 훨씬 좋아졌으며 아직도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으나 곧 나올 것만 같단다. 말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병을 떨어내면 진정으로 고마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침

의 효능을 알릴 사람이다.

“이제 나를 때가 됐는데 왜 이리도 더디냐”며 부분적으로 경감되는 통증이나 점차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선뜻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속단한 이런류의 환자를 불치의 환자로 간주한다. 식물의 씨앗들이 그종류에 따라 발아 시일이 각기 다르듯이 침덕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은의 발아가 이와 흡사하게 나타난다. 언제 고쳐주었느냐는 듯 덤덤한 사람, 당시에만도 고마워 하는 사람, 간간 잊지않을 정도로 왕래하는 사람, 세월이 흘러 기억에서 지워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찾아드는 사람 등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속편케 돌리고 만다. 툭툭 여물을 알찬 오곡을 신께 천신드리듯 년년이 지성껏 사가지고 오는가하면 살아서 멀뚱멀뚱 눈떠 있는 씨암닭을 안고 들어서는 순후한 농촌 부인도 있고, 드릴것 없어 아들이나 드리오니 수양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옛 고조선 씨의 원형을 만나기도 하며 부모 성묘 다니듯 찾아와 헐썰푸대를 쿵 하고 내려놓는 촌부의 農心. 우리말고 세계 어느곳에 이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던 말인가. 지난 설 뒷날 오후였다. 불이 통통한 중학생을 앞세우고 삼십대 중반의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이 여러해전 한밤중에 황급히 찾아왔던 날의 당시 상황을 얘기할 때에서야 또하나의 열린 인연의 열매에 조용한 유열이 고인다. 이제 이 아이는 잔병없이 무난히 성인이 되겠고 내가 사라진 뒷날에도 그들은 어울려 한잔 나누며 어릴적 생명의 연결 부분을 담담히 얘기 하리라. 그때마다 나는 그속에 살아 있으리라.

나물 任者

나물은 여전히 副食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왔다. 사람의 식성은 타고날 때부터 제각기 다르지만 식성이 짧고 까다로와 가려서 먹는다는 사람도 나물찬 앞에서는 잠자코 수저를 든다. 山이 넉넉한 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富者인 내가 이따금 서울에 올라가면 故鄉이 왔다고 번번이 환영을 하며 시설 좋은 “가든”식 식당에서 회포를 풀지만 언제나 고향타령 뿐이다. 「옛날(어릴적)에 그 기막히게 구수하던 음식맛이며 「人寺의 산채 공양식은 어째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나」는 등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더 잘차려진 山海珍味 기름진 음식상 앞에서도 회억담으로 입가심을 하곤 한다. 시골에서 자랐던 우리들 세대에게는 이 맛의 맑은 기억이 뚜렷이 나무밀동의 나이테처럼 향기까지 간직하고 서려 있는 것 같다. 봄이면 청얼거리는 손자를 엮은 채 담장 밑에서 소루쟁이를 도리고 퇴비장가의 살오른 냉이를 캐시고 텃밭밭이 미나리 깡에서 불미나리를 뜯으시는 날엔 으레 적녇밥이 해픈 날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이 물리지 않는 채식을 해오신 것 같다. 그러다가 담가두고 오래먹는 김치(沈菜)를 생각해내셨을 것 같고 이것이 제맛을 잃어갈 때면 아무래도 다시 햇푸성귀쪽으로 입맛을 돌리고는 하셨으리라. 그 어른들이 중시하던 五行說에 의하면 봄이면 木克土라하여 木의 기운이 성하므로 土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脾胃는 자연이 약해지기 마련이란단다. 그런즉 이러한 비위를 돋우어 주는 木性인 酸味 음식을 섭취하여야만 이른바 계절병이라는 春困症을 예방할 수 있어서 身土不二라는 것이리라. 神은 이땅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을 내지는 않은 것같다. 독이 없는 것은 나

물로 먹고 독성이 있는 것들은 약으로 쓰인다. 그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백여가지의 산과 들의 나물을 요즈음은 맛맛으로 먹지만 지난날엔 살아오기 위한 생존의 식량으로 삼았던 시대도 있었다. 나물을 섞어서 지으면 나물밥이요, 곡식가루에 섞어쪄면 나물죽도 되고, 나물범벅으로도 만드는데 이 지혜가 오늘날의 우리 민족을 부양해 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던 어머님께서도 살림을 놓기전까지만 해도 간장을 십여 년 이상이나 묵히며 자손들을 양육하셨고 음력 이월 초하루까지는 五穀밥과 七乾菜찬으로 푸짐하게 대접하며 농한기를 마감하셨었다. 이 山菜文化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는 中國人들도 다섯가지 봄나물을 재료로 맵게 만든 五辛盤을 즐겨 했고 삼나라 日本人들도 일곱 가지를 골라 七草죽을 쑤어서 별미로 먹었다고 한다. 어떤 학자의 설에 의하면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하는 사람은 육식자보다 창자가 길어지고 명상적이라고도 한다. 중국 명나라 때 학자 洪自誠의 著書인 採根譚에 보면 「명아주 나물로 입을 달래고 비름 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이에게는 얼음처럼 맑고 玉처럼 결백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나물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도 상당히 해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시지만 생존시의 말씀이 생각난다. 「山菜는 다 藥材니라. 그래서 이걸 뜯어먹는 짐승까지도 보약이 된다.」하시면서 「백 가지 천 가지 독없는 산야채를 채취하여 白藥丸이나 千菜丸을 제조, 복용만 한다면 내 수명은 이것으로 십 년은 더 연장되었는데……」버르시지만 하다가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아마도 머릿속에서만 菜園을 가꾸시다 가셨나 보다. 都市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앞 뒷산은 모두 내 정원이라고 호언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때 아리에 공허 하여도 여기 떠나면 큰일이나 나는 줄 알고 기둥뿌리 박고 사는 이곳 부엉이골과 바윗골의 산나물은 해마다 산짐승들과 공동 관리하면서 텃밭에 심어 가꾸는 채소처럼 초벌 두벌 세벌까지도 맘놓

고 뜯어다 읊내사는 친한이들에게 돌리는게 춘계행사다. 어떤 날엔 해가 실핏하여도 괜스리 심심하여 집이나 한바퀴 돌고 부엌 한번 기웃거리다 방에 들어서서는 마치 스스런 손님이라도 되어온듯 자세 바르게 앉았노라면 입맛 맞춰서 양껏 먹으라고 덧그릇과 참기름병, 양념단지까지 곁들여 온다. 흠뻑한 맘으로 한 저범 두 저범 입에 넣는대로 고소한 맛과 향긋한 내음이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퍼져서 깊어가는 봄밤 꽃향기 속에 혼자 잠긴다. 요즈음은 강원도 지방에서 채취한 산채를 잘 건조하여 우편 판매도 하고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여 들여온다. 시장 뒷골목에 나앉은 산골 아주머니의 나물 바구니와도 만날 수 있고 절 근처의 판매상점에서도 잘 포장된 전체를 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최상품이라면 곡우로부터 입하 전후의 것이라야 하고 데쳐내는데도 제 빛깔과 향내를 잃지 않아야 신선도와 감칠 맛을 얻을 수 있다. 년년이 말복이나 처서 때면 귀에 콕차게 들어오던 매매소리와 동행하는 들깨잎 냄새가 안뜰에 가득히 밀려들고 마당가에 피마자잎에도 들기름을 메긴듯 번질거린다.

이때부터 아내의 손길은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마당가의 평상과 명석 위에는 마치 품평회에 출품이라도 하려는듯 명위, 피마자잎, 시래기, 들깨잎, 가지, 무우 오래기, 고구마잎 줄기, 뽕잎, 애고추, 박속, 서리호박, 꿀물참의 등을 정갈하게 썰어 말리느라 노루꼬리처럼 짧아지는 하루 해 따라 동동걸음친다. 농한기에 서울에만 올라가면 胃사정은 안두고 번쩍이는 술집에서 돈을 푹푹쓰던 친구들이 년말년시 연휴 때만 되면 곱게 포장된 선물 하나씩 들고 철새처럼 떼지어 내려온다. 이런날에는 식구들 얼굴들이 환히 빛나고 대사를 치루는 집 분위기 되어 아까는 소나무장작부터 아궁이에 지핀다. 계절과 산야가 축소되어 가득실린 저녁상에는 오탁밥을 짝하여 툭툭한 산나물국이 자리하고 불려서 무친 나물들이 정성과 솜씨로 되살아나 수북수북 놓였어도 눈에도 안찬다는 투정이다. 밤이 이슬하면 深山幽谷의 山房인듯 淸談들이 봄넋물

처럼 도란도란 흐르는데 한약재로 담가둔 해묵은 술로 순배를 거둬갈 수록 竹林七賢이나 된듯 風流談 養生論으로 더욱 무성히 밤을 지새운다. 「어디에고 땅을 파면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솟고 자라는 草木마다 약성분이 오르는 축복받은 정기의 신비로움이며 白頭山에 올라서는 자기의 용변까지도 싸가지고 下山하고 金剛山속에서는 情事 念조차 일지않는 엄숙함이며, 檀君時代 習俗을 지금껏 이어받아 지키며 살아오는 끈기 등 지순한 대화는 하룻밤 새로도 우리들의 머릿속을 깨끗한 銀魚처럼 담백한 想念의 살을 오르게 한다. 겨울이면 눈속에서 뿌리를 살찌우다가 봄이면 自生하는 더덕, 도라지, 치, 고비, 고사리, 두릅나물들도 각기 제내음 풍기며 올해에도 또 그 任者를 기다리겠다.

꿈을꾸자 그리고, 희망을 가꾸자

인 성 희

우리 조상들의 위업과 애환과 비통이 아니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인
고의 삶을 사셨던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장엄하고 역사적인
독립기념관 뜰앞에서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상기한다.

인류의 대 제전인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웅장하
고 환상적인 개막식이 시작되었을때 한국인이라면 누군들 감동의 눈
물을 흘리지 않았으랴!

16일간에 걸쳐 전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밤낮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1백60여 개국의 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겨룰 수
있었던 감격과 흥분의 장면들이 지금도 또렷이 떠오른다.

개막식중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리는 모습에서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아갈 꿈나무들의 미래가 평화롭고 씩씩한 도약이 되기를 빌면서 가
슴벅찬 기쁨과 함께 우리 미래를 상상했었다.

어린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서 불의와 폭력이 존재하지 못하고 공
중에서 무산되어 낙하 하는듯했다. 그리고 대립과 냉전의 벽을 뚫고

우리들간에 각 국가간에 화합이 곧 이뤄질 것만 같았다. 또한 모든 개막식 순서가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구나……」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심한 더위에 개막식을 준비한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며 뜨거운 박수를 나도 모르게 힘껏 손바닥이 상기될 정도로 치고 있었다. 이전에 올림픽을 단순히〈즐거운 행사〉정도로 알았던 나와 우리 이웃들도 관광객을 위하여 영어를 배운 택시기사님들도, 홀 짝수 운행에 협조한 시민들도 하나가 되었었다.

땀흘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실업고교생들의 노력, 년로하신 자원 봉사대원들의 인자하신 손길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 각종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태극기가 게양대 위에 올라갈 때 국민들도 선수도 하나같이 조국애에 불탔었다. 무릎꿇고 두손을 높이 주먹을 불끈 쥐며 감격하여 울부짖던 탁구정상의 유남규선수의 모습에서, 핸드볼에서 금메달을 따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던 남자군들의 눈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메달리스트들의 뒤편길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피나는 훈련, 손에 피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투성이의 강한 훈련과 매운 결심이 있었으리라.

올림픽이 끝난후 2년이 가까와진 오늘 모든 질서와 도덕심 和合과 발전이 올림픽 정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든다. 국내외 정세를 바라다 볼때 중동 산유국들의 전쟁소식으로 경제는 불황을 면치못하고 물가지수도 치솟고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와 고소비 풍조가 팽배하여 이웃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마다 산적된 쓰레기더미, 뉴스에 보도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심지어 주부도

박단의 사회악의 참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도대체 서울올림픽 이념과 정신은 어디로가고 질서의식과 화합의 아름답던 모습은 어디로 숨어버렸단 말인가?

꿈을 가꾸자.

올림픽이념의 진정한 우애·우정·페어플레이 정신을 나의 가정 내 생활속에서부터 심고 가꾸어야겠다.

첫째 사랑의 가정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이웃이 되어야겠다. .

나와 우리 주부들은 생활영역인 가정을 충실히 지키는 등대임에 틀림없다. 가장이 집을 떠나있을 때에 안심하고 뜻을 펼수 있도록 어른을 공경하여 대화를 정답게 하는일, 아이들에게 어른공경의 삶을 보여주는 일 자기의 일은 자기가 완수하도록 작은 것부터 가르쳐야 겠다.

아니 내집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나가야겠다.

부모님이 안계신 결손가정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보아야겠다. 그들의 마음에 예쁜 꿈을 지니도록 어둠이 깃들이지 못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나에게 꼭 맞는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녀는 이웃자녀의 환경이고 남의 자녀가 곧 내 자녀의 환경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곧 내자녀요 내 민족이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을 우대하는 가정, 대화와 사랑이 오가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런면에서 핵가족을 부르짖지 않는다. 경노사상을 들먹일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희생하신 노부모님을 잘 모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상사,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올림픽의 질서있는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리라.

둘째 우리 꿈나무인 청소년과 병행하여 공부하는 어머니, 지혜로운 주부가 되어야겠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치달는 우려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을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으로서 수신제가의 교육을 어머니는 딸아이에게 어른공경과 에너지를 바로알고 쓰는일, 불요불급한 물품은 구입 않는 습관, 허영심과 낭비를 모르는 바른 가계를 운영하는 법등을 생활속에 본을 보여줄때, 어찌 보석밀수나 주부도박단이 생길 수 있겠는가?

되돌아보면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인류역사 창조이래 가장 위대한 화합의 장이었다. 그동안(7년)이 평화의 제전을 마련하는데 전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실이었다. 우리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을 만방에 펼친 영광의 축제였다. 북한동포들도 한자리에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서독일이 통일하여 한데 어우러진 큰나라가 되는 것을 볼때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화합과 단결이 되고 남북간 협력의 바탕을 이룬다면 통일의 그날도 가까우리라 본다. 그리하여, 동·서 세계에 국제사회에 새롭게 태어난 한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대국인 한국으로 세계에 크게 떨쳐 나가자.

변산반도

최 경 옥

겨울 바다는 찬찬히 바스라지는 낙조에 의해 황홀한 출항을 서 두르고 있었다.

절묘하게 갈라져 사선과 파선, 원형의 기이함을 드러낸 물거품들은 소리없이 삭아들어 가고, 금새 자취도 없이 꺼져 갔다. 다른 바다와 바위에 엄밀히 따져 다를 바는 없겠지만 전혀 비슷함이 없는 절경의 총집산지였다.

바위와 물이 어울린 곳,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해 잘 다듬어진 듯한 층층의 바위는 서로의 색깔마저도 달라 인공의 맛을 자아내게 했다. 날카로우면서도 둥글게 갈린 돌 끝의 당돌함은 한쌍의 부부를 연상케 했고 그 자연스러운 어울림 또한 신의 창조를 실감나게 해 주었다.

자연이라 하는 것은 한낱 인간의 허영처럼 요란스럽게 치장하지 아니하더라도 가히 순수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만큼 충족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집어삼킨 석양의 뜨거운 울컥거림으로 인해 밧그스레한 여운이 남아있는 바닷물에 무수히 많은 인간의 자취들이

부딪쳤다 나자빠지곤 하였다. 땅끝에 빈몸을 부버대는 물살소리마저 잠잠해졌을 때쯤, 이미 세상의 빛은 어둠의 속으로 흩어져 가고 비린 내조차 무디어진 뒤였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 가는 곳조차 알 수 없는-속좁은 한 인간을 후려치고 지나갔다. 거칠은 겨울은 이러한 바람조차도 만삭으로 잉태한 채 저물어 가고 있다.

바닷가의 어둠은 속도가 빨랐다. 그 캄캄한 속에 간신히 빛을 드러낸 초저녁 달은 비수를 머금은 듯 차가웠다. 그 섬뚱한 빛 가운데 변산의 괴이한 바위들은 서로 기골을 자랑이라도 하듯 우쭐거렸다. 아마 오래전의 이 바위들은 끊어짐이 없는 한 덩어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빠른 달음박질 속에서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속에 감추어졌던 추잡스러운 창자까지도 드러났을 것이다. 바위에 가 부딪치는 바닷물의 아픔이 전해 왔다. 온 몸을 갈기갈기 후비고 밀려들어오는 깨어진 바위의 거센 도전 속에 바다는 어쩌면 저런 색깔의 멍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뭉글어진 바위의 모습.

처참하게 일그러진 물살의 비명.

어디선가 잔기가 몰려왔다 생선의 몸둥아리에서 묻어나온 비린내가 코끝의 신경을 모두 세웠다. 바위 위에 아무렇게나 앉아 소주잔을 털어내 버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군데군데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안주로는 조금전까지만 해도 살아서 배설물을 갈기던 멧개와 해삼. 김이 나는 창자가 아직 선연히 붙어있는 것을 입 안에 밀어넣고 힘껏 씹어댔다. 승리한 듯 뿌듯함에 그들은 벌써 흥청대고 있었다. 취기로 아련해진 저들의 눈에도 분명 변산의 웅장함은 다가섰을 것이다.

바위산 정상의 팔각정까지는 얼마 안되는 거리였지만 허기로 비틀거리는 가난한 인간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거리였다.

따뜻한 작은 난로에 시커멓게 그을린 주전자의 물이 발광을 하며 끓고 있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섞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커피 한 잔을 마주하고 내려다 본 변산의 저녁은 생사를 초월하고픈 느낌만큼이나 넓었고 아름다웠다. 갑자기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이, 자그마한 사람임이 심히 부끄러웠다. 시신경들을 바싹 곤두세우고 예민한 감각의 충전을 고대하며 철저하게 남을 학대하려 했던 인간으로서의 오만함. 무상한 어둠의 포야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절망하던 배앓이 짐승의 한계. 뼈속 깊이 속속들이 채워도 끝없이 느껴야 하는 허기짐.

이러한 약한 존재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슬픔까지도 변산의 넓은 가슴은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다.

첫 새벽의 바다는 싱싱했다. 물이 빠져 나가고 있었다. 밤동안 토해낸 하얀 물거품들이 깨끗했다. 어둠의 가운을 벗어 버리고 맨몸으로 드러난 바위들 마다 살을 말리느라 분주했고 김이 피어올랐다. 푹푹한 살 냄새가 느껴졌다. 건강한 청년의 탄력있는 검은 살갓을 닮았고, 젊은 피돌기가 순환되는 강한 펌프소리가 들렸다. 밤에 밝히는 넓적한 바위마다 밤새 담아 두었던 물기가 배어 나왔다. 물살은 더 빠른 속력으로 바위틈을 헤집고 흐르면서 속을 드러내 보였다. 축축한 감각이 옷 속에 전해움을 느끼면서 이끼 낀 바위에 앉았다. 물소리가 차분했다. 모든 측수가 날카롭게 긴장된 채 물소리로 모아졌다.

평생을 진리 하나 찾기위해 나섰던 인도의 한 구도자 이야기가 생각났다. 세상의 이곳저곳을 고행하던 구도자, 열살이 넘어 나섰던 길이 진리도 찾지 못한 채 죽음의 막바지에 다다랐을때 그는 커다란 깨달음을 하였던 것이다. 바로 물소리! 저 물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는 겸허한 깨달음. 그는 노를 젓던 손을 멈추고, 자신에게 커다

란 깨달음을 알게 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는 평생을 바치며 찾아 나섰던 그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앞에 닥친 죽음에서 초연할 수 있었으리라.

지금 저 물소리가 그 구도승의 귀에 전율처럼 들리던 그소리와 과연 같은 느낌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하지만 범인이라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자연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새 동녘에서 떠오른 태양은 빛부스리기들을 바닷물 위에 쏟아놓고 젖은 물방울을 거두기에 분주했다.

찬연한 색깔 위에 작은 일렁거림이 시작되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저쪽까지 이어지고 그속의 생명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수히 넓은 물속에서 태동을 시작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꿈틀거렸다. 번산의 아침은 살아있는 생명의 진한 꿈틀거림으로 낯설은 걸인의 하루를 재촉해 주었다.

너무 성급하셔

남 정 화

벌써 재작년이던가. 개를 기를 수 없는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어 할 수 없이 뽏뽏이란 이름의 그 귀여운 우리집 개를 남의 집에 주고 올 때도 그랬다. 나는 도무지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사나이답잖게 웬지 울컥하고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음띤 표정을 지으며

“뽏뽏아, 너 이제 이집에서 잘 지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아프지 말고 주인말씀 잘 듣고 알았지? 응. 넌 정말 뽏뽏한 놈이니까 어디서든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또 누구한테든 귀염받을 수 있을 거구 말이지 난 정말 너만 믿는다. 알았지 응? 너 정말 잘 있어야해.”

그러면서 놈의 머리를 곱게 곱게 쓰다듬어 주었더니, 놈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평상시와는 달리 나의 애무를 향락하려 하지 않고, 킁킁 자꾸만 청설대면서 나의 품에 기어들려고 바둥거리는 것이었다. 놈은 이

미 뭔가 나의 뿔뿔치 못한 태도에서 저를 남의 집에 떠맡기고 떠나려는 나의 흥계를 간파하고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초조와 불안과 그런 심정의 충격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늙은 잠시도 몸을 가만 놔두질 못하고 사뭇 떨듯하면서 자꾸 내게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정말 측은할 정도였다.

“똥똥아, 걱정하지마. 알았지. 응? 이집주인은 정말 좋은 분이란다. 내가 오죽 좋은 분을 골라서 맡겼겠니 응? 지금까지 파리 한마리도 죽인 일이 없는 그렇게 마음씨가 고우신 분이란다. 물론 먹을 것도 우리집 보단 훨씬 맛있는 것을 내게 주실거구 말이다.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저 몸만 성하면 된다고 알았지 응?”

그리고 나는 정말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늙은의 곁에 더 머물지 못하고 영락없이 도망치듯 하는 동작으로 후다닥 그집을 뛰쳐나오야 말았다. 생각하면 근 오 년간이나 나와 고락을 같이 해온 똥똥이가 아닌가. 늙과는 사실 있는 정 없는 정이 다든 사이라 늙은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내 기분 상태를 알아가지고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정도였다. 대단했다. 그런 늙과 헤어져야만 했으니 그때의 내 심정이 오죽이나 섭섭했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당시 섭섭한 마음을 수습하지 못하여 늙을 맡겨놓은 그집 주변에서 거의 한 시간 이상이나 서성거리다간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도 그랬다.

이번에는 개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거의 칠팔 년간이나 나와 고락을 아니 생사를 같이하던 파랑이란 이름의 차를 중고차 매매센터에 맡기고 나와서는 도무지 섭섭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이었다.

똥똥이란 늙과 헤어질 때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도대체 내

가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아끼던 파랑이란 말인가. 나는 사실 차문을 여닫거나 운전석에 앉거나 할 때에도 혹시나 놈의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여 그 행동 하나, 하나마다 가만가만 조심을 다하곤 했다. 브레이크나 클러치 그리고 악세레터 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바꿀 때에도 나는 혹시나 놈의 건강에 손상을 주지나 않을까 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곤 했다. 그래 그런가. 나의 귀여운 반려자인 놈은 나와 칠팔 년간이나 생사를 같이해 오면서도 그동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별다른 탈이 없이 오늘날까지 건강을 유지해온 셈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준 나의 고마운 파랑이. 그러나 나는 우리 파랑이를 단순히 그저 교통수단으로서만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다정한 벗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내 심성을 깨닫이 씻어주는 그런 일종의 수신을 위한 내 인생의 스승처럼 대해 왔다는 것이 아마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파랑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터 일상적으로 웬만한 불쾌감쯤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능히 넉넉한 미소로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었으니까 말이다. 나의 오랜 운전 경험에 의하면 마음의 안정과 여유 그리고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름 등은 차를 안전하게 모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나는 늘 그런 점에 유의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마음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을 다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다정한 벗처럼 아니, 가장 믿을만한 스승처럼 모시듯 하며 나와 함께 살아온 차를 생각지도 않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었으니 그때의 심정이 또한 얼마나 섭섭했었겠는가. 생각하면 사장탓이었다. 통일축구대회란 이름하에 북한의 축구선수들이 서울 한복판에와서 우리 선수들과 정답게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온 사장은 그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흥분과

감격과 그런 격한 감정의 충격을 받아 그의 의식은 그 균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사뭇 흥분을 이기지 못하는 격한 음성으로

“이봐. 박부장!”

하고 날 부르더니 아 다짜고짜로 난데없이 나한테 새차를 한대 사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불문곡직이었다. 이제 곧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서 그렇게도 그립고 그립던 부모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까짓 차 한 대가 문제냐는 것이었다. 그런즉 어서 현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라는 것이었다. 그때 사장이 어찌나 정신없이 서두르는지 나는 도무지 제대로 사양 한번 해볼 틈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뭔가 높은 사람의 지엄한 분부를 수행하는 심정으로 내 차를 매매센터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생각지도 않게 새 차가 생긴다는 즐거움보다는 나와 정이 들대로 들은 파랑이란 놈과 헤어져야 한다는 괴로움이 몇 배 더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매매센터 직원은 그때 나의 파랑이를 요모조모로 관찰하고 나서는

“허, 이거 새차와 같은데요”

하고 감탄하듯 하던 것이다.

“아마 새 차보다 더 나을 겁니다. 새 차가 가지고 있을 힘을 말씀히 다 고쳐 놓았으니까요”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아니 새 차보다 낫다구요? 하하하. 좌우간 어떻게 타셨으면 칠팔 년이나 타셨다는 차가 이렇게 아직 새 차 같습니까. 하하하”

“내가 차를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가 나를 타고 다녔 으니까요. 하하하”

“네?”

“정말입니다. 나는 늘 내가 차를 업고 다니는 심정으로 차를 몰았거

든요. 정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받아 드릴까요?”

“가격보다는 이놈을 자기 몸처럼 아껴줄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하하하. 헤어지는 마당에 이놈한테 내가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그래두요……”

“아닙니다. 가격보단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가격은 별 문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두고 가십시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곧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묘한 사람으로 보이던지 몇번이나 고개를 가웃거렸다. 나는 뿔뿔이와 헤어질 때 이상으로 섬섬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매매센타를 나왔다. 이곳에 내가 가끔 와서 놈을 볼 수라도 있게 가능하면 오래오래 놈이 남한테 팔려가지 않게 기대하면서 말이다.

겨울비는 우박이 되어

문 회 태

서쪽으로 부터 확장되는 고기압 세력으로 오후부터는 개이
졌다는 예보를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 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아파트 숲이 이역(異域)으로 느끼게 하는
낮선 서울로 진입하면서 500만원 수표가 틀림없이 내손에 쥐어졌는가
를 다시 확인했다.

사촌의 아파트 투기에 자금 전달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용산 시의
버스 터미널(지금은 서초구)에 넘어섰다.

50%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기상대 예보는 역시 남은 50%의 기상
이변으로 가는 겨울비를 뿌리고 있었다. 단단히 거머쥔 수표를 다시
만져보며 택시를 잡으려고 대여섯 발짝 옮겼을 때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귀티가 넘치는 세련된 40대 여인이 예쁜장한 중학생쯤 되는 소녀와
함께-나를 기다린 사람처럼-나를 향해 던지는 함성이었다.

“나야, 민옥이”

나는 미인계에 넘어가 현찰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쳐다보았다. 벌써 흐릿하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리는 혼탁한 차량의 물결들이 귀가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 구슬을 목에 감고 있었으며 까만 장갑을 낀 왼손을 입가에 댄 채 호호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20년 전, 그렇지, '꼭 20년전의 그녀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나는 진공청소기에 흡입되는 먼지처럼 그녀와의 추억 속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감을 느꼈다.

“오랜만입니다.”

그녀와 나는 20년만의 재회에 감사해야할 지 서글퍼해야할 지를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빗방울이 굵어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중학생이 들고 있던 우산을 펴서 내게 전하며

“20년만이지?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어디 있지?”

대답할 겨를도 주지않고 사뭇 반말로 연발 쏘아대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반포 아파트야, 시골에서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신대서 마중나온 거야.”

이제 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들취는 들에서 먹이를 구한다지 않습니까? 시골서 훈장노릇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웬지 부끄럽고 심한 열등의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아프게 느꼈다.

“결혼했지?”

그녀는 내가 지금껏 총각으로 그녀만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랐던 것처럼 다그쳐 물어왔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은 것보다 먼저 당신을 잊을 수 있었다는 듯이 반말로 대답했다.

그녀와 나는 묘한 인연으로 같은 사무실(대학 신문사)에서 편집기자로 일한 일이 있다.

지도교수 한 분과 현수라는 영문과 아이, 그녀와 나, 이렇게 셋이서 상근기자로 일한 일이 있었으며 그녀는 원고청탁과 작품 정리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민완기자 이민옥이다. 그리고 현수는 흑백 논리에 분명하고 좀 과장적인 허세를 잘 부렸으며 지도교수에 밀착할 수 있는 수완가였다. 거기에 비해 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위선자적인 젊은이답지 않게 철두철미하려는, 투고된 원고의 글자 하나라도 따지려는 그런 샌님이었다. 민옥은 늘 현수의 과장과 이점을 묵혔고 우리 셋이서 있을 때마다 둘은 다투기가 일쑤였다.

“현수씨 부인 되는 사람은 허세와 거짓 속에 기만당하며 살거야. 얼마나 가련할까? 며칠씩 외박하고도 논리는 분명하게 과장된 거짓 진술로 눌러버릴테니 말야.”

이렇게 포문을 열면(싸움은 늘 민옥이 쪽에서 먼저 걸었다) 현수는 “은갓 교태를 부리며 바쁜 사람 붙잡고 원고 써내라고 조르듯 출근하는 남편보고 설거지하라고 조를테니, 그 바깥 양반도 팔자깨나 사납겠네!”

그러면서 그녀는 내 쪽이 좀 적극적이기를 바라며 나를 좋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민옥과 나는 크림이 발린 식빵 알마를 싸들고 노고산으로, 남산으로, 그리고 덕수궁으로, 비원으로, 비도 맞으며 눈도 맞으며 그렇게 사뭇 싸다닐 수 있었다. 때로는 광릉으로 남한산성으로 인천 백아대 동상을 찾으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어느 여름 날 우리 둘은 현수네 시골집으로 초대를 받아 2박3일의 즐거운 여름을 보낸 일이 있다. 그곳에선 현수 여동생과 내가

짜이 되었고 앙숙 사이인 현수와 민옥이가 파트너가 되어 참외로 유명한 성환에서 원두막의 낭만을 만끽하며 멋진 며칠을 보낸 추억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인자하신 현수 자당님의 배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졸업과 함께 소식이 끊어져버린 것이다. 물론 많은 책임은 내게 있지만……

“지금 어느 쪽으로 갈거지? 용무지가 어디냐 말야.”

그녀는 수다스럽게 다그쳤다.

“영등포 쪽이야”

“시어머님은 몇 시에 도착 예정?”

“응, 곧 오실 거야. 한 시간 거리밖에 안되니까”

“물어봐도 실례가 안될까? 부군의 직장”

“응, 중앙청 쪽이야 ”

“재계(財界)쪽으로? 정계(政界)쪽으로?”

“글쎄, 관계(官界)쪽이란게 좋겠지”

“스무고개 문제 풀자는 게 아냐, 아마도 대단하신 분 같은데”

“뭘…… 하지만 늘 밖으로만 돌지.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저사람과 결혼했으면 지금쯤 난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듯 불혹을 넘긴 허전함을 읽을 수 있었다.

“외국 손님 접대라 외박이고 급한 공무로 출장가야 되고……지난 옛새 동안의 일본 출장에서 돌아와 오늘은 조달물자 점검이래”

자랑스럽기보다는 쓸쓸해 하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자주 만나? 서울엔 자주 올라와?”

“아니, 이렇게 뜻밖에 귀하신 분을 만나는 스티플과 감회를 위해 일부러 만나지 않지”

그때였다.

“엄마, 할머니 저기 내리시네”

민옥의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신 거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저 분은 그 어느 여름방학 때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아껴주시던……성환사시는……현수 자당님이 아니신가?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던 민옥의 남편이 바로 현수란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가까이 오셨을 때 난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셨어요? 저예요, 원영이에요”

당황해하는 나를 빤히 쳐다보던 민옥은

“몰랐어? 우리 그이, 현수씨야”

가는 겨울비는 우박이 되어 귀뚜라미를 때리고 있었으며 잇달아 달아나는 차량들의 행렬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슬픈 이야기

문희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슬한 희비애환을 겪지만 여기 소개하는 슬픈 이야기는 주위에서 흔하게 만날 수 없는 작지만 큰 슬픈 이야기이다.

2~3일 사이에 500mm의 장대비로 침수된 집에서 스티로폼을 타고 탈출하는 어느 수해 이재민을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용마루까지 차오른 도도한 수마에 지붕 위로 피신한 개들의 모습을 볼때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길북판에 나딩군 구겨진 자동차를 볼 때,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듣는 풀죽은 동료의 모습을 볼 때, 반가운 친구를 만났으나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 그리고 고스톱판에서 피박을 썼을 때, 대개의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그런데, 교단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또다른 슬픈 이야기가 있다.

목청껏 강의하는데 여자친구의 사진을 꺼내놓고 즐겨워하는 녀석을

발견했을 때, 시험을 치른 뒤 0점짜리 답안지를 채점할때, 가출 학생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을 또 슬프게 한다.

도덕적 가치가 금력의 횡포에 무참하게 무너져버리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아주 순백하고 예절바른 따뜻한 이웃이 급격히 변해가는 도시화의 물결로 황폐화되고 뜻밖의 횡재-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분별없는 사장님이 연출한 슬픈 이야기이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큰 꿈을 안고 교단에 선 소위,병아리 선생님, 그렇지만 성실과 실력면에서 인기있는 이선생님의 수난사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날씨도 요사스러워 먹구름이 끼었는데 햇빛이 반짝나고 개였는가 하면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다. 담임 반의 신흥 부자집 아들 명수와 집은 가난하지만 의협심과 지도력도 있는 용길이와의 싸움 사건이다.

화가 치민 이선생님이 두 학생을 불러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어본즉 어제 청소시간에 명수가 도망친 데 화근이 비롯된 것이었다. 명수에게는 도망친 죄, 용길이에게는 싸운 죄를 물어 회초리 세 대씩 때리고는 두 학생을 악수로 화해시켜 교실로 보냈다. 그런데 명수는 교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집으로 뛰어간 것이었다. 잠시 후 난리가 터진 것이었다. 수업 시간에 낯선 40대 학부형이 용길이를 불러냈다.

“네가 용길이 맞지? 너 좀 맞아봐!”

얘기는 필요없었다.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다. 권투 선수가 마대자루를 치듯이 아니, 원시적인 방법으로 견공을 잡듯이 사정없이 때린다. 주위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셨다. 말렸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복도 구석에 괴투성이가 된 채 동댕이쳐진 용길이는 그대로 구겨져 있었다. 선생님들이,

“너무 하십니다. 잘못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좋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대 담임 선생님 좀 만나야겠소.”

벌경게 상기된 얼굴은 이미 사리분별력을 잃었다.

“여보시오, 당신이 명수 담임이요? 선생 몇 년이나 됐소? 애들 똑똑히 가르쳐! 당신, 명수가 어떤 앤지 알아?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는 외아들이야. 때를 때리려면 용칼이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그 놈은 노점상 홀어미 밑에서 가정 교육도 받지 못한 놈이야. 알기나 해? 나는 많지는 않지만 이삼십 억은 돼. 담배 한 갑이라도 얻어 피우고 싶으면 명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이 선생님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몇몇 선생님들이
“학부형님, 좀 심하시군요.”

“조용히 말씀하시죠. 옆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뭐요? 이 양반들이……”

울화가 치민 윤선생님이 급기야는 끼어든다.

“부형님, 그렇게 애지중지 금지옥엽을 어떻게 비 오고 바람 불 때 학교에 보냅니까? 귀엽기는 마찬가지여요. 돈 없어 천하고 돈 있어 귀한 겁니까? 학생은 누구나 소중한 대우를 받아야 할 똑같은 재장니다.”

한심한 사장님 숨소리가 거칠다. 화는 냉큼 가라앉질 않는다.

“전학서 떼 주소. 데려가겠소.”

옆에 있던 김선생님도 끼어든다.

“데리고 가시오. 어서 데려가시오!”

주먹을 불끈 쥐 불쌍한 사장님은 출입문을 부숴뜨리듯 닫아버리고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명수를 불러내어 집에 가자고 소매를 끈다. 싫다고 말한다. 놓아줄 아버지가 아니었다. 고급 승용차에 밀어넣고는 시동을 건다.

망연자실, 이선생님은 먼지가 일어나는 자동차 뒷폭지를 바라보며

고운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저리는 슬픔을 씹어야 했다. 하루 빨리 치유되어야 할 전도된 가치관의 한 단면을 귀엽고 사랑스런 내 아이들에게 보여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힘없이 유달리도 무거워진 체중을 의자에 실었다. 그리고는 생각해보았다. 그 혼한 강력세제-하이타이, 풍풍, 트리오, 스파크, 크린업, 하모니-는 식기나 옷감의 때를 잘도 빨아내련만 병들고 썩어가는 시커먼 때가 더덕더덕 낀 분별없는 사장님의 머릿속을 깨끗이 닦아낼 세제는 없을까? 생각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 보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동료 교사의 위로주에 마음을 달랜 이선생님은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유난히 크게 울려오는 전화 소리-

“여보세요, 이선생님이신가요? 몇 차례 전할 드렸더니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명수 애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 없었던 것으로 해 주세요. 이해하십시오.”

이선생님은 아무말도 안했다.

“여보세요.”

“네.”

“이해하세요. 미안합니다. 내일 전직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 명동부페로 모시겠으니 주선힌 주십시오”

역시 이선생님, 아무말도 안했다.

“여보세요.”

“네.”

“부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철컹, 전화가 끊어졌다.

‘이해를 구하다니. 누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명수야버

님, 끝까지 이 아픈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유린하렵니까?
갑자기 명수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과 욕

리 성 주

그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저쪽에서
“대북부동산 김대북입니다.”

하였다.

“아-ㄷ음의 김사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는 대답도 하지않고 퇴근 후 만나자는 것이다.

‘그 분이 왜 만나자고 할까 내가 산 땅이 잘못이라도 있단 말인가. 땅
투기 사기단도 있다던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묻는다.

“오늘 몇 시 퇴근이슈?”

“여섯시 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여섯 시까지 그곳의 지하다방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는 것이다.

“네”

하며 힘없이 대답하자 그 쪽에서는

“그럼 여섯시에 만납시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김사장의 모습을 생각했다. 충청도 ㄷ음의 본토박이로 군대생활 3년간을 빼고는 내리 고향에서만 살아왔다고 하는데 거짓이나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순박한 오십대의 대북부동산 중개사였다. ㄷ음은 개발예정지역으로 땅만 사놓으면 틀림없이 값이 오르는 곳이라고 하였었다.

친구인 한익수와 함께 대북부동산에 들린 것은 눈이 많이 내린 일월의 증순경이었다. 한익수는 이제에 밝아 땅을 몇 번 사고 팔아 재산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지금도 ㄷ음에 땅을 많이 사놓았다. 김한웅도 대북부동산의 소개로 땅을 샀다. 그런데 잔금도 다 건네기 전에 벌써 땅값이 올랐으니 참 잘샀다는 것이다.

김한웅은 회사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회사의 야유회나 환영 연회에서는 언제나 재치있는 사회로 다른 사람들을 웃기며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떠벌여 ‘떠벌이’라는 별명도 들었다.

김한웅은 오후내내 회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지하다방으로 향했다. 다방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을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갔다. 그는 김대북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저쪽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다.

“김사장님, 안녕하셔요 사업도 잘 되시지요”

“아무렴요, 잘되어 여기까지 왔잖유”

이말에 김한웅의 걱정은 확 풀렸다. 차를 마시며

“김한웅 사장님.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무척 좋아유”

하면서 「전번에 산 땅이 평당 만원씩 올랐으니 그 땅을 팔든가 아

니면 그 옆의 땅을 사든가 하라」는 것이다.

한달 반 밖에 안되었는데 만원씩 올랐다니……. 돈벌기가 이렇게 쉬운가. 내가 부동산에 더 일찍 손을 댔어야 하는건데. 그 옆의 땅도 내가 사면 또 그렇게 오르지 않겠는가'생각하며

“팔기는요, 안팔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서 꼭 붙들고 있으면 이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유”

“안 팔려면 그 옆의 땅을 사시쥬”

“샀으면 좋겠는데 금방 돈이 있어야쥬”

“그 땅은 사 놓기만 하면 참 좋은 곳이지요.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 없지유”

“서울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저녁식사나 하시지요.”

. 둘이는 무교동으로 가서 저녁과 술을 진탕 먹었다. 술에 취해 걸을 수가 없었다. 어깨동무하여 간신히 여관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여관방, 어떻게 된 것인가. 옆에는 김대복사장이 아직도 자고 있지 않은가. 세수를 하고 들어오니 김사장도 일어났다. 둘이는 여관에서 나와 해장국을 먹고는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헤어졌다.

그날은 집에 들르지 않고 회사로 바로 출근하였다. 속이 아파 간신히 일을 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살 것 같았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개선장군과 같이 의기양양하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아내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니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아내를 달랠 심산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땅을 사고 집은 새로 일년만 살면 아파트를 몇 채 더 사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소?”

그랬더니, 아내는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우리가 산 땅값이 올랐다고 하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아파트를 팔고 먼저 산 땅을 은행에 잡히고 돈을 얻어 또 땅을 샀다. 집은 세를 적게 주려고 변두리의 고지대에 얻었다. 아침 저녁으로 걸어 올라다니기가 여간 고통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였다. 때면 우리 가족이 조금만 고생하면 일년 후에는 더 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사고 돈도 많이 갖게 된다고 달렸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증권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하여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안되겠다고 한다. 도시민이나 농촌사람들도 부동산이나 증권투자에만 매달려 땀을 흘리며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나오려나 걱정이 되었다.

한익수와 김한웅은 2읍의 대북부동산을 찾았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지요?”

하고 물으니

“70년대에도 대책이 발표되었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근절된 것은 아니요. 처음에만 조금 부동산경기가 진정되듯 하다가 또 일어나니까요.”

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행정이 그렇잖았든가, 조금 반짝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용두사미격이니까 위험한 장사가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데 하는 생각에까지 이를때

“그러면 땅을 팔겠습니까?”

“지금 내놓아도 땅이 금방 팔리니까요, 마음대로 하슈”

김한웅은 금방이라도 팔릴 수 있다는 말에 ‘살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살려고 하겠지. 나는 팔지말고 가지고 있어야지’하고 생각한다. 한익수도 한참 생각한 후에 입을 연다.

“나는 이득을 보게 되니 팔아야 하겠습니까”

“땅값이 자꾸 오르는데 왜 팔려고 해.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그 땅이 더 많이 올라”

김한웅이 말한다.

“그 땅을 팔아서 서울에다 집을 사 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러나 한익수는 땅을 팔아서 서울에다 대지가 넓은 집을 샀다.

김한웅은 계속 오르는 땅값을 보고 한익수한테 너무 겁장이라고 해주었다. 그는 회사에 가서도 한익수는 땅을 팔지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데 팔았다고 하며 내가 하는 일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러사람 앞에 자랑하며, 자기의 땅값이 많이 오르니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몇 차례 술을 샀다. 김한웅은 즐거운 생활로 변두리의 셋집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번의 부동산대책은 그 전과는 다를 것이란다. 한익수는 김한웅한테 「적당한 때에 땅을 팔도록」 권했다.

“빨리 팔아다 서울에 큰 아파트를 사고 셋집 신세를 면하도록 해”

그러나 늦게서야 부동산에 재미를 느낀 김한웅은 좀체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서울의 집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부터란다. 김한웅은 그것도 믿지 않았다.

‘두고 보아라, 내가 땅을 산것이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한 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발표된 석간신문이요”

김한웅은 신문을 사서 보았다. 큰 제목과 밑의 작은 제목들만 보았다.

「외지인의 투기목적 부동산취득은 세금중부과」 「외지인의 땅구매 불허……」

김한웅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전철바닥에 쓰러질 것같이 머리가 핑 돌았다. 겨우 손잡이에 의지하며 진정하고 더이상 신문을 보지 않았다.

다음 전철역에서 내려 ㄷ읍의 대북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계속 통화중이다. 한참 후에야 연결이 되었다. 끊어질듯한 작은 소리로

“서울의 김한웅입니다.”

“아! 김사장, 웬일이세요.”

“ㄷ읍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팔아주세요”

“오늘은 서울손님들께서 다 팔겠다고만 하시는데……”

“땅을 사는 것도 서울사람들인데, 시골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이 말에 김한웅은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그럼 나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의자에 한참 앉아 있다가 간신히 집을 향해 전철을 탔다. 전철 안의 사람들은 하루의 일에 지쳐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며 집으로 가는 중이다.

전철에서 내려 고지대를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무게였다

집에 들어간 김한웅은 밥도 먹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눕고 말았다.

아내가 옆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못했다. 아내의 원망은 어떻게 해야하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한익수의 「과육은 금물인데」하는 말이 머리에서 뱅뱅 돌 뿐이다.

시

金淳一/ 瑞山장터사람들

金泰愚/ 黃金山 外 4편

文秀鎬/ 외롭지 않아外 2편

徐宗淑/ 행복한 주란이

申得均/ 내고향 五月

한근식/ 가을 斷想 外 3편

韓東喆/ 고향

瑞山 장터 사람들 외

-비디오 가게

金 淳 一

장날 시장바닥에서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며 신기하고
황홀해하던 우리들이 낳은 요즈음 아이들은 비디오 가게
에서 몰래 몰래 숨혈떡거리는 개들의 짓거리를 보면서 열
받친 손가락을 물어뜯는다.용천백이 코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는 게 낫지 코 흘리개 동전을 그렇게 앗아 먹다니!
요지경속의 꿈무늬는 산산히 깨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벼랑에서 황홀한 추락을 해야 하는 것일까

瑞山 장터 사람들

-콩나물 장수 장씨 할머니

콩나물 장수 장씨 할머니는 몇 십 년을 제자마당 그늘
진 곳에 콩나물 동이를 이고 나와 장단지에 터럭이 많은
콩나물을 팔고 있지

요즈음처럼 병원도 많지 않고 약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
엔 고별이 걸렸을 때 콩나물국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고추

가루 빨강게 풀어가지고 한 대접 훌훌 땀을 흘리고 먹으면 오싹오싹하던 몸이 용케 훈훈하게 풀리기도 했었지 식량을 아끼느라고 콩나물죽도 쑤어먹고 숙취를 푸는 해장국으로도 제일이었으며 밥상에 콩나물 무침은 언제나 단골이었지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태깅 좋고 뭐 메이커 제라나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콩나물 사는데도 잔뿌리 하나 없이 매끈하게 잘빠진 메이커제 콩나물만 찾는데 요 장단지 뽕양고 날씬하게 생긴 콩나물이란게 아! 놀랍게도 농약을 먹고 자란 것이라나.

평생을 자식새끼 키우듯 깨끗한 물 정성으로 주며 기쁜 우리 제자 마당 장씨 할머니의 그 잔터럭 많은 콩나물이 진짜 콩나물이라는 것을 메이커젠가 뭐가만을 찾는 요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瑞山 장터 사람들

-두더지

안녕하세요 두더지어요 오늘 하루 벌이가 신통찮다고 세상에 대고 욕하고 침뱉지 말고 제 머리통이나 한번 때려

보셔요 제 머리통이 땅속으로 숨기 전에 빨리 때리셔요
아야, 아야! 더 세계 더 빨리 때리세요 마음이 좀 후련하
지요 예, 웃고 있네요 좀더 세계 좀더 빨리빨리 때리세요
제 머리통에 흑이 나건 말건 상관하지 말고 신나게 때리
세요 아야! 아야!! 이젠 하하하 웃고 있네요 잊으세요 세
상일 다 잊고 좀더 세계 좀더 빨리빨리 아야! 아야!! 예
시장바닥 사람들 다들 웃고 있네요 웃으세요 한바탕 신나
게 웃으세요 세상살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때요 답답
하던 가슴 인제는 시원하지요 또 오세요 세상에 대고 침
빨고 욱지거리하고 싶을 때 또와서 제 머리통이 박살이
나도록 신나게 때리세요

瑞山 장터 사람들

—생밤장수 아주메

그늘진 시장 골목
사나운 눈바람을
비닐 포장으로 가리고 앉아
생밤을 치고 있다

쭈굴쭈굴 한 걸썩질이랑

툼은 속껍질을 벗겨
요리집 술상에 내갈
속살이 보오얏고
향긋한 계집
생밤을 치고 있다.

복숭아 속살보다
더 보오얏던
열여덟 속살이
승어배때지보다 더 매끈하던
열여덟 아랫배가
이젠 밤껍질처럼 쭈글쭈글
지렁이 기어가듯 금이가고

복사꽃보다 더 진했던
열여덟 살내음이
밤속껍질보다 더 툼어진
생밤장수 아주메
단물이 다 빠지고
팔라 비틀어진 자신의 껍질을
한숨으로 쳐내지만
한물 간 속살
더 오그라들 뿐이네

瑞山 장터 사람들

- 시장바닥 아낙들은

수입 양주가 십만원
우리는
시장바닥 포장집 목로에 앉아
한 병에 오백 원하는
막걸리를 마신다

수입코트 한 벌이 사백만원
우리는
시장바닥 난전에서
무조권(건) 천오백 원하는
옷을 입고
가난한 추위를 덥힌다.

수입 가구가 오천만원
우리 어머니는
시집을 때 할아버지가 짜주셨다는
대추나무 반닫이를
오늘도 닦고 문지르고 계시다.

기십만원
기백만원
기천만원
수입가게 진열장이
볼티가 나는데
시장바닥 아낙들은
시금치 한뿔음을 놓고
오십원 백원을 깎자며
생활을 저울질하고 있다.

瑞山 장터 사람들

- 풀뿌리

아침 밥상머리에 앉아
김치랑 된장찌개 함께 먹고
공장에 출근해서
작업대에 앉은 아들은
하나의 부품
어떤 때
거리에 뛰쳐나와
민중을 외치는
그 주먹은

싸늘한 쇠망치

윗대 윗대 할매 할아베 적부터
논이나 밭뚝기 일구어 농사짓거나
바다에 나가 고기잡으며
하늘 두려워하며 살아오는
새벽 제자마당에서 만나는
배추 무 시래기를 팔러 나온 아주메들
콩나물 동이를 이고 나온 할메들
물 좋은 농어 송어
꿀뚜기 낙지 팔러나온 갯가 사람들
치나물 고사리 팔러나온 산골 아주메들
세상 쓰고 단 거 다 삭이며 눈물 콧물 동이로 흘리며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여린 손 서로 잡아주며
질기게 질기게 살아가는 풀뿌리
싱싱한 사투리로 하루해를 여는
시장바닥 풀뿌리

黃金山* 외

金泰愚

새발간 멍이 들도록 꼬집은 그대여!
왜 날 못 보시나요.

꽃내나는 나의 젖가슴을 확확 타오르게
짓밟아 놓고 만족스레 하는 그대여
똑바로
나를 보세요.

뺨대는 나를 벗길대로 벗기어
속살까지 바수어 놓고
심장엔 한 방울의 피마저 말려버린 그대여
곧 길은 나의 냉가슴앓이를
아시나요.

偽善이 그대를 홀리고
世上의 못 사람들이 그대를 얼레는데
상처로 범벅된 오늘을 끌어 앉은 그대는
아예
黃金에 녹아 버렸군요.

그래도 애똥 가슴을 열고

바동대던 오늘이
그대에겐
못 잊을 추억이 될 거예요.

달콤한 꿈에 빠졌던 그대여
왜 어두움 뒤로
자꾸만 자꾸
숨으셨나요.

그날이 오면 나를 울린 그대는
지리한 나날을 졸리운 눈을 뜨고
노다지 껌을 질근질근 씹겠군요.

黃龍이 품었던 如意珠는
가로림의 黃土에 쌓여
어두움 속에서 신음할 거예요.

*황금산 : 대산면 독곶리에 위치한 황룡의 전설이 얽힌 명산, 서해안 개발로 논
란의 대상이 되었음

野 菊

우리 모두 잠들어야 할 이곳
훈기 가신 갈잎이 뒹굴고
술새소리마저 끊긴
墓碑에
太初의 숨소리가 다소곳 드리운다.

저만치 후미진 길가에
서리에 젖은 女人네가
긴 목을 들어
가냘픈 미소를 머금는다.

젊디젊은 그날부터
시리도록 저린 아픔에
골속에 맺힌 사랑의 눈물이

한잎 두잎
.....
하얗게 하얗게 물들었다.

靑 女

黎明이 길게 깔린 오솔길
갈잎 내음에 취한 당신은
굽이굽이 흘러가는 하루를 품었다.

아흔아홉 사연에
감긴 하늘도 지쳤는데
그칠줄 모르게 뒹구는 당신은
한 줄의 흰 무지개되어
산 들배 가지에 맺혔다.

그래도 당신만은
흔탁한 세월을 돌고
또 돌아와
긴 꿈을 지키는 初冬 친구이어라.

dot 단 여*

청부르말 등에 황포두른 dot 단 여

삼백예수 남은 날 내내

밤잠 설치고
파란꿈을 삼키며 파수를 본다.

가물가물 내려짓는 검정선에
눈을 돌리면
이어졌다 사라져 가는

수많은 사연들……

진종일 파도와 친구를 하며
수 億劫 익어가는 파란 밀어를
설새 없이 하늘로
날려 보낸다.

*가로림만에 위치한 무인등대가 있는 여.

銅 鼓

깡매 깡매 깨깡 깡깡
깨깡 깡깡 깡매깡매,

地神이 잠을 깨고 天神이 춤을 춘다.

깡매 —

깨깡 —,

허공가른 하얀선에 山川은 덩실덩실
舞童들 곧나비에蒼空은 나플나플.

깡매 —

깨깡 —,

벼락치는 할아버지의 호통소리, 쇠소리.

깡매 —

깨깡 —,

할머니 골 속 앓이
사정없이 토해내고
넋둑 길로 달아나는
귀에 익은 소리

깡매 깡매 깨깡 깡깡

깨깡 깡깡 깡매깡매.

외롭지 않아 외

문 수 호

늘어진 노성 가지
쌓이는 시련에 빠져나고

모진 돌 정을 맞아
물골이 생긴다.

시간은 겁(劫)으로 이어지나
물의 흐름을 닮아
오늘을 살며,

이는 바람에 눈을 뜨고
쥐어 뜯기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돌이 되어 살기에,
별을 찾는 마음은
외롭지 않다.

웃어 보자

웃자, 웃어 보자.
입을 벌려 크게 웃어 보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더니,
이제는,
나는 놈 밑에 기는 놈이 있어
우습지 않은가!

주린 배 움켜 쥐고
자리마다 빨건 눈으로
인사마저 먹은 것 확인이더니
이제는,
움켜 쥐고도 안 먹는 놈이 있어
우습지 않은가!

세월은 흐르는 것,
그래서 성미도 변하고
세태도 바뀐다고,
우리 모두 입을 벌려
웃어 보자.

막국수

시간에 쫓기는 삶이
문명의 덕이라면
구수한 손때의 맛
잊은 지 오래인 것은
라면이 있음이런가,

막국수 한대접 차지하고서
뒷통수 따가운 장터 한 구석,
강남갈 채비의 제비들이다.

구수한 국물에 고추가 송송
호로록 넘어 가는 국수 가닥에
이것이 고향 냄새.
우리의 맛이라네.

행복한 주란이

서 종 속

이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몇 개?
다섯이여.
셋까지 했는데 왜 다섯이야?

다시!
하나, 둘, 넷, 일곱이요.
둘 다음엔 셋이지.

다시!
몇 개지?

몇 번이고 반복되는
지루한 헤아림.

안개 속같이 뻔한
주란이의 의식 속에서
오늘도
세 개라는 숫자는

찾아낼 수 없었다.

안주하려는 무의식과
변화시키려는 의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한계에 도달한 인내심.

긴
한숨끝에
저절로 튀어나온 말
'구제불능'이군!

주란이
“선생님, 구제불능이 무슨 뜻이에요?”

상현의 답
“그것도 모르니?
지독히 공부 못한다는 뜻이지!”

눈치한번 빠르군!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나의 웃음은
너희들에겐
뼈에로의
의미없는 몸짓에

불과할테지?

하늘은
저리도 청명한데
난 너희들 속에
철저한 이방인.
빠져린
고독이 있다.

나보다
행복한 주란이
구제불능인건
바로 나!

내 고향 5月

신 득 균

그대 나의 뜨락에 햇살로 다가와
고운 미소 가져다 주는 5月
나는 두 팔 벌려
다가온 당신을
가슴 가득 껴안습니다.
머언 기다림의 뒤편길을 지나
새벽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당신은
지친 모습 하나 없는
늘
싱그로운 나의 소녀.

앞산의 뼈꾸기 울음이 한가롭고
아카시아꽃 눈처럼 피어나는
내 고향 5月
나는
당신이 심어 놓은 산야의 신록과
그리고
영혼과 꿈만을 골라 디디며
내 고향 5月의 들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들길에 뽕기도 뽑고
바위틈 수염 긴 가재도 잡아야지.
속. 회. 옥. 경…….
그리운 이름들을 버드나무 가지 위 가득 태우고
한아름 들꽃을 안아 쥐야지.

나의 뜨락에 햇살로 내려
고운 시절의 얘기 가져다 주는
내 고향 5월
나는 두 팔 벌려
정다운 당신을
가슴 가득 껴안습니다.

가을 斷想 (Ⅱ) 외

한 근 식

1.

오고가는 철새들이 바꿔놓은 계절
탈곡기소리 멈춰버리자
시든 풀잎은 까맣게 익은 풀씨를 터트려

늦가을 들판에 마침표를 찍는다.

2.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늦가을 들판에 서성이다 돌아와
마루턱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어드니

말 없음표로 쏟아지는 풀씨들……

文盲日記 (Ⅲ)

하늘도 땅도 텅 비어버린 계절

빈 들녘을 서성이는 나의 키가 유난히 커보이고
싸늘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보지만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동전 몇닢에
어깨만 자꾸 움추려들 때
가진것 없어도 당당히 어깨펴는 겨울나무처럼 살아가라며
손바닥만한 낙엽이 움추린 내 어깨를 툭치며
떨어져 내린다.

新農夫歌 (X)

시집은지 얼마되지 않은 새댁이
밭고랑에 앉아 김을 맵니다.
수건을 쪽 눌러쓴 새댁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오고가는 사람들은 서둘러 총총 걸음을 합니다.
언제나 여유 있고 인사성 밝은 사람들이
오늘따라 저리도 서둘러 지나가는 것은 웬일일까요?

할아버지는 헛기침만하고 지나가고
옆집 아저씨는 고개를 외로 꼬고 지나가고
앞집 총각은 얼굴 붉힌 채 후닥닥
뒷집 아주머니 오리 궁둥이를 흔들며 지나가다 한 마디

저 새댁은 허리도 안아픈가며,

거기
새댁의 고운 등허리가 이만큼 드러나 있었습니다.

新農夫歌 (VII)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마늘쪽마냥 짹짹 갈라져
그토록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실한 싹들을 피워냈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쑥밭처럼 인정없는 도회지 생활
마늘처럼 맵게 살아야한다지

쑥과 마늘먹고 삼칠일을 살았더니
꿈이 사람되었다는 신화처럼

보내주는 이 마늘먹고 더욱 사람답게 살아야한다.

너도 이제 곧 알겠구나
자식들이 마늘쪽마냥 제각기 가라져가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려 했는데
정작 아프게만 느껴지는 것을,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구나

고 향

한 동 철

I

차라리
혈벗은 山이 좋아라

고무신 벗어 송사리 잡다 돌아온
해질녘
종아리 맞던 엄마손
그리워라

진달래꽃 따먹고 용천백이요
빠알간 침 배알던 옛 순이여
형클어진 꿈이여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너를 두고 나는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이때 돌아오나
꽃이 피면 오시려나
꽃 지면 오시려나
어허이 어허— 슬픈
상두가 소리에

문혀버린 사근다리, 이산지-고운이름
그리워 울고 싶어라
소리없이 죽어간 고향 산하여

II

차라리
매마른 들이 좋아라

감부기 뽑아 수염 그리며 나비 쫓던
봄날
보리이랑 새로 불던 봄바람
풀냄새 보리냄새 맡고 싶어라

메꽃 따물고 오오 오오오
삼사리 부르던 어릴적 순이여
이지러진 꿈이여
얼카탕이 잘 넘어간다
이 논배미 잠깐 매구서
장구배미로 내려가세
일락 서산에 해 떨어지면
월출 동녘에 달 솟아온다

얼카탕이 잘 넘어간다.
고라실 만물에 농부가가 그리워

도구머리 김노인 토꿀 이생원

장작같은 손잡고 묻고싶어라
스러지는 이웃사촌, 따스한 인정을

Ⅲ

고향, 서해안 개발의 열기가 밀려왔다. 사람들이 파시때처럼 모여 들었다. 낯선 인간들 손아귀에 고향산천 갈기갈기 찢겨져 갔다. 뽕양개 먼지나던 신작로에 검은 아스팔트 깔리고 그 위로 산더미 무너 산더미처럼 흙 싹고 차 달리더니 바다가 막혔다고 대문짝 만큼 떠들었다.

심청이 팔려 가는 줄 모르고 그저 좋았던 그 노인네처럼 우린 얼마나 열빠진 박수를 쳤나? 고향 발전의 개가를.

승어 뛰니 망둥이 덩달아 뛰던 바다, 바라보며 넓고 푸른 꿈을 키우던 고향 바다. 나랏님 수라상에 오르던 간월도 어리굴젓 간곳없고, 거기, 그 자리에 기념탑이 들어서니 거기 사람들, 그 탑 그림자만 짝어도 저절로 허기가 가셨다.

갯펄 삼십리 벽해가 상전이라 비행기 날으며 범씨 뿌리니, 방아다리 지생원 눈엔 희한한 세상, 오래 산 보람도 있다.

나문재, 황발이, 동막 돌장귀, 노오란 각뎡이는 옛 입맛 속에서나 군침들고 공단,
공장-하늘을 뚫은 굴뚝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가 스산 사람들의 멀건 두 눈엔 꼭 복 福자가 썩카망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감 나무

서 종 숙

어느 따뜻한 봄날, 감나무 한 그루가 선영이네 마당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제 겨우 여섯살 난 선영이만한 키의 어린 나무였습니다.

바로 어제 봉우리를 막 터뜨린, 새색시 다홍치마같이 매혹적인 색깔의 튜울립이 으시대며 말했습니다

“애, 너는 나처럼 예쁜 꽃을 피울 줄 아니?”

나팔을 힘껏 불던 노란색 나팔수선화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림 없는 소리, 저 애는 우리같이 예쁜 화초가 아니란다. 볼품없는 회초리일 뿐이지.”

수선화와 튜울립은 상대도 하기 싫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리며 저희 들끼리만 두런거렸습니다.

흰 꽃잎을 뚜욱 뚜욱 떨구고 있는 목련 나무도, 하트 모양의 어린 잎

을 매달고 있는 라일락도 모두 제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너무 무심한 여러 수목들이 마음에 안들었지만 감나무는 수선화나 튜울립처럼 예쁜 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수선화나 튜울립보다 더 화려한 꽃을 피워 자랑스럽게 우뚝 서고 싶었습니다.

꽃샘 바람은 아직도 매운 맛이 남아 있습니다.

암청색 밤하늘에 조각달이 떴을 때, 감나무는 너무 춥고 외로워서 훌쩍 훌쩍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해님은 그 따사로운 햇살을 목련에도 감나무에도 앵두나무 대추나무에도 화초에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영이네 마당에 있는 수목들은 한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잎을 매달고 키를 늘렸습니다.

길쭉한 잎으로 서로 간지럼치며 장난하던 튜울립과 수선화도 엄숙한 얼굴로 꽃대궁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는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 끝에서 있는 힘을 다 해 물을 빨고, 가지마다 잎을 매달기 바빴습니다.

연녹색 잎사귀가 하루 사이에도 여러개나 돌아났습니다.

이슬비에 목욕한 날은 잎사귀끝에 초록물이 매달린 듯 아름다웠습니다.

훽훽한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누비며 지나갔습니다.

잎이 무성해진 라일락 가지끝에 연보라꽃이 여럿 피어났습니다.

질은 향기가 온 마당을 덮고 바람자락 따라 이웃집 마당까지 번져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끝을 스치는 라일락꽃 향기를 칭찬했습니다.
감나무는 라일락꽃 향기를 깊이 마시며
'아, 향기로와라. 난 라일락꽃처럼 향기 짙은 꽃을 피울테야.'
혼자 다짐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은 꿀처럼 달콤했고 뜨거운 태양은 수목들을 쑥쑥 키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 꽃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늘이 침침하게 닫히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쿵' 성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미친 바람이 화단을 온통 짓밟았습니다.

화초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
며 귀를 막았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천둥이 울렸을 때 감나무는 정신을 잃
고 말았습니다.

감나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눈부신 해님이 환하게 웃고 있
었고, 푸른 하늘엔 무지개가 곱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 폭풍우에 라일락꽃잎은 무참히 뜯겨 땅바닥에 뒹굴었고 감나
무는 가지 하나가 찢겼습니다.

감나무는 육신거리는 아픔을 참아가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런, 쫓쫓 감나무가 상했구나.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야!"

선영이 할아버지는 찢어진 가지를 맞추고 테이프를 붙여 동여매 주
었습니다.

심술궂은 폭풍우가 몇 차례 더 지나간 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

했습니다.

이제 감나무는 선영이 키의 두 배나 자랐습니다.

잎도 무성해졌습니다.

가지도 굵어졌습니다.

까치들이 날아와 감나무 가지에 앉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얘들아, 이젠 이 나무에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약하겠는걸!”

친구까치가 대답했습니다.

까치들은 후루룩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내몸에는 왜 아직 꽃이 피지 않을까?’

감나무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감나무는 온 동네 안의 소식 뿐 아니라 이웃 마을의 일까지 훤히
알고 있는 참새에게 물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날, 참새들이 놀러 왔을 때 감나무가 물었습니다.

“참새님, 난 이렇게 컸는데 왜 아직 꽃이 피지 않을까요?”

“이 바보야! 넌 해마다 피는 화초가 아니잖니? 아마 몇 년은 더 기
다려야 될걸?”

참새들은 한껏 뽐내며 말하고는 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난 화초가 아니지, 그래, 그렇다면 몇년 뒤엔 목단꽃
보다 더 크고 튜울립보다 더 곱고 라일락보다 더 향기 짙은 꽃을 피
워야지!’

감나무는 큰 꿈을 가슴에 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성함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하나, 둘, 잎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잎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개 남은 잎이 찬바람에 손을 흔들며 떠나갔을 때 감나무는 입술을 꼭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추운 겨울에 살을 에이는 찬바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오래지 않아 크고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커다란 희망을 생각하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추위속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는 더욱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름날의 천둥 번개도 잘 참아냈습니다.

가을날 시린 바람도 잘 이겨냈습니다.

겨울밤의 외로움도 잘 견뎠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초여름날, 감나무는 그렇게도 오랫동안 소원하였던 꽃을 피웠습니다.

밤새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고 눈부신 아침이 열리던 날입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너무 너무 실망했습니다.

감꽃은 크기가 도토리만 한데다 네 갈래로 갈라진 개나리 모양의 꽃은 누런 황토색이었습니다.

감꽃은 튜울립처럼 고운 빛깔도 아니었고 목련처럼 크지도 않았으며 향기도 라일락꽃만 하려면 어렵도 없었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한 꽃을 피우기 위해 그토록 힘겹게 인내하였던가!’

심 곳은 바람이 꽃망울을 몇개 건드려 떨어뜨려 놓았지만 감나무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감나무는 기운없는 목소리로 해님에게 물었습니다.

“해님, 내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다, 너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어째서 내 꽃은 이렇게 보잘 것 없나요?”

“넌 겉모습만 화려한 화초가 아니란다. 네 열매를 훌륭히 가꾸어라.”

“그래도, 아름다운 꽃은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전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지나가지. 너는 오래 오래 남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해님이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감꽃에도 나비 손님은 날아왔습니다.

“감나무님 당신 꿀은 정말 훌륭하군요. 맛과 향기가 그만인데요?”

살포시 앉은 노랑나비가 감꽃꿀을 빨면서 칭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꽃은 보잘것 없는 걸요!”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이 꽃에 맺히는 열매는 아주 훌륭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나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끔씩 찾아 오는 벌과 나비가 감나무를 위로했지만, ‘희망을 잃은 감나무는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감꽃은 강남콩만한 열매를 남기고 시들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네 마당의 수목들은 매미소리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숨박꼭질하러 왔던 잠자리도 앵두나무가지끝에 앉아 졸고 있습니다.

다.

날마다 날마다 잎은 무성해지고 제각기 매달린 열매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벚나무와 모과나무 대추나무의 열매도 점점 커졌습니다.

감나무는 차츰 기운을 찾고 양분을 만드는데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걸모습만 화려한 예쁜꽃보다 실속있고 유용한 열매를 만들어야지.’

콩만하던 감나무 열매는 대추만 하더니 다시 호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굴만큼 커졌을 때 바람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밤이슬이 더욱 차가워지던 어느날, 베짚이랑 풀무치들이 무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름내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보답입니다.

선영이네 마당에선 첼로랑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악기들이 내는 현악합주가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했던 수목들도 허리를 펴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들로 제각기 골라 입고, 가을 풀벌레들이 연주하는 왈츠에 맞추어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단풍나무의 빨간 드레스가 무척 화사했습니다. 노란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은행나무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나무도 알록달록한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흥겨운 무도회는 밤마다 밤마다 오랫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달님이 날마다 구경나와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베짚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자 어느새 여치도 풀무치도 차례 차례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연주해 주던 귀뚜라미마저 떠나가

자, 이제는 암청색 어둠속에 찬바람과 쓸쓸함만이 선영이네 마당에 남아 있습니다.

나무들은 양분을 만들어 키를 크게 해 준 잎들을 바람결에 떠나 보냈습니다.

찬바람이 우수수 불어오면 나무들과 잎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부산해지곤 하였습니다.

감나무 열매는 차츰 해질 무렵의 하늘을 닮아 붉어졌습니다. 감나무에는 몇 장의 잎들이 남아서 작별이 너무 아쉬워 떠나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감은 더욱 빨개진 열매를 여섯개 매달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낙비가 한차례 쏟아질 때마다 여러개씩 떨어지더니, 가을 찬바람에도 몇개씩 떨어지고 이제 겨우 여섯 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얼마전 부터는 선영이가 날마다 마당가에 나와 감 열매를 채어 보곤 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여섯개의 감은 참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서리가 하얗게 내린 다음날, 선영이 할머니는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감을 따는 할머니도 쳐다 보고 있는 선영이도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나무가 오래전에 품었던 희망이 선영이의 눈으로 스며 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맨 끝에 한 개가 남았어요.”

“응, 그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까치들의 몫으로 하자꾸나.”

할머니는 맨끝 가지의 감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쁜 바구니에 담긴 감 다섯개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가 한번 나누어볼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자

“할아버지 한개, 할머니 한개, 아빠 한개, 엄마 한개, 선영이도 한개,
엄마 꼭 맞아요.”

“그래, 첫 수확인데 제법이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감을 온 식구가 둘러 앉아 먹습니다.

감을 먹고 있는 선영이네 온 가족의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다. 창문
너머로 이 풍경을 보고 있는 마당가의 감나무는 무척 기뻐합니다.

선영이할머니께서 까치밥으로 남긴 한개의 감을 매달고 감나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춥고 외롭던 밤도, 몸서리쳐지던 천등번개도, 가지가 찢기던 아픔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홀륭하게 성숙했으니까요. 목련처럼 향기 짙은 꽃은 피우지 못했어
도 감나무는 만족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감나무는 더 큰 희망으로 가슴을 꽉 채웁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만들리라. 내 희망을 여러 사람의
가슴속에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까치들의 집터도 마련해 주어야지!’
까치밥 하나 매달고 있는 감나무는 흐뭇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길 기다립니다.

고요한 선영이네 마당엔 달빛이 흠뻑 쏟아집니다. 겨울밤은 점점 깊
어만 갑니다.

영길이의 꿈

리 성 주

“영길네가 서울로 이사간대
“누가 그래”

“영길이 아버지가 서울의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기 때문이래”

영길이는 이곳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황금산 아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서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지다. 영길이가 어렸을 때는 파도가 출렁이는 해변마을에 여름에는 해수욕을 하려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영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바닷가에 나가 굴을 따고 조개도 잡고 고동도 주웠다.

여름방학 때에는 친구들과 모래성도 쌓고 수영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소풍은 전교생과 가족 모두가 김밥을 싸가지고 함께 가는 마을의 행사였다. 생일잔치도 간소하게 차렸지만 한 반의 열네 명 어린이가 모두 모여 생일축하를 해주고 즐겁게 놀았다. 전교생이 백 명도 안 되는 마을의 학교에서 아동들 사이에는 싸움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어린이들 간에는 일가이거나 친척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을의 모든 생활들이 영길이에게는 아주 좋았다.

영길이는 일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해 오고 있다. 열네 명의 모두에게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 공부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을 잘 도우며 굿은 일도 앞장서서 먼저 하기 때문이다.

영길이의 꿈은 영길이가 커서 우리 해변마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소득이 많고, 공기맑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향으로 만드는 것이다. 덴마크의 「달가스」를 읽고 영길이도 우리 고향에서부터 실천하려는 꿈이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A회사와 B회사의 대단위 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낮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한 집 두 집씩 땅값을 많이 준다고 하니 논과 밭을 팔기 시작하였다.

진수네는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끝까지 팔지 않고 그집을 지키며 산다고 한다. 몇 달이 지나니 측량을 하고, 우리 마을에서 산 땅과 바다 가운데서도 깃발을 꽂았다. 또 며칠이 지나니 중장비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트럭으로 흙을 실어다 바다를 막고, 바다에서는 물과 갯벌을 빨아올려 갯벌로 땅을 메우고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 보낸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이웃들의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진수네는 집둘래의 흙을 파내어 집만 외판섬과같이 혼자 둥그마니 앉아 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사 오기 시작했다. 학생수도 점점 늘어났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다. 학급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싸움도 잦

아졌고 욕소리도 들리고 학교가 시끌시끌하다. 말씨도 각 고장의 말을 사용하여 이상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우리 마을에 화학공단이 들어서면 공해 때문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걱정하신다.

부락민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처음에는 공해가 없는 공장이 세워진다고 하더니 변경되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를 중심으로 밤마다 모여서 노래를 배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해공장으로 바뀌었으니 공해공장을 추방시키려 데모할 때 부를 노래이다.

회사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데모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돈벌이의 장인 바다를 잃고는 차츰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집에서 농사짓는 것, 바다에 나가 굴을 따는 것보다는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고압선 철탑을 세울 때에도 어른들은 많은 싸움이 있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땅값이 싸게 되기 때문이란단다.

영길이는 아버지는 오늘도 아침일찍 공사장에 나가셨다. 영길이는 아버지가 몇 달동안 공사장으로 출근해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다. 일을 끝내고는 술을 잡수시고 늦게 오시기 때문에 묻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일을 나가신 후로는 높은 건물도 꽤 많이 지어졌고 장충체육관 만큼이나 큰 탱크도 열 개는 생겼다. 배를 이용해서도 설비물자를 실어와서 부두에도 많이 쌓아 놓았다. 공장 안을 들어가 보고 싶어도 정문에서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 들어 갈 수가 없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던 곳이었는데…….

“선영이가 한번 나누어볼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자

“할아버지 한개, 할머니 한개, 아빠 한개, 엄마 한개, 선영이도 한개,
엄마 꼭 맞아요.”

“그래, 첫 수확인데 제법이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감을 온 식구가 둘러 앉아 먹습니다.

감을 먹고 있는 선영이네 온 가족의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다. 창문
너머로 이 풍경을 보고 있는 마당가의 감나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영이할머니께서 까치밥으로 남긴 한개의 감을 매달고 감나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고 외롭던 밤도, 몹서리쳐지던 천둥번개도, 가지가 찢기던 아픔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성숙했으니까요. 무런처럼 향기 짙은 꽃은 피우지 못했어
도 감나무는 만족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감나무는 더 큰 희망으로 가슴을 팍 채웁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만들리라. 내 희망을 여러 사람의
가슴속에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까치들의 집터도 마련해 주어야지!’
까치밥 하나 매달고 있는 감나무는 호뭇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길 기다립니다.

고요한 선영이네 마당엔 달빛이 흠뻑 쏟아집니다. 겨울밤은 점점 깊
어만 갑니다.

영길이의 꿈

리 성 주

“영길네가 서울로 이시간대”
“누가 그래”

“영길이 아버지가 서울의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기 때문이래”

영길이는 이곳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황금산 아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서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지다. 영길이가 어렸을 때는 파도가 출렁이는 해변마을에 여름에는 해수욕을 하려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영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바닷가에 나가 굴을 따고 조개도 잡고 고동도 주웠다.

여름방학 때에는 친구들과 모래성도 쌓고 수영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소풍은 전교생과 가족 모두가 김밥을 싸가지고 함께 가는 마을의 행사였다. 생일잔치도 간소하게 차렸지만 한 반의 열네 명 어린이가 모두 모여 생일축하를 해주고 즐겁게 놀았다. 전교생이 백 명도 안 되는 마을의 학교에서 아동들 사이에는 싸움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어린이들 간에는 일가이거나 친척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을의 모든 생활들이 영길이에게는 아주 좋았다.

영길이는 일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해 오고 있다. 열네 명의 모두에게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 공부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을 잘 도우며 굶은 일도 앞장서서 먼저 하기 때문이다.

영길이의 꿈은 영길이가 커서 우리 해변마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소득이 많고, 공기맑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덴마크의 「달가스」를 읽고 영길이도 우리 고장에서부터 실천하려는 꿈이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사회사와 농회사의 대단위 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낯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한 집 두 집씩 땅값을 많이 준다고 하니 논과 밭을 팔기 시작하였다.

진수네는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끝까지 팔지 않고 그집을 지키며 산다고 한다. 몇 달이 지나니 측량을 하고, 우리 마을에서 산 땅과 바다 가운데서도 깃발을 꽂았다. 또 며칠이 지나니 중장비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트럭으로 흙을 실어다 바다를 막고, 바다에서는 물과 갯벌을 빨아올려 갯벌로 땅을 메우고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 보낸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이웃들의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진수네는 집둘레의 흙을 파내어 집만 외딴섬과같이 혼자 동그마니 앉아 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사 오기 시작했다. 학생수도 점점 늘어났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충북 등 전국에서 모여든다. 학급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싸움도 잦

아졌고 욕소리도 들리고 학교가 시끌시끌하다. 말씨도 각 고장의 말을 사용하여 이상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우리 마을에 화학공단이 들어서면 공해 때문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걱정하신다.

부락민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처음에는 공해가 없는 공장이 세워진다고 하더니 변경되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를 중심으로 밤마다 모여서 노래를 배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해공장으로 바뀌었으니 공해공장을 추방시키려 데모할 때 부를 노래이다.

회사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데모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돈벌이의 장인 바다를 잃고의 차츰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집에서 농사짓는 것, 바다에 나가 굴을 따는 것보다는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고압선 철탑을 세울 때에도 어른들은 많은 싸움이 있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땅값이 싸게 되기 때문이란단다.

영길이는 아버지는 오늘도 아침일찍 공사장에 나가셨다. 영길이는 아버지가 몇 달동안 공사장으로 출근해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다. 일을 끝내고는 술을 잠수시고 늦게 오시기 때문에 묻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일을 나가신 후로는 높은 건물도 꽤 많이 지어졌고 장충체육관 만큼이나 큰 탱크도 열 개는 생겼다. 배를 이용해서도 설비물자를 실어와서 부두에도 많이 쌓아 놓았다. 공장 안을 들어가 보고 싶어도 정문에서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 들어 갈 수가 없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던 곳이었는데…….

“오늘부터는 5층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될거요. 그곳에서는 공장안이 모두 잘 보여”

“높은 곳에서 일하실 때는 다른 생각 마시고 주의하세요.”

아침에 진지 잠수시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영길이는 선도반장이여서 일찍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와서 아침자습과 아침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오전 네 시간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었다. 친구들과 둘러 앉아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6학년 김영길 교무실로 와요”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나는 ‘웬일일까’하며 교무실로 가는 중에도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교무실로 갔다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서산의 병원으로 가셨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쓰러질 것같이 정신이 아찔했다.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으면 어떻게 하지’하고 서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집을 보고 있어”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침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얼른 가봐”

하시는 선생님 말씀에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얼마나 다치셨을까,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모가 오셨다. 이모를 보자 울음이 나와 울어버리고 말았다. 이모는 내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지만 괜찮겠드라”

그러나 영길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모는 나를 속이는 것일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서울의 큰병원으로 옮기셨다. 허리를 많이 다치셨기 때문이다.

서울의 병원으로 옮긴 이후로 몇 달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전과같이 활동하셔야 살 수 있을 텐데, 허리를 못쓰게 되셨으니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에 계신 이모가 우리들도 모두 서울로 이사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길이네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영길이가 서울로 이사가기 전 영길의 친구들은 모두 영길네 집으로 모였다. 호길이가

“영길이 너 서울가도 우리 고향을 잊으면 안돼”

하니까 여기 저기서

“잊으면 안돼”

하며 한가지씩 가지고 온 선물을 영길에게 주었다. 양말, 손수건, 길기장, 샤프, 연필 등 상철이는 예쁜 사진첩을 주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상철이가 준 사진첩을 펼쳐 보았다. 그 속에는 봄소풍 때 찍은 우리 학급 사진 밑에 「우리, 꿈을 잊지 말자」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바닷가 마을에는 높은 굴뚝 사이로 갈매기가 날아간다.

돼지꿈

權 純 河

- 1937년 충남 서산 읍암출생
- 아동문학가·소설
- 월간 「농민문학」주간
- 작품 다수 발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거울 앞에서 몇번 빗질을 한 형석이는 잘 다려서 걸어놓은 신사바지를 내려 입고, 위에는 군대 잠바를 입었다. 잠바의 왼쪽 소매, 어깨 부분에 부착된 연필꽂이 주머니에는 색색의 볼펜 세 개가 꽂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형석이는 볼펜 두 개를 꺼내다 더 꽂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형석이는 의례히 어깨 주머니에 볼펜을 대 여섯개씩 꽂고 다닌다.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다.

썬그라스도 썼다. 초겨울이라서 햇빛에 눈이 부시지도 않고, 눈이 오지 않아 반사되는 빛이 없는데 썬그라스를 쓰는 것도 멋을 부리기 위해서다.

거울 앞에서 썬그라스를 몇번 벗었다 썼다 하면서 차림새를 확인하듯 훑어본 후 밖으로 나온 형석이는 잘 닦아서 마루에 올려놓은 구두를 토방에 내려놓고 신었다. 칼날 세운 바지에 번뜩번뜩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대문 밖에 나서니 형석이의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땅이

질지 않아 다행이기는 하지만, 도시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서 흙을 밟고 다녀야 하니 잘 닦은 구두가 아깝다며 걸어간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쑥 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처녀들 누군가가 눈에 떨까 해서다. 물론 제일 좋아하는 옥주를 우연하라도 만났으면 하는 것이 목표지만, 비단 옥주만 꼭 만났으면 하는 것도 아니다.

외딴 집에서 살기에 오는 사람이 없지만 여동생이 없으니 일년 열두달이 가도 처녀들은 더더욱 오지않아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 후 날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일이다.

어깨 주머니에 볼펜을 여러개 꽂고, 잘 차리고 다니면 처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맞아들어가는 것이었다.

형석이가 나타나면 처녀들이 흘금흘금 쳐다보는 것은 물론이고, 두서너섯씩 모이기만 하면 형석이가 화제거리인 것이다.

“뭘 쓸려구 연필을 대 여섯개씩 꽂구 땡긴다.”

“편지 쓰는데 빨간 줄 노란 줄 처가며 쓸려구 그러냐?”

“연필을 매일 꽂고 와도 글씨 쓰는 것은 한번도 못봤네.”

“암튼 남의 집에서 글씨 쓰구, 길거리에서 쓸려구? 쓰면 집에서 쓰겠지.”

“집에서 쓸테면서 연필을 왜 다 꽂고 다니는넌 말이며. 그게 이상하다구”

“생각나면 쓰던지 갑자기 쓸 일이 생기면 쓸려구 그러겠지.”

“그레두 하나면 되지, 왜 대여섯개씩 꽂고 다니는넌 말이며.”

하는 것은 제대 후 며칠동안 하던 말로 이제는 한물이 갔고, 요즘에는

“형일이 형은 죽어두 시골서는 못살겨. 그렇듯 깔끔하게 차리고 다니는디 워떻게 시골서 살겠어.”

“못살지. 그런 사람은 굶어두 서울로 가서 산다구.”

“삼년 전 군대에 나가기 전, 고등학교때도 월매나 깔끔했었어. 우리

동네 학생들 중에서 제일 깔끔했었지. 그렇더니 지금도 여전하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니겠어. 그런 사람이 농촌에서 흙탕물 뒤집어쓰고 위떻게 살어.”

형석이는 삼 년전, 고3 때 외지에서 이사 들어왔고, 그때 유난히 깔끔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는 말이다.

“살기 싫어두 어차피 서울서 살 걸. 형들 둘이 서울에서 사는데 왜 형일이 세재 형만 시골에서 살겠어.”

“그럴테지.”

인물도 훤한 편인데다가 차림새가 깔끔하고, 무슨 특수부대 요원처럼 차리고 다니는 것도 멋이 있지만, 공론끝의 결론은 형석이가 서울에 가 살것이란단다. 공론만이 아니라 형석이 자신도 머지않아 취직이 되어 서울로 가게 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 처녀들에게는 형석이가 더없이 매력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을로 내려온 형석이는 사냥꾼이 짐승을 찾듯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눈여겨 보면서 어디에 처녀들이 있는가, 누구네를 가야 쉽게 만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살펴봐야 오늘따라 처녀는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없다. 이러다가 하나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특별히 잘 차린 것이 아깝다며 아래마을 조서방네 근처를 향해 걸어간다. 조서방네는 마을의 중앙에 있기도 하지만, 조서방은 사람이 무던한데다 아래 위 가리지않고 벼를 삼으니 마을 사람들이 놀러 잘들 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이면 사랑방이 좁다할 정도로 마을군들이 모여들어 장기를 떼고, 내기 화투놀이도 한다. 그러한 조서방네에 가면 아무 때건 대 여섯명씩 있으니 제대 후 형석이는 매일 머리를 향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갈 곳이 없는 형석이는 오늘도 조서방네를 향해 걸어가면서, 내 또래 되는 옥주의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다……

아쉬워한다. 같은 또래의 옥주 오빠가 있었으면 친구 만나러가는 것

으로 하고 매일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해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집 담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옥주와 마주쳤다.

어머……!

말은 없지만 옥주는 분명 놀라며 우뚝 멈춘다. 정면으로 서서 형석을 바라보는 눈은 붉게 타고 있었다. 형석이라도 반가움에 앞서 좁은 당황해지는 것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서서 노려보 듯하는 옥주 가까이 다가가서 형석이는

“만나고 싶었어. 나, 멀잖아 취직이 되어 서울로 가는다……. 오늘 저녁에 만나 내가 버들나무 밑에서…… 나를 때까지 기다리겠어. 꼭 할 말이 있어.”

지나가는 말로 했다. 일방적으로 병하듯 했지만 약속은 되었다. 물론 옥주에게 가부간의 대답할 여유를 주지도 않았지만 분명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싫으면 싫다고 단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응하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빨간 대낮이고 남의 시선 때문에 마주서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짧게 말을 하고 걸어가는 형석이는 대 여섯 걸음 가다가, 담모퉁이가 끝날 무렵 다시 되돌아보았다. 옥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어가고 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멀잖아 취직이 되어 서울로 간다는 말까지 했으니 옥주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갈수록 형석이는 기뻐다.

그러니! 옥주를 이렇게 만날 줄을 누가 알었지. 예쁘기는 참으로 예뻐. 시골에서 썩기는 아까운 애야!

처녀들을 하나도 못만나면 어쩌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 잘 차리고 나온것이 아까워 어쩔까 했었는데 의외로 옥주를 만났으니 흡족하기가 이룰데 없다. 옥주는 나이가 들수록, 휴가를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예뻐지는 것이었다. 그러한 옥주를 제대 후 단 한번 만났지만 몇몇 처녀들이 함께 있을 때라서 오늘처럼 만나자는 말은 못하고

“옥주씨는 더 예뻐졌는다!”

좋아한다는 뜻으로 그말만 했었던 것이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 난처한 옥주는

“음머!”

붉혀지는 얼굴을 돌렸다.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였기에 몸둘 바를 모르며 망신스럽게 여기는데 곁에 있는 친구들은 듣기 싫어하며 시기 질투심에 입이 뾰루통 하는 것이었다.

형석이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다면 스스럼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도 듣기가 썩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대할 무렵에서 이사 들어왔고, 그 후로는 휴가를 올 때나 더러 그것도 먼 발치에서나 만나 보는 처지인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으니 옥주는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는 했지만 좋은 기분은 여운을 깊게 남는 것이었다. 휴가를 올 때마다 달라진다는 소문이 날정도로 멋쟁이인 형석이한테 들은 말이고, 여럿이 있는 가운데 유독 옥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쁘다고 했으니 영광이라고까지야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형석이한테서 그런 말을 듣기는 며칠 전이 처음도 아니었다. 몇달 전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 마지막 휴가를 온 형석이가 마을로 놀러 내려왔다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그때도 입장이 곤란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옥주는 형석이에 대하여 관심이 가는 것이었고, 형석이는 멋쟁이라느니, 서울로 가 살 것이라느니, 하고 들 셋 모이기만 하면 하는 말이 듣기 싫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민희의 오빠 상훈이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담너머 사이에 살면서 양가 부모들간에 사돈맺기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속이 되다시피 했을 뿐만 아니라, 들이서도 싫지 않게 지내기 때문이다.

조서방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형석이는 옥주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그때 마침 옥주도 뒤돌아보다가 얼굴이 마주쳤다. 뒤돌아보는

것으로 보아서도 옥주가 형석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 싶고, 오늘 밤 약속 장소로 꼭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한데 옥주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다짐을 하며 걸어간다. 두 번 들은 말이지만, 마주칠 때마다 예쁘다 하며, 심지어는 만나자고까지 하는 형석이 싫지않고,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훈이 때문에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어 달만 있으면 상훈이도 제대를 하는데, 그리고 상훈이도 서울로 가 살 것인데 형석을 만날 필요가 무엇인가 해서다. 또, 휴가를 올 때마다 만나서도 그러하지만, 한달이 멀다하게 편지를 주고 받으며 변치 말자고 다짐을 하는 사이인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심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한다.

오늘따라 유난히 굴이 들지 않는다.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보다 아궁이로 나오는 연기가 더 많다. 아궁이 뿐만이 아니라 마루 밑에 뽕뽕 뚫린 쥐구멍으로, 갈라진 벽 틈으로 연기가 꾸역꾸역 새어 나온다. 아궁이에서, 마루밑에서 나오는 연기가 지붕을 넘지 못하고 추녀 끝에서 맴돌다가 마당에 자욱히 깔린다. 너구리 구멍에 불 썩지른듯이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옥주는 눈이 매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저녁을 한다.

“그런디 오늘은 왜 이렇게 굴이 하나도 안든다. 지겨워 죽겠네.”

짜증을 부리며 고서방댁은 아래 부엌에서 쇠여물끓이는 아궁이에 불을 땀다. 굴이 하나도 들지 않고 연기가 아궁이 밖으로 꾸역꾸역 나오니 나무가 탈 리도 없다. 불이 자꾸 꺼지니까 고서방댁은 키를 가져다 부치는데도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그러니 이 날이 왜 이렇다. 나무가 타야 쇠여물을 끓이지. 이거 큰 일이구먼.”

울음이라도 터뜨릴듯이 짜증을 내며

고서방댁은 신경질적으로 키로 부채질을 한다.

이쯤 되면 방안인들 무사할 리가 있다. 벽지가 찢어진 틈으로, 쪽 금

이가고 구멍이 난 천정 반자에서 연기가 새어 나와 눈을 뜰 수가 없다. 날씨가 추워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어 빠지지 않는 연기가 짝 찬 안방에 누워있던 고서방이 밖으로 나오며

“눈이 뭘때나 올러구 이런다. 연기 땀에 방에도 못 있겠구먼.”

투덜대며 마루에 서서 아래채 지붕너머로 하늘을 올려다 본다. 먹구름이 낮게 뒤덮힌 하늘은 금방이라도 함박눈을 퍼부을듯 잔뜩 찌푸려졌다.

굴이 전혀 들지않아 연기 자욱한 부엌에서 옥주는 용하게도 저녁을 다 지어 상을 들고 나오며

“어무니 저녁부터 잠수시구 이따가 불 때유.”

한다.

“워치기 밥을 했다니? 너무 굴이 안들으니께 불 땀 수가 있어야지 ……”

고서방택은 아궁이 깊숙이 불을 밀어넣고는 아래 부엌에서 나온다.

저녁 손갈을 놓기가 바쁘게 고서방은 담배를 태려물고 밖으로 나섰 다. 오늘도 형석이란 놈이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가 보고, 그러면 불러서 점잖게 한마디 타일르기 위해서다. 요즈음에 와서 형석이란 놈이 아침나절이건 저녁 때건 가리지 않고 수시로 나타나서 무슨 망이라도 보듯이 집 근처를 어슬렁 거리는데 그 꼬락서니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다. 어찌 보기만 안 좋은가. 이리다가는 무슨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모르는체 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담배 한대를 다 태워도 형석이란 놈이 나타나질 않는다. 오늘은 마을로 내려오지를 앉았는가? 어째서 집 근처로 오지 않는 것인가 궁금해 하는데 돼지가 어지간히도 짝깍 거린다.

점심을 굶겼는가, 도야지가 왜 저 야단이지. 아니면 추위선가?

다 타들어간 담배꽂초를 내더지고 고서방은 돼지우리 가까이 갔다. 구정물 한 바가지라도 떠 주던지 검불이 젖었으면 마른 검불을 한아

를 넣어주기 위해서다. 구유도 바짝 말라 비틀어졌지만 마른 검불이 하나도 없다.

춥고 배곯아서 야단이구나. 그리고보니 한 사날동안 검불을 넣어주지 못했구나. 쫓쫓.....

겨울에는 매일 마른 검불을 넣어주어야 추위를 덜 타는 것도 덜 타는 것이지만 땅서리를 맞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다가 넣어주지 않았는지 모른다며 마른 검불을 한아름 안아다 넣어준다. 긴 막대를 들고 집어던진 검불을 고루 퍼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형석이가 아래 양복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꼭 찌르고 서서히 오고 있다. 형석을 보는 순간 고서방은 두 눈에 푸른 불이 켜지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저 빌어먹을 놈이 또 오는구먼. 저놈이 왜 자주 오는 것이지? 동네 망신스러워서 이거 원.....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볼테이를 몇 대 두들켜 패고 싶으나 마음 뿐이지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다. 옥주란 년하고 둘이서 무슨 짓하는 것을, 현장 목격이라도 했으면 덮쳐 몽둥이로 어깨나 등짝을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설사 그렇다 해도 마음 뿐이지 늙은이가 어떻게 장정을 함부로 두들겨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같은 동네의 젊은이가 와서 집 근처를 배회한다고 해서 뭐라고 듣기 싫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나 혼내면 혼냈지, 어떻게 남의 자식을 탓하랴 하며, 듣지를 못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아직이야 불미스런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단지 형석이란 놈이 자주 와서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이 보기싫은 것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다고 알가알부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라며 조서방은 당초에 먹은 마음을 고치며 성질을 꺾꺾 참고 있다.

가만 있어보자. 형석이란 놈이 와서 어찌 하다가 가는가 눈여겨 보고, 만약사 옥주란 년이 만나러 나간다면가 하면 그때에는 쫓아가서

옥주란 년 다리몽둥이나 텅정 분질러놔야지.

고서방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참대로 검불을 연해 뒤적이면서 흘금흘금 노려보듯 형석이의 동태를 지켜본다. 고서방네 사랑방으로 가다가 어느 집 담모퉁이에서 만난 옥주에게 밤에 시냇가 버드나무 밑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밤 그녀는 나오지 않았었다. 꼭 나오려니 했었는데, 꼭 만날 것으로 굴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 그날 밤 형석이는 두어 시간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지쳐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형석이는 이를 갈면서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결심을 했다. 어떻게든지 옥주를 만나서 분풀이를 하고야 말겠다고 버리며 형석이는 아침 저녁으로 고서방네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참대로 돼지우리의 검불을 뒤적이며 고서방이 수상한 사람의 거동을 살피듯 형석이를 주시하고 있는데 실거지를 마친 옥주가 구정물을 한 통이를 들고 나온다. 돼지 구유에 구정물을 쏟고 쌀겨 한바가지를 푹 퍼서 넣고 막대로 서너번 휘휘 저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던 옥주가 저만치 서 있는 형석이를 보고는 걸음을 머뭇거린다. 그때 고서방은 허흠— 바튼기침을 하며 참대를 내던지고 옥주를 향해 걸어가다. 머뭇거리던 옥주는 고서방이 뒤따라 오니까 대문 안으로 쑥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서방은

“서서방 아들이 왜 자꾸 우리 집 근처를 와서 서성거린다니?”

높지않은 언성이지만 칼날 선 음성으로 물었다. 입대 하기 직전에 이사를 왔고, 바로 군대에 들어가 이름을 부를 기회가 없었기에 이름을 몰라서 고서방은 서서방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누가 물어요!”

옥주는 고서방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로 쏘아붙이며 빈 구정물 그릇을 부엌문 앞에 탕 내려놓았다.

“열 댓살이나 처먹었나, 군대까지 갔다 온 장정녀석이 조석으로 와서 집 근처를 서성거리니 이 무슨 꼴이냐?! 이거 집안 망신스러워서

원…….”

고서방은 투덜거리며 마루에 걸터앉는다. 그에 그치지 않고

“네가 싫어하는데도 자꾸 올리는없구, 너 흑사……”

무슨 말인가 계속 하려다가 말끝을 흐리는데 부엌으로 들어간 옥주가

“그 사람이 제 발로 자꾸 오는 걸 워치게유.”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를 한다.

“네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니께 오는거시 아니난 말이여?”

조금 전 돼지 구정물을 주고 들어오다가 형석을 보고 옥주가 눈여겨 보며 머뭇거리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관심이 없다는가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듯 눈여겨 보며 발길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해서다.

“좋은 만나고, 만나면 왜 오겠우. 안좋아 허니께 언년이 만나지 않는 것이구, 그러니께 서서방 아들이 자꾸 오는것이 아니겠우.”

아래 부엌에서 쇠여물을 끓이는 고서방댁이 듣다 못해 한마디 한다.

언제나 말이 째는 고서방이지만, 옳은말에 고서방은 입을 다물고 있다

“너 변심 허는거시는 아니지?”

문을 탕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옥주의 뒤에 대고 고서방은 한마디 했다. 변심이란 상훈이와의 관계를 심중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고서방은 내리 딸 셋을 낳고 네번째는 나려니 학수고대 했으나 또 딸이었다. 아들을 두고 싶은 소원이 풀리지 않아 실망도 컸지만 농사 지어먹고 살것이 우선은 걱정이었다. 네째 딸, 옥주가 아들이라도 자식이 늦었는데 또 딸을 낳으니까

쇠줄 잡을 놈이 없으니 나는 늙고, 장차 농사치는 워떻게 허지.

걱정이 태산같던 고서방은 옥주를 멀리 시집 보내지 말고 동네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뜻을 굳혔다. 세 딸을 멀리 시집 보내고 보니 바쁜

농사철에 손을 빌릴 사위가 없는 것이 한이 되어서다. 그래 옥주만큼은 동네 결혼을 시켜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각 끝에 상훈이를 짚적었다. 상훈네하고는 마당 하나 사이의 불 이웃간인데다 농사처도 논 두렁 말 언덕 사이 사이고 무엇보다도 상훈이는 세째 아들이니까 끝내 쓸만한 자식을 두지 못할 경우에는 데릴사위로 삼을 수도 있으니 안성맞춤이라 했다. 상훈이를 사위 삼기로 결심을 한 고서방은 농담 반진담 반으로 상훈이의 부친 양서방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양서방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들 뿐만 아니라 안에서들도 좋아하며 고서방 내외는 상훈이가 듬직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든든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양서방내서는 옥주가 곱게 크는 것을 보고 흐뭇해 했다. 옥주 다음으로, 다섯번째 난 자식이 아들이니까 데릴사위로 들여세울 필요는 없지만 고서방은 상훈이를 사위로 여기며 빨리들 크거라 했다. 옛날 같지않고 요즘 세상에는 부모들보다도 본인들이 좋아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잘 안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 커서, 처녀 총각이 된 후에 둘이 서로 좋아 지내는 눈치이니 고서방은 안심이 되었다. 군에 나간 후 편지가 자주 오가고, 휴가를 올 때마다 남 알게 모르게 만나는 것을 보고는 어서 제대를 하거라. 제대만 하면 곧바로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버르고 있는데 형석이란 놈이 하루가 멀게 와서 집 근처를 맴돌고, 열 번 적어 넘어 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혹시 옥주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 되어

“너 변심하는거시는 아니지?”

확인이라도 하듯 물었던 것이다. 당장에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니 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방으로 들어간 옥주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 년이 변심 허는 거시란 뜻인가?

걱정이 되는 고서방은

“서서방 아들, 옹지, 형석이란 놈은 건달끼가 있단 말이여.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은겨. 물독에 빠졌던 족제비마냥 반들반

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 것을 보더라도 그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수도 없을 것 같고…….”

있는 흙 없는 흙을 다 잡으며 형석이가 나쁘다고 강조를 했다. 옥주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쇠여물 끓이던 아래채 아궁이에서 화롯불을 담아 들고오는 고서방댁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고 도회지로 나가 살면 뭐시 워똥다는 게여. 편하게, 잘 살기만 허믄 되능거지. 하나라도 농사 짓장고 사는 사위를 봤으믄 좋겠구먼. 농사꾼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서 고생허구 사는 것을 보믄 속이 월매나 상헌다구.”

하는 것이었다.

“아니! 뭐시 워똥구 워똥? 허 참! 쫓쫓…….”

고서방은 말을 못하고 혀만 꼰꼰차고 있다가

“그래서, 옥주란 년이 형석이란 놈하고 결혼을 허두 괜찮단 말이여?”

하며 노려보았다. 대답이 없자 고서방은

“아, 왜 말이 없는게여?”

다그쳤다. 그래서 고서방댁은 화롯불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문을 광 닫으며

“허기 되믄 허능거시지 안될께 뭐있어유.”

하는 것이었다.

“뭐시 워저구 워져?! 나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내리 딸 넷을 낳고는 면목이 없어 죽으려고 할 때 고서방은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두 늦자식을 두는 것은 마찬가지여. 그러니깐 한번 더 나보믄 아들을 들지 누가 알어. 자식 복이 하나라두 있으믄 다음번에라두 두겠지.”

이렇게 위안을 시키고는 네째 사위를 이웃안에 얻어 농사처를 돌보

며 하던지, 만약사 끝내 자식을 보지 못해도 데릴사위로 들여세우면 된다니까 고서방댁은 입이 헤벌어지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허니께 고맙구먼유.”

하면서, 우선은 상훈이를 사위감으로 작정해 두자고 부부간에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쓸만한 자식 하나 놓아주지 못하는 죄로 고서방댁은 남편이 하자는대로 따르겠다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었다. 막내로 아들이라고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언제 커서 농사를 휘어잡고 일을할지 까마득한 노릇이어서 하루 빨리 상훈이가 제대를 하기만 하면 옥주란 년하고 결혼을 시켜 네 집 내 집 논밭 가리지 않고 같이 농사를 지으며 재미있게 살 희망이 굴뚝같은데 지금에 와서 탄 소리를 하니 이십여 년간 벼르고 벼르던 희망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것같이 역장이 무너질 노릇이었다.

“그래서 형석인가 워편 놈허구 혼례를 치려두 된다는게여?”

소리를 버럭 지르며 고서방은 방을 활짝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형석을 사위 삼으면이야 좋지, 좋은 것이 아니라 과분허지 뭐?”

고서방댁은 조금도 수구리지 않고 바짝 대든다.

“과분 하다구?”

“그래유. 아암, 과분허구말구.”

“이 여편네가 무슨 말을 허느저시여. 서서방네 농사치가 뭐 있나, 산골 다랑이는 몇 마지기에 밭이라고 손바닥만큼 있는 것마저 자갈밭 뿐인디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뭐시가 과분하다는게여?”

“논밭만 많으른 대순가. 일만 많고, 수입도 없는 농사짓느라 뼈 빠지게 고생만 허지. 일꾼 사기도 힘들고, 농사 겨먹기가 이제는 이가 갈리고 지긋지긋 허다구유.”

“일꾼 사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께 상훈이를 사위 삼어야 한다는게여. 월매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게여?”

“그깃짓느므 농사 안 짓고 살믄 되잖는겨. 딸 하나라도 농사 안 짓고 사는 집으루 시집을 보냈으른 죽어두 원이 없겠수다. 셋 넷, 딸 있

는대로 농사꾼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고생을 시켜야 그래 속이 시원하겠우?”

“모르는 소리 말어.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밥 한끼라도 배부르게 먹는 뱀이여. 도회지에 가서 쌀 한 되 두 되씩 팔아서 먹고 살면 그꼴이 뻘어. 그리고 기왕지사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바에는 농사처가 넉넉해야구. 그 형석이네 좀 보라구 논밭이 월매 안되니께 이 동네로 이사 들어온 지 사오 년이 되도록 이웃 사람들하고 술 한 잔 밥 한술갈 나누지 못허구 살짚는겨?”

“농사처가 적으니까 형석이는 워졌거나 도회지로 나가 취직허서 먹고 살것이 아니겠우. 그 사람 형들두 다 회사에 나가 잘살고……”

“취직 아니라 별 짓을 다 허도 형석이란 놈은 안되어.”

“왜 자꾸 안된다는겨?”

“건달끼가 있단 말이여. 건달끼…….”

“그 사람 워디가 워떼서 건달끼가 있다는게유?”

“허허 참. 그 녀석 허구 땡기는 꼴 보른 다 알잖어. 머리배기는 소가 혀바닥으루 핏은 것 마냥으로 번지르르 허게 허구, 양복이나 썩 빼어 입고 건들건들 돌아다니는 것 좀 보라구. 연필은 왜 있는대로 어깨에다 꿋고 다니는지.”

“잘 차리구 다니는 것이 뭐가 흠이여유”

“시골,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농촌 사람답게 입고선 살아야 되는게여.”

“농촌에서 안 살면 되는거 아니어유. 그렇게 잘 차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께 죽어두 시골서는 안 살 것이 아니잖느난 말이여?”

“허허. 그래도 자꾸 말대꾸여. 그 놈은 절대루 안된다구. 그런줄만 알아.”

눈을 부릅뜨며 고서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때 옥주가 셋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오며

“형석씨한테 시집을 가면 워땡고 안가면 워땡다구 야단들이래유?”

형석씨하고 누가 결혼을 한다구 허기나 했나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듣기 싫으니께 고만들 좀 해유.”

화를 부르르 내며 소리를 지른다. 고서방 내외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허, 참! 눈 한번 많이두 왔구먼!”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는 고서방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려고 어제 저녁때 그렇게도 굴이 안 들고 그랬구먼. 굴도 어지간히 안 들더니…….

토방까지 덮힐 정도로 눈이 쌓인 뜰을 내려다보며 고서방은 두런거린다. 할멈이 속을 푹푹 쑤시고 뒤집어놔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고서방은 더 이상 누워있기가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눈 속에 묻힌 고무신을 찾아 털어서 신고는 담배를 한대 태려 물었다. 담배 연기를 두어번 길게 내뿜어도 속이 후련치가 않다. 잠을 설쳤기 때문에 골치까지 아팠다.

담배연기를 빨아대던 고서방은 대비를 들고 토방의 눈을 쓸기 시작한다. 토방의 눈을 쓸어낸 후 고서방은 죽가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우선 길이나 뚫어놔야겠다 해서다. 뼈겨, 대문을 열고 나서면서

허 참! 눈 한번 많이도 왔지!

또 감탄을 한다. 몇 채 되지않는 산골 마을이 눈 속에 푹 파묻히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나뭇 가지가 다 부러지구, 찢어지겠네.

수북수북 쌓인 눈의 무게를 지탱 못하고 가지마다 축축 늘어지다 못해 이쪽 저쪽으로 나무들이 모두 휘어진 것을 잠시 바라보던 고서방은 죽가래로 눈을 밀어낸다. 대문 앞의 눈을 치우고 고서방은 형석이네를 향해 죽가래로 눈을 밀고 간다. 이웃집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하기도 하지만 양서방네와 가까이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상훈이에 대한 옥주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 해서다. 그런 심정에서 상

훈네로 가는 길의 눈을 치우고는 있지만 고서방의 심사는 안좋다. 아들이 있으면 자식이 눈을 칠터인데 이 나이를 먹도록 해마다 고서방이 눈을 치니 이 무슨 꼴인가, 생각할수록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다. 오늘따라 그러한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않은 고서방은 손바닥에 침을 퇴피 뱉어 죽가래 자루를 힘껏 틀어쥐고 눈을 밀어붙인다.

상훈이네 마당에까지 거의 다 치워가는데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마당의 눈을 치우고 있다. 눈 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니

나도 아들이 있었더라면…….

자식 없는 신세타령이 절로 나오고, 이 무슨 팔자인가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났다. 자식 없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고서방은 상훈이가 어서 제대만 하거라 한다. 제대를 하면 눈은 상훈이가 치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추녀를 맞대고 사는 이웃간의 젊은이기도 하지만 사위가 되는데 눈 쬐어야 상훈이가 치울 것이라 해서다. 그런데 옥주란 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그것이 걱정이라고 하다가는 형석이란 놈이 죽일 놈이라 한다. 그 놈만 아니었어도 옥주의 마음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 싶고, 따라서 이 모든 원인이 형석이 때문이라 하니 그 놈이 원망스러워서다.

“일찍도 일어나서 눈을 치네. 아 우리 마당까지 눈을 다치고……”

늦게 일어나 죽가래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양서방의 말이다

“길이나 뚫어 놀러구. 눈 한번 많이도 왔어.”

“글쎄말이여.”

들이가 마주서서 떠드는 소리에 까치 두어 마리가 눈 속에 파묻힌 나뭇가지 사이를 날며 각각 거리고, 까치들이 옮겨앉는 나뭇가지에서 눈가루가 하얗게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우물가로 오가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는 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고서방과 양서방이 부지런히 눈을 치고 있을 때 집집의 굴퓏에서 아침연기가 꾸역꾸역 솟아오르기 시작을 한다.

올 겨울에는 눈 다운 눈 한번 제대로 오지않을 것인가 했었는데 늦겨울이 되면서 눈은 자주 왔고, 오기 시작을 하면 듬뿍뽀뽀 쏟아져 어느 해보다도 제일 많이 왔다. 눈이 올 적마다 고서방은 각별히 마음을 써서 양서방네까지 눈을 치워 두 집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눈 때문에 두 집 사이의 정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틀림없는 사돈간이 될 것이라고 이웃 사람들이 굳게 믿어지고 있는 어느날 상훈이가 드디어 제대를 했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상훈이는 양돈을 한다고 야단이다. 우선은 조그마하게 시작을 하지만 머지않아 대규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돼지 파동도 끝나고 오름세이니 앞으로는 계속 오를 것이고, 이런 때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돼지값이 앞으로는 오를 전망이기도 하지만 비록 당분간 오르지 않는다 한들 언젠가는 오를 것이 아니냐 하는 소신이고, 사업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어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경륜에 의해서는 물론 아니다. 군대에서 부대의 친구들로부터 수차 얻어듣고 깨달은 것이다. 상훈이가 제대를 하면 양돈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사단에 배치받아 온 후부터의 돼지를 기르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후로는 대규모 양돈업자의 아들과 같이 부대 생활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는 뜻을 세웠던 것이다.

제대 즉시 상훈이는 이장을 통하여 군농협에다가 영농융자금을 신청해놓고 돈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 융자금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액수에 따라 돼지 몇 마리를 사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열 대여섯 마리를 기를 수 있는 돈사 건축을 착수했다. 현재 상훈네는 큰돼지가 두 마리나 있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새끼까지 들어 칠팔 개월 후이면 분만을 하게 된다. 새끼를 몇 마리 나올 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못 낳는다 해도 대여섯 마리는 낳 것이라 믿어지니 융자금이 나온 후 새로 구입할 돼지 마리 수를 계산하고 열 몇 마리를 기를 수 있는 돈사를

지어야 하는데 집 근처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열 댓 마리 들어갈 수 있는 돈사를 짓자면 마당가에는 안되는데 앞으로, 해마다 칸 수를 늘려야 하고 머지않아 대규모적인 돈사를 지어야 하니 넓은 터를 잡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분노 처리 문제 때문에도 집 근처에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하고는 거리가 약간 떨어졌지만 텃밭이 끝나는 산비탈 냇둑에 터를 정하고, 돈사 청소를 비롯하여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냇둑 가까이에 세우고 있다.

상훈이가 대대적인 양돈업자가 되었다며 용자금을 신청하고, 돈사를 신축하는 것을 보며 고서방은

“된 사람이여. 암, 된 사람이구말고. 요새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워웠다! 암 없지. 없구 말구. 생긴 놈들마다 도회지로 머리를 향허구 말짱나갈려고만 허는 세상에 제대를 하기가 무섭게 벗어부치구설랑 도야지를 기르구, 농사를 짓겠다고 허니……. 양서방도 자식은 잘 두었어. 잘 두고 말구.”

침이 마르고 혀가 닳도록 칭찬을 한다. 누구보다도 옥주나 할멈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양서방이 자식을 잘 두었다는 것은 고서방이 사위감을 잘 끌었다는 뜻인 것이다. 고서방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할멈은 한다는 소리가

“일꾼을 사지 못허서 농사도 짓기 힘든 세상에 도야지까지 맥인다니,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맥이겠다니 워면 년이 시집 올려나 고생바가지두 지지리 허겠구먼.”

하는 것이었다. 고서방은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서 말도 못하고 흘겨보기만 했다. 농사짓기도 어려운 세상에 돼지까지 기르겠다고 골이 비었어도 보통 빈 것이 아니라는 식의 말투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듯 골이 비고 소견머리 없는 상훈이한테 시집가는 년 고생문이 흰하다는 말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상훈이를 사위삼기로 한 것은 어제 오늘에 작심을 한 것도 아니고 이십여 년 전부터 양가

부모들간에 언약이된 바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며 좋아지내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한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그렇다면 옥주와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 여겨지니 고서방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아까운 사위감인데 포기를 하겠다니 소갈머리가 없어도 되게 없는 노릇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아도 좋은데 고서방택은 또

“재 큰형도 서울로 가 취직을 허구선 사는디, 셋째가 시골서 농사를 짓겠다니……. 농사만 짓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구 부모까지 모시고 살겠다니 장가가기는 다 틀렸구먼.”

“부모 모시고 산다고 장가 못갈게 뉘여.”

“농사꾼에게는 시집도 안 갈려구 허는 세상인디 시부모까지 모시게 될 집으루 누가 시집을 가겠어. 세상이 워떻게 돌아가는지두 모르구, 장가 가구, 제 살길 하나 차리지 못허는 사람이여. 군대도 나가구 하였으니께 들은 말도 많을 것이구, 파급도 많이 험을텐디……. 상훈이 그 사람 앞뒤 꼭 맥힌 줄 몰렀네. 젊은 사람이 안되었구먼.”

“사람 된 것이지 안되긴 뭐가 안되구, 맥히긴 왜 맥혀, 꼭 맥힌 것은 임자라구. 임자여.”

부릅뜬 눈으로 할멈을 노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때 부엌을 정리하고 있던 옥주는

어머니가 맥히기는 왜 맥혀유. 아버지가 맥히고, 세상 물정을 모르시지.

속으로 중얼거린다. 고서방택의 말이 옳다고 동감을 하던 옥주는 부엌일을 마친 후 상훈이를 찾아 돈사 짓는 곳으로 갔다. 무엇이 되었건 오늘은 꼭 담판을 내고야 말겠다고 해서다. 돈사 건축장에 도착을 한 옥주는 다짜고짜로

“꼭 도야지를 기를 것이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면서 시비조로 따지듯 물었다. 상훈이는 말 뜻을 몰라서, 아니 망치질 소리에 잘듣지를 못해 대꾸를 하지않고

있는데 옥주는 그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꼭 도야지를 길러야 하느냐구?”

귀머거리에게 말을 하듯 소리를 꽤 질렀다. 그제서야 알아들은 상훈
이는

“그럴려구 도야지 집을 짓잖은겨? 보른 몰러?”

혼자말을 하듯 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한다. 화가 치미는
옥주는 눈초리를 꼬부리며 잠시 숨을 몰아쉬다가는

“그걸 누가 몰러서 묻는줄 아남. 이따가 허구서 나 허구 말을 줌
혀.”

가시 둔한 음성으로 앙칼지게 말을 했다.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는
나면서 상훈이가 일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잠시 말을 안하고 서있던
옥주는

“촌에서 도야지 기르고 사는게 난 싫다고 했잖어.”

통명스럽게 말을 했다. 그 말은 지금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제
대를 하고 돌아온 상훈이가 옥주에게 돼지 기르겠다고 포부를 말할
때마다 싫다고 하던 그녀의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기에 상훈이
는 또 그 말이냐는듯 시큰둥하게 여기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물었
다.

“다시 한번 진심으루 혀는 말인디, 나는 도야지를 기르며 농촌에서
살기가 정말루 싫단 말이여. 농촌 생활이 지긋지긋 허니께 도야지를
기르며 꼬옥 시골에서 살테든 다른 여자허구 살어. 헐 수 없는 일이
여.”

분명히 말을 했다. 상훈이와 결혼을 단념하겠다고까지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형석이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다.

상훈이가 제대하기 며칠 전 형석이는 옥주에게

“나, 한 보름 있으면 취직이 결정될 것 같어.”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옥주는 뜬소문이 아니었고고나 하
며, 동네 사람들의 추측대로 형석이는 취직을 하고, 서울에서 살겠고

나 했다.

“취직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결혼을 해야여. 빠르면 봄에라도 결혼을 해야는데 옥주씨, 나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처음이자 정식으로 청혼을 해 옥주는 당황을 하며 대답을 못했다. 갑작스런 말 때문만이어서가 아니었다. 며칠만 있으면 제대를 하고 돌아올 상훈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부간의 대답을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대를 한 상훈이는 양돈업자가 되겠노라 해 옥주는 실망이 컸다. 제대를 한 후에도 형석이는 자꾸 만나자고 해 들이는 남 몰래 만나곤 했다. 양돈업을 하면서 시골에서 살겠다는 상훈이가 싫어지고, 서울로 가 취직을 한다는 형석이가 싫지않아서였다.

며칠 전 만났을 때 형석이는 확실한 대답을 하라 했고, 그때도 옥주는 분명한 대답을 못하며 생각을 해보게 며칠 여유를 달라고 했다. 그 래 생각 끝에 오늘은 답판을 내야 할 것 같아 옥주는 돈사 건축장으로 상훈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돼지를 기르며 시골에서 살려졌거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말에 상훈이는 정신이 번쩍 들어 심각한 표정을 하며 옥주를 돌아보았다.

“상훈씨의 형님들은 취직을 해서 서울서 사는데 왜 시골에서 살려 느냐 말이지?”

옥주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따지듯 물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 옥주는 그렇게도 시골서 사는 것이 싫어?”

“싫단말이지. 네온짜인이라던가 뭇인가 번쩍번쩍 하는 서울에서 옷 잘입고 잘 먹으면서 다방에도 가고 극장 구경을 자주 하면서 편하고 멋있게 살고 싶단 말이지. 옷 한번 잘 입지도 못하고 매일 논밭에서 일이나 허구 살기가 싫단 말이지. 일하는 것이 지긋지긋허단 말이지.”

“일을 안하고 살른 되잖는겨.”

“농촌에서 살면서 워떻게 일을 안하고 살 수가 있어.”

“약속을 허겠는디, 절대루 일을 안시키다구. 화려한 서울에 가서 살고싶다는 것은 허영심이라구. 허영심”

“나라고 서울에서 못 살고, 생전 농촌에서만 살아야 할 것이 뵈이여. 상훈씨가 끝내 농촌에서 살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서울로 가 살것이니께”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옥주는 돌아섰다.

옥주가 혼자서라도 서울로 가 살겠노라고 하지만 설마 그렇게야 하겠는가 한번 해보는 말일테지 했는데 그여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취직이 되어 올라간다는 형석이를 따라 간 것이다. 옥주가 형석이를 따라 가출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상훈이와 어려서부터 결혼하기로 언약을 했는데 형석이를 따라가다니…….”

“저희들끼리만 약속을 했남, 양가 부모들끼리도 굳게 약속을 했잖은겨.”

“상훈이가 제대를 한 후에도 자주 만나고 그러더니 하루 아침에 짝 변할 수가 있나. 못 믿을 것이 여자의 맘이라고는 허지만…….”

둘 셋 모이기만 하면 논두렁 밭둑에 쭈구리고 앉아서 혀가 닳도록 한마디씩들 한다.

그것만도 아니다. 색시감이 도망가고 없는데 무슨 재미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도야지를 기르겠다고 돈사를 짓느냐는등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는 말이 상훈이의 귀에 간간 들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상훈이는 아닌게 아니라 동네 창피해 죽을 지경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돼지를 기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옥주와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녀가 도망을 갔으니 무엇을 하겠다고 이러는 것인가? 비판까지 되는 것이었다. 그래 상훈이는 부지런히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상훈이 저 사람 큰일 났구면. 일을 크게 벌려놓고선 저러고 있으니…….”

하는가 하면

“그런 일이지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일을 하겠어.”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구. 색시가 옥주 하나 뿐임감? 기왕에 시작을 한 것이니께 정신 바짝 차리구선 잘 혀보도록 혀. 돈만 많으면 장가는 을매구 갈 수가 있는 것이니께.”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상훈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사 람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는 상훈이는 일손을 놓고 빈둥빈둥 놀다가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 옳은 말들이여. 돈만 많이 벌은 그까짓 옥주가 문젠가. 옥주가 친정에 다닐러 왔다가 보고 깜짝 놀라게, 부럽고, 후회가 되게 대규 모적으로 양돈업을 혀자. 두고 보거라 후회가 될테니께. 꼭, 꼭 성공을 해서 보라는듯이 살테니께.

이를 악문다. 성공을 하는 것만이 배신을 한 옥주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길이다. 꼭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다.

마음을 가다듬은 상훈이는 서둘러 돈사를 완공시켰다. 신축 돈사에 다 집에 있는 돼지 두 마리를 끌어다 넣고, 나온 용자금으로 돼지새끼 열 세 마리를 샀다. 새끼 벤 돼지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부르고 사 온 새끼돼지들도 날로 잘 자라고 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돼지들을 바라 볼수록 돈뭉치가 커지는 것같아 상훈이는 기분이 여간 좋은 것이 아니다.

잘만 크거라. 새끼도 많이 낳고, 도야지금도 좋아지니께……. 성공만 혀른 설마 장가야 못가겠냐. 보란듯이 살어볼테니께…….

무럭무럭 자라는 돼지들을 굽어보며 상훈이는 침을 꿀꺽꿀꺽 삼킨다.

농사철이라 바쁘테다 돼지까지 거뒀야하니 상훈이는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기도 하지만 돼지 새끼들이

잘 크는 것이 재미있어 상훈이는 세월 가는 줄도 모른다.

음력으로 칠 팔월은 소들의 팔자가 늘어지는 달이다. 논갈이 밭갈이 할 일도 없다. 멩어를 벗고 냇둑에나 산비탈로 끌려나가 풀이나 뜰고, 한낮이 되면 풀밭에 배를 깔고 앉아서 눈을 지긋이 감고 새김질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듯 소들에게 팔자가 제일 좋은 팔월이라서 칠 팔월 황소의 불알 늘어지듯 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어찌 소 뿐인가. 칠 팔월은 농부들의 팔자도 늘어지는 달이다. 피나 뽑고, 농약이나 주며 아침 저녁으로 소꼴이나 베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정칠월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칠월로 접어들며 논두렁 밭둑으로 어정어정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둘 셋씩 모여 앉지만 하면 형석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 끝에는 옥주의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형석이가 회사에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스탠드빠라던가 무슨 뼈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요리사라던가 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주로 하는 것이 문앞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하며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주 임무라고 한다. 그까짓 일을 하며 월급을 타니 생활비는 턱도 없는 노릇인데 옥주까지 피차고 나갔으니 불을 본듯 뻔한 노릇이 아니란다. 애당초 방이라도 얻어서 살림을 차렸더라면 죽이 되나 밥이 되든 살아갈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방마저 없으니 둘이가 발 뻘고 잘 방이 없어 그렇게라도 살 수가 없었던단다. 처음 며칠간은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으로 돌아다니며 잠을 자고 물밥을 다 사먹으며 살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에는 헤어졌고, 오갈데 없는 옥주는 행방을 감추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요정집 식모살이로 떠돌다가 접대부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하기 좋은 남의 말이어서도 하지만 일손이 바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모이는 사람마다 혀가 닳고 침이 마르게 형석이와 옥주의 이야기

로 소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떠도는 말이고 보니 상훈이의 귀에 즉각 들어갔다. 어찌 상훈이 뿐인가 옥주의 부모까지 알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고서방은 길길이 뛰며 집안 망신스럽고, 동네 창피해 죽을 지경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 그러면서 고서방은

“농사 안짓는 놈한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더니 소원을 풀어서 좋겠구먼. 좋겠어. 윈 풀었으니께 어서 가서 그녀를 찾아와 머리꼬챙이 끌고 못와?”

할멈을 쥐새끼 잡듯 했다.

형석이와 옥주가 잘못되고, 헤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상훈이는 소문을 듣고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하루 빨리 양돈가로 성공을 해야 한다며 침을 꿀꺽 삼킨다. 옥주는 물론 그녀의 부모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고자 해서다

두 서넛 모이기만 하면 형석이와 옥주의 이야기기를 흥미롭게 하며 세월가는 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풀이 죽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년 열두달이 가야 별다른 일이 없는 동네에 상훈이와 옥주의 건은 마을이 발끈 뒤집힐 정도의 사건이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렸지만, 아무리 그러해도 같은 말을 여러 날 되풀이하니까 날이 갈수록 상거워지다가 이제는 잠잠해지는 것이었다.

형석이와 옥주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시작할 무렵부터 날씨가 질퍽거리더니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진다.

“날씨가 왜 이런다. 죽게 농사 지은거 다 폐농을 시킬 셈인가?!”

역수같이 퍼붓는 비로 금새 도랑마다 붉은 물이 꿈틀대며 흐르는 것을 굽어보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건너산에 칼날 박히듯 하고나면 천둥은 하늘을 가를듯이 구름 속에서 으르렁댄다. 천둥소리가 한바탕 진동을 하고나면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진다. 숨 돌릴 사이 없이 비가 쏟아지는데 밭둑이 무너진다, 논두렁이 무너진다고 사방에서 소리치고, 사람들은 삼을 들고 논밭으로 달려나간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상훈이

도 삼을 들고 나갔다. 돈을 향해 가는 것이다. 냇둑이나 다름없는 곳에 지은 돈사가 염려되어서다.

상훈이가 돈사 있는 곳 절반쯤 갔을 때였다. 돼지들의 숨 넘어갈듯 하는 비명이 허공을 찢고, 그 소리에 섞여 누군가가

“도야지집이 무너져요.”

마을을 향해 고래고래, 숨 넘어갈듯이 소리를 친다.

어허! 어!

탄성이 절로 나오는 상훈이는 삼을 부여잡고 미친듯이 달려갔다.

“큰일났어. 큰일…….”

물꼬를 막으려 눈에 나왔던 성구가 달려오는 상훈이를 보고 소리치며 발을 뚱뚱 구르는 것이다.

어허! 이런…….

돈사 가까이 간 상훈이는 말도 못하고 있다. 용이 꿈틀대듯 몸부림치며 도도히 흐르는 냇물이 독을 넘어 돈사로 밀어닥치기 때문이었다. 붉은 물이 괴물처럼 꿈틀대며 밀려들고, 우리 안에서 돼지들이 이리 저리 뛰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 상훈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상훈이의 머리에 옥주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었다. 배신을 한 옥주, 그녀에 대한 한풀이, 보복으로 양돈업에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망하면 두번 비참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다. 그러다가 그것도 잠깐이고, 두번 패배를 해서는 안되는데 또 당하는고나 하며 이를 악물었다. 아드득 이를 악물며

으흐흠……

피를 뺨뺨 하던 상훈이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우리의 문을 열었다. 열리는 문으로 크고 작은 돼지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몰려오느라 야단들이다.

도야지를 구해야 한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어.

미친 사람 증얼거리듯 하며 두번째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우지직 소리와 함께 돈사 지붕이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도 상훈이는 모르고 있는데

“위험 허 빨리 나와. 빨리…….”

성구가 다급하게 발을 동동 구른다. 세찬 물결이 독을 허몰어 기둥이 쓰러지며 지붕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상훈이는 나올 생각도 안하고 우리의 문을 열고 있을때 찌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돈사가 쓰러지며 스텔트지붕이 펑 가라앉았다. 순간 성구의 입에서는

어어허!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뿐 더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미처 나오지 못한 돼지들은 숨넘어갈 듯이 끼익 짹짹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다. 그때에서야 성구는 먼저 나온 돼지들 몇 마리가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마을 쪽으로 향해

“사람 살려유. 도야지집이 무너졌어유. 사람 살려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나 으르렁거리는 천둥소리 때문에, 새차개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멀리 퍼지지 못하고 돈사주변에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다. 발버둥치며 울부짖듯 고래고래 소리치던 성구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언덕을 마구 허몰면서 병병히 흐르는 냇물에 결국 쓸어진 지붕뿐이 아니다. 기둥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나무도 떠내려가고, 그 사이사이에 어미돼지를 비롯해 여러 마리의 돼지들도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 돈사를 비롯해 돼지들이 부침을 하여 떠가는데 상훈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 휩쓸어가는 붉은 물을 굽어보고 있던 성구는 늘어나는 물 때문에 더이상 서있을 수가 없어 몇 마리의 돼지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산비탈로 달려가며

“상훈이가 죽었어유. 상훈이가 죽었어유.”

울부짖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백두산 가는 길

한 동 철

“비 행기는 곧 백두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우리들은 불과 30여분 전에 김포 공항을 이륙하여 기내식을 얻어 먹을 시간 조차 없이, 안전벨트를 풀 필요도 없이 백두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만약 통일된 조국에서 에어버스 태극호를 타고 우리의 하늘을 날아 백두산으로 갈 수 있었다면 나는 이 글의 첫 머리를 이렇게 쓸 수 있었으리라.

1990년 6월 5일, 새벽 6시, 우리 일행은 지난 밤 잠을 설친 채 아침 식사를 거른 허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삼청동 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집결지에 모였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가 깃들인 민족의 성산(聖山) 백두산, 민족혼의 진원지이며 우리의 선조들이 응지의 나라를 펼쳤던 백두산, 일제(日

帝)에 우리 애국 선열들이 광복의 꿈을 키워온 중심지인 백두산, 우리 국민이라면 너, 나 할것없이 모두 가고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백두산-에 가기 위하여

우리 일행-한국 교원대학 미술과 전문과정 해외연수단-40명은 두대의 관광 버스에 분승하고 6시 20분 집결지를 떠나 6시 45분경 김포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날씨가 쾌청한 편은 못 되었으나 일행들의 기대는 한없이 부풀어 있었다. 기다리는 두어 시간을 삼삼오오 공항 벤치에 모여앉아 해외여행 선협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백두산 등정의 꿈에 부풀어 지루함도 잊고 있었다.

우리들은 과연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일행 40명은 1990년 학기초인 3월 3일부터 약 4개월간 예정으로 한국 교원 대학교에서 미술과 전문과정 연수중에 있었다.

당시 우리들은 근 일백여일 동안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며 같은 생활관에서 밤낮없이 시간을 같이 하였으므로 누구나 친구같고 누구나 형제같이 살아온 터라 한 식구나 다름없이 이 여행길은 한없이 즐거웠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아홉시 우리 일행은 KE 617편 홍콩행 KAL기에 탑승을 끝냈다. 내 좌석은 14H석으로 창 아래로 날개가 보이는 창옆의 좌석이었다. 오른쪽 창옆의 좌석에서 하늘을 나는 동안 하늘나라를 구경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 나는 우리 단의 Video 촬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까막눈(日本 SONY회사 제품의 8mm Video camera에게 붙여준 이름)에게 하늘나라를 구경시키기엔 아주 적절한 안성맞춤의 자리가 아닌가!

벌써부터 찰칵거리는 셔터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09시 5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이륙 예정을 알리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리고 활주로의 출발선에 선비행기 엔진소리가 한층 요란하더니 비행기는 굉장한 속도로 질주하였다. 2분후에 공항청사와 많은 비행기, 활주로와 갖 모내기를 끝낸 김포평야의 잘 경지 정리된 논들이 시야의 저 아래로 보였다. 와-하는 함성이 들렸다. 우리들은 땅을 떠난 것이다. 거대한 한 마리 새의 내장속에 잘 정돈해 앉아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연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을까?

아- 우리들은 지금 백두산을 향하여 날고 있다. ‘하느님, 단군할아버지, 굽어 살피주소서. 제발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볼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소서.’

5월 17일 우리 연수팀의 체육과가 선발대로 백두산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나 끝까지 오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종턱까지 올랐으나 심한 바람과 눈보라로 더 이상 오를 수 없었다고 한다.

교원대학의 휴게실에 앉아 그들이 찍어온 테이프를 보며 함께 애석해 하였다.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변하면서.

‘하느님, 제발 굽어 살피시어 좋은 날씨를 주소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면서.

09시 19분 구름이 창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우리들은 구름의 바다 위를 나르고 있었다. 지상 9500m 상공을 시속 800km로 날고 있는 이 비행기의 날개를 보니 마치 진공속에 놓인 정물같이, 정지된 시간속에 안치된듯 고요하고 미동도 없어 속도감을 느낄 수 없었다.

동료들의 대부분은 눈을 감고 있거나 간간히 메모장에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까막눈에게 구름 위 하늘 모습을 기억시키기에 바빴다.

12시 06분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0분후 현지 홍콩시간 11시 35분에 카이탁(啓德) 국제공항에 내릴 예정이며 홍콩의 기온은 영상 27도, 날씨는 쾌청하다는 입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12시 16분 비행기는 구름 위에 배를 깔고 가는 듯 하더니 곧 이어 구름층을 통과하고 있었다. 연막같은 구름이 창을 재빨리 스치며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셔터소리와 함께 탄성이 흘러나왔다. 나도 까막눈을 창가에 대고 나의 오른쪽 눈은 까막눈의 파인더에, 왼쪽 눈은 나 스스로를 구경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후 아득히 먼 아래 홍콩의 모습이 보였다.

몽콕지역의 고층 빌딩군, 달리는 자동차들, 비행기가 점점 내려오자 창엔 빗방울이 번져 흘러 풍경이 이지러져 보였다.

‘날씨가 쾌청하다더니……’

처음보는 홍콩의 모습에도 기분은 좋은편이 못되었다. 중국은 지금 장마권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을 꼭 가야 할 텐데……’

현지 시간은 11시 41분으로 우리나라와는 약 1시간정도 시차가 있었다.

공항 대합실에 들어가니 왠지 지절한 중국말 투성이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되었다. 공항안에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입국, 출국 수속을 하다보니 오후 1시가 넘었다.

13시 30분 북경행 중국민항기에 탑승을 끝내었다.

B-2553이라고 적힌 날개를 단 이 비행기는 KAL 617보다는 작아보였다.

요행이도 또 창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창밖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비가 맺어 있었다.

비행기 창을 통해 까막눈에게 열심히 홍콩의 모습을 구경시켰다. 피어 오르는 구름 아래 산들이 한층 산뜻해 보이고 산 중턱에 자리잡은 우뚝우뚝 솟은 하얀 건물들이 비에 씻겨 매우 깨끗한 인상을 풍겼다.

비행기가 움직였다. 착륙할 때 보이던 풍경들이 다시 보였다. 중국 말로 떠들썩한 이 인민공화국의 비행기를 타고 말로만 들던 인민공화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의 바로 뒷 자리에는 젊은 중국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짧은 영어나 메모지에 한자를 적거나 몸짓, 손짓,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그랬더니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다. 저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들 일행은 중국 탁구 대표 선수들이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은 코치라고 하다.

코치는 이 애리사 선수를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중국대표 선수였다고 한다. 자오즈민 얘기, 북경 아시안게임 얘기를 나누며 주소를 적어 교환하기도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늘을 날아서 그 나라의 수도로 향하고 있었다.

꿈만 같은 사실이었다. 첩보원 처럼 몰래 잠입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앞가슴에 태극기를 새긴 명찰을 달고 어엿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적대국가-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후 5시경 비행기는 점차 고도를 낮추었다. 북경 공항이 머지 않은 듯 착륙 준비를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왔다.

밖을 내다보니 저 아래 보이는 땅엔 산이나 언덕이 전혀 보이지않는 판판한 대지에 장방형으로 잘 경지정리된 밭과 그 밭을 경계라도 짓듯 역시 사각형의 담처럼 조립되어진 나무들-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흙바람을 막기위해서 그와 같이 나무를 심었다고함-펼·벽이「대지」라 이름붙인 광활한 땅이 눈아래 펼쳐지고 있었다. 완전히 운동장처럼 판판한 땅이었다.

비행기는 낮선 사회주의 국가의 공항에 내려 앉았다. 이 적대국의 대문 앞에서 우리들은 잔뜩 긴장하였다.

북경 공항안은 봄비는 편이었으나 김포나 홍콩보다는 훨씬 한산하였다.

나는 지금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어린 학생시절에 매일 「무찌르자」고 노래하던 오랑캐의 나라 대문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우리 일행의 가슴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정은 어떠한 것일까? 적어도 나의 감정은 매우 허탈한 것이었다. 나의 관념속에 박혀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인상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관념속에 박혀있는—무서운나라, 언제나 감시의 눈이 따라다니는 무시무시한 사회, 어디에고 인민모에 따발총을 든 동무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사회,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끌려가 버리는 사회—그러나 지금 내 눈엔 아무리 애써 찾으려 해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웃을 입고 평범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사회처럼 보이는 것이 왜 이리도 어색해 보일까? 저들은 우리를 보며 부러워할까?

그네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까? 민주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우리네를 동경할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들의 눈에도 우리가 이상한 나라, 이상스런 사회에서 온 이상스런 무리들처럼 보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북경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 같이 이상한 사회, 뭔가 모순이 많은 잘못된 사회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싶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살고있는 그들일 뿐, 나와 다를 바 없이 웃음도 웃으며 낯선 이역에서 온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줄도 아는 나같은 인간이었다. 페레스토로이카나 그라스노스트, 그리고 개혁이나 개방정책을 선택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저녁 무렵의 북경 하늘은 맑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공항 앞 뜰 양편 국기 게양대에 붉은 바탕의 5성홍기(五聖紅旗)가 나무끼고 있었다. 나무끼는 붉은 깃발을 보니 여기가 공산국가라는 사



북경-천안문 앞에서의 필자, 모택동의 대형 초상화가 보인다.

실이 피부에 닿았다. 현지 안내원 두명이 소개되었다. 한명은 유필란이란 미모의 기혼여성이었고 한명은 최일현이라는 미혼 청년(12월 26일 결혼했다는 편지를 연하장과 함께 보내음)으로 2명 모두 연변 조선족의 후예이며 중국의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한다. 우리의 발이 되어 줄 운전기사는 건장한 체구에 검은 썬그라스를 쓰고 있었다.

‘저들 세 명은 모두감시원 일지도 몰라. 아마 우리를 감시하고 자기 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겠지?’

나의 못된 소갈머리는 여전히 편견의 늪을 헤집고 있었다. 하긴 그것이 사실일 지도 모르지만,

공황에서 북경까지 가는 40여 Km의 도로는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으며 잘 조성된 가로수가 마치 나무의 터널속을 달리고 있는듯 하였다. 높은 언덕이나 낮은 구릉 따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평판한 길-위를 달리는 차는 별로 없었다. 말이 끄는 달구지를 김포가

도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술한 자전거의 행렬이 오고 갔다.

홀리데이 인 리도 클럽의 대형안내판이 스쳐 가더니 북경시내의 빌딩군들이 시야에 들어 왔다.

차는 번두리라고 짐작되는 곳에 자리잡은 연상반점(燕翔飯店: Yan-Xiang Hotel)의 정문앞에 멎었다. 안내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었다.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으로 갔다. 마침 시장하던 터라서 맛있는 중화요리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2급 호텔 식당의 탁자위에 놓인 그릇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것이 없고 금이 갔거나 귀퉁이가 깨어진 것이었고 나무에 페인트칠한 젓가락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어 입맛을 상하게 하였다. 이런 저런 까닭으로 하여 팔진미오후청, 중화요리에 대한 기대는 깨어지고 말았다.

23시 40분, 일행중 몇명에서 홀리데이인 리도(麗都)클럽의 디스코텍에서 천진에서 만든 캔맥주를 마시며 람바다와 함께 중국의 첫날밤을 흔들며 취하며 보내었다. 오전 01시 40분경 클럽에서 나오니 밖에는 거센 장대비가 우리를 후렷했다. 길 건너편 연상 호텔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여야 했다.

6월 6일 오전 8시,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보기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왔다. 간밤의 장대비는 멎고 있었으나 뿌연게 흐린 날씨여서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다. 어제의 그 미니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달렸다.

인간이 세운 구조물이 없다면 북경시 전체가 체육관의 마루 바닥처럼 판관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차량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중인 우리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페달을 밟으며 지나갔다.

엘리엇(TS.Eliot)의 「황무지」의 한 귀절이 머릿속에 떠 올랐다.

현실감이 없는 도시

겨울 새벽의 갈색 안개 밑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런던 다리 위로 흘러갔다.
그처럼 많은 사람을 죽음이 망쳤다고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따금 짧은 한숨들을 내쉬며
각자 발치만 내려다 보면서
언덕 넘어 킹·윌리엄가를 내려가
세인트 메어리 울노스 성당이 죽은 소리로
드디어 아홉시를 알리는 곳으로

아침 통근 인파를 허깨비처럼 표현한 이 시귀는 머리속에 자리잡고
앉아 무리진 군중들을 볼때마다 떠오르곤 하였는데 지금 자전거를 탄
행렬에서는 소외된 인간을 표현한 이 시귀가 맞을 수 없다고 나름대
로 생각해 보았다.

호텔을 떠난 지 40분쯤 후에 우리 일행은 천안문 앞 광장에 도착하
였다. 천안문 앞을 가로지르는 거리를 장안로라 하는데 천안문을 중심
으로 남쪽으로 50리, 북쪽으로 50리 즉 100리 길이라 하니 북경시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만 하였다.

광장엔 벌써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 광장의 주변에는
자금성의 남문인 천안문과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는 인민대회당,
혁명 역사 박물관, 혁명 기념탑, 중국공산당사 등의 건물들이 즐비하
다. 광장에 우뚝선 혁명기념탑에 오성홍기를 앞세운 소년 소녀 단원들
이 헌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천안문 중앙엔 마오쩌둥(毛澤東)동무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고 오른쪽엔 「세계인민대단결 만세」 왼쪽엔 「중
화인민공화국만세」라고 쓴 대형판이 걸려있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중국 인민들이 민주를 외치며 운집해 있던 이 광장에 그날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관광나온 아주 허름한 차림의 인민들이 돌아 다니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모두들 바꿨다. 나는 더욱 바빠 뛰었다. 까막눈에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들을 기억시켜야 하고, 사진을 찍어야하고, 내 자신이 찍혀 지는 일도 해야하고, 안내원 동무의 설명도 들어야 하고.

천안문을 우회하여 지하통로같은 곳을 통해서 자금성(紫禁城)안으로 들어 갔다. 자금성은 「하늘의 궁전」이란 뜻의 ‘紫’자와 백성의 출입을 엄금한다는 ‘禁’자를 합쳐 만든 이름이라고 하며, 북경시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 궁전은 명나라의 영락제가 남경에서 천도할 때 건립하여 1420년에 완성하였다한다.

성안은 남쪽과 북쪽의 두 구역으로 크게 갈라져 있으며, 남쪽은 공적(公的)인 장소의 바깥 부분으로 태화문(太和門)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이 한 줄로 늘어서 있고 그 동서에 문화전(文華殿) 무영전(武英殿)등의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그 중에서 태화전은 동서 60m 남북 33m의 당당한 건물로 자금성의 정전(正殿)이며 중요한 의식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한다. 북쪽 부분은 황제의 사적(私的)인 생활을 위해 내정(內廷)으로서 보화전의 북쪽에 있는 건청문(乾清門)으로부터 건청궁(乾清宮) 교태전(交泰殿) 곤녕궁(坤寧宮) 등이 한 줄로 늘어서 있으며 그 좌경(左京)에 많은 건물이 서 있다.

베르투치가 만든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정원사로 전락한 부의가 입장권을 사들고 자금성을 찾는다. 태화전에 들어가 옥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하자, 관리인의 어린 아들이 옛 황제를 제지하며 묻는다.

“아저씨는 누구죠? 그곳에 올라가면 안돼요.”

“나는 중국의 옛 황제였다.”

허름한 인민복을 입고 구부정하게 등이 굽은 그가 옛날 어린시절 옥좌 밑에 숨겨 놓은 귀뚜라미통을 꺼내 곰팡이를 무릎에 닦고 그 아이에게 준다. 아이가 뚜껑을 열자 늙은 귀뚜라미가 나온다. 아이는 두

리번거리며 부의를 찾지만 부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 무리의 관광객 앞에서 안내원이 설명한다.

“이곳이 태화전입니다. 여기서 부의는 다섯 살에 즉위하여 1965년에 죽었습니다.”영화는 끝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이 느껴져 기분이 울적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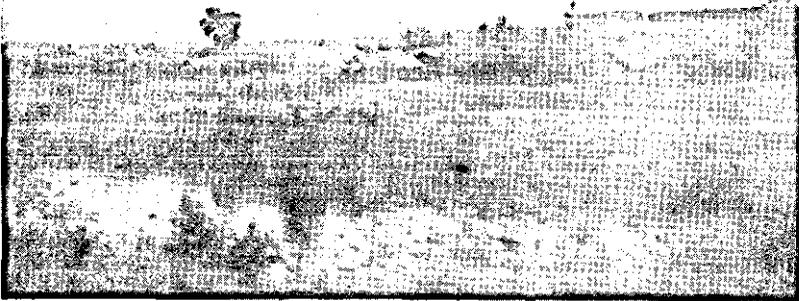
태화전을 보노라니 부의(溥儀)의 즉위식 장면이 생각났다. 어린시절 부의가 앉아 온갖 영화를 누리던 옥좌를 바라보니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이라 읊었던 선인들 말씀이 새삼스러워 허망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곳의 한 모퉁이를 주마간산격으로 보는데도 그저 놀라울 뿐, 창경궁이나 경복궁, 덕수궁에 비하면 이곳은 거대한 도시나 다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면적 22만평에 방의 수만도 9999개나 된다고 한다. 일만개의 방을 채우지 않은 것은 신(神)만이 일만개의 방을 갖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한살 짜리 갓난 아기가 이 궁전에 있는 9999개의 방에서 하룻밤씩 잠을 자고 나면 스물여덟살이 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어마어마한 이 궁전을 설명하는데.

중국을 대국으로 섬길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들 틈에서 국가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황제의 내정(內廷)은 1925년이래 고궁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중국문화재의 전당이 되고 있다. 고궁박물관의 기념품 매점에서 차를 한잔 얻어 마시고 백동도(百童圖: 100명의 동자가 노는 그림) 한 장을 샀다. 중국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일 한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아미산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13시 10분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14시 40분발 연길행 비행기에 타기 위하여 공항 대합실에 앉아 내일 소풍



백두산 가는길 — 만주지방, 차창 밖으로 보이는 초가마을, 요정들이 살것같은 동화속의 마을같이 보였다.

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설레이며 기다렸다. 예정된 출발시간이 지났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 한 시간도 더 기다렸다. '사정이 있겠지.' 세 시간을 기다려도 네 시간을 기다려도 어찌된 일인가? 안내방송 한 마디도 없다. 중국말로 방송해 보았자 알아들을 리도 없지만, 세명의 안내원이 아까부터 이리 저리 뛰고 있지만 그들 역시 뭘 알고 있지 못하였다. 공항 직원도 왜 그런지 모른단 것이다. 한참 후에 소식을 알아왔다. 지금쯤 연길에 도착해 있어야 할 비행기가 연길에서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조바심이 났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만리타향 중국에서도 통하고 있었다. 중국측 안내원인 최일현씨가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을 선물하니 공항직원이 친절하게도 여기 저기 전화까지 해서 알려 주었다. 비행기는 20시가 넘어야 뜰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선물은 참 좋은 것임을 새삼 절감할 수 있

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연상호텔로 갔다. 점심 먹고 100리 떨어진 비행장에 가서 신나게 한나절 기다리다가 저녁 먹으러 100리를 돌아와서 그렇지않아도 입에 맞지 않는 중화요리를 약먹듯 먹고 100리를 돌아가서 또 기다려? 비행기는 꼭 올까? 믿을 수 있을까? 요리이고 뭐고 아예 입맛이 사라졌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메뉴는 아침에만 나오는 맹물에 쌀을 삶은 요리, 즉 흰죽이 최고 인기였다. 다섯 대 접정도 들 큰 그릇에 흰죽을 날라오면 죽은 삼시간에 없어지고 손가락으로 빈 죽그릇을 가리키면 눈치 빠른 안내원이 또 날라오고 또 가리키고 또 날라오고…… 이러기를 서너 차례 해야 아침 죽먹기 대회는 끝난다. 안내원들 눈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동물로 비치겠을 것이다. 앞지락에 태극마크 명찰 단 걸 보니 올림픽치른 남조선에서 온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것들이 먹는 양을 보자하니 웃기는 것이었다. 고급호텔의 산해진미요리는 벌레썩듯하고 흰 죽먹기 대회라니…….

다시 공항으로 갔다. 오늘은 400리를 시계추처럼 그 범위만 뱅뱅 돌아왔다. 지금부터 몇 천리를 또 가야 한다. 공항 창밖으로 아득히 보이는 지평선에 깔린 붉은 노을이 심기를 더욱 어지럽게 했다.

‘비행기는 왔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보통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곳.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성질급한 한국사람 제 성질에 지쳐 지레 죽을 나라, ‘급하다’는 말은 애시당초 말이 생길때 생기지도 않았을 나라, 만만다——.

제1진으로 다녀온 체육과 팀에게서 많은 정보를 들었는지라 어쩌면 「그러려니」 생각도 하였지만 아무튼 안내방송 한마디 없다는건 너무 하였다. 비행기가 와도 우리 일행 모두 탄다는 보장도 없다.

공항 직원 기분 내키는 대로라던가? 자국민인 우선 외국민은 나중

이라던가?

체육과 팀은 여섯 시간을 기다렸다 한다. 20명 일행중 17명은 탑승하고 3명은 탑승을 금지 당하였다. 자리가 없다는게 이유였다. 두명은 버스편으로 연길로 가고 한명은 안내원과 들어서 기차편으로 장춘을 경유하여 연길까지 가는데만 이들이 걸렸다고 한다.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그의 말을 빌리면

“중국이고 백두산이고 천금을 주어도 다신 안가겠다”

한국인으로 「백두산이고 뭐고」라고 말할 때에야 고생이 오죽했으
라.

새앙쥐가 엄마쥐 꼬리 물고 줄줄이 따라가듯 안내원 동무 뒤를 따라 82번 탑승구로 내려갔다. 다른 탑승구가 부잣집 대문이라면 이 탑승구는 개구멍과 같을 것이다. 거기서 서울에서 온 동포 한 분을 만나 한 십여 분간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사업차 대련(大連)에 간다고 하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항 저편에서 프로펠러를 빙글빙글 돌리며 구닥다리 비행기가 어스럼 어스럼 기어오고 있었다. 「왔나 보다」 모두 짐을 챙겨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좋아하기는 이르다. 이 비행기는 파렌으로 가는 비행기라서 서울 손님이 먼저 출발하였다.

체크가 시작되었다. 불길한 일이 또 발생하였다. 중국 국제 여행사의 안내원이 최총각(최일현)이 한국 외무부에서 신청한 비자 명단에 없다는 거였다. 선물이 또 한개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일행만 탑승을 마쳤다. 심히 불안하였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인민공화국에서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말이 통할 리 없고 지리도 모르고 유필난씨는 백두산 잘다녀오라하고 바이바이하고 집으로 갔고, 뉘 있어 우리 길 잃은 양의 목자가 되어 주리오?

20시 40분쯤 되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연습삼아 돌려보는게 아닌 이상 곧 갈 모양이다.

4층의 여선생님 두 분(미술과 2단)께서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

단 말인가, 왜 이리 매사가 꼬이고 걸릴까.

최총각이 험뻑거리며 뛰어 들어왔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맨 앞자리에 앉은 내 옆에 최총각이 앉았다. 나는 그가 또 씨 먹을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내가 물으니 여행사로 전화했었다고 하였다. 「여행사로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 여행사의 상관은 공산당의 고급 간부일 것이고 이 고급 간부는 공항에 전화를 걸어 화를 버럭내며 협박을 하니 공항 문지기는 겁에 잔뜩 질려 얼른 태워 주었을 것으로 나는 추측하고」있는 것이다.

후유! 다행이다. 모두 반가와 박수를 쳤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비행기를 살펴보니 우선 지독하게 냄새가 났다. 마치 새우젓 배를 탄양으로 48인승의 이 비행기는 몇 십년째 현역으로 뛰고 있을까? 모진세파에 찌든 때가 피뻑뻑하다. 낡은 좌석버스를 이 비행기에 견주면 적절하리라. 이룩의 순간을 찍기위해 프로펠라가 보이는 창측에 앉았더니 소음이 고막을 찢는 듯 하였다.

20시 48분, 활주로에 짐짐히 켜진 불빛이 저 아래로 보였다.

21시 40분, 이런 비행기에도 간식을 싣고 다니나 보다. 간식이 나왔다. 짝은 밤을 설탕에 졸인것, 강정, 드롭프스, 팩 속에 든 음료수 등 포장을 조작하였으나 맛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22시 16분, 우리는 심양의 도선(桃仙) 공항에 내렸다. 텅빈 심양국제 공항의 밤, 공항 매점 아가씨와 사진을 찍고, 연료를 보충한 비행기는 10시 45분 다시 연길을 향해 날기를 시작하였다.

일행의 대부분은 피로한 까닭인지 눈을 감고 있었다.

‘내일 볼 백두산을 꿈꾸는 걸까?’

24시 19분, 드디어 연길 공항에 도착하였다.

시골 간이역 같은 연길공항에 백두산을 안내할 안내원 한 사람이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다.

24시 26분, 우리 20명은 버스에 몸을 싣고 연길 호텔로 달렸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6월 7일 새벽 한 시가 넘었다. 짐을 챙기고 이제 몇 시간 후 백두산에 올라갈 준비를 마무리하고 까막눈에 부착할 배터리 충전을 마치고 나니 두 시가 훨씬 넘었다.

6월 7일 04시 50분. 기상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에 피곤함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다. 세면을 하고 가지고간 라면을 먹고 05시 28분 「외빈 접대차」라고 써붙인 미니버스에 올라타고 연길빈관 안내원들의 환송을 뒤로 하며 백두산을 향하여 달렸다.

여섯 시가 좀 지났을까?

길 저 아래로 여울져 흐르는 시내가 보였다. 강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지만 저 강이 「해란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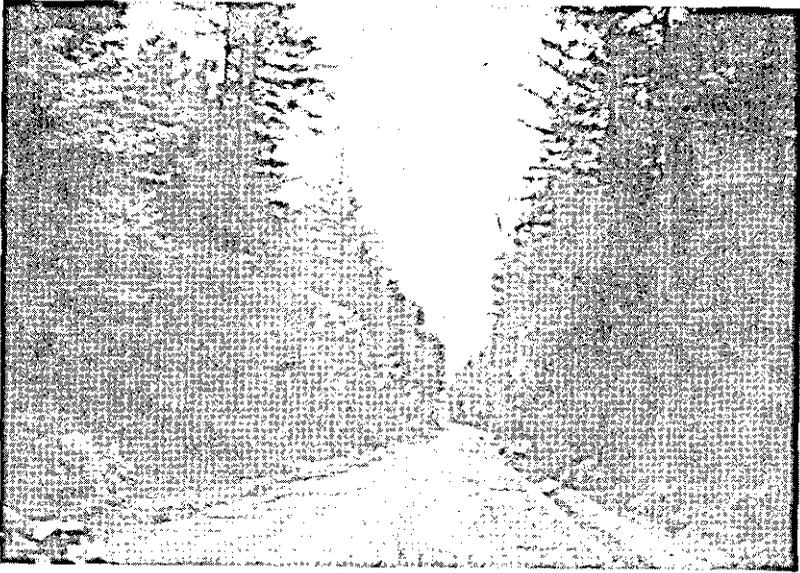
울창한 가로수 사이로 초가지붕의 정겨운 마을들이 보였다. 갖 모내기를 끝낸 너른 평야가 안개속에서 서서히 잠을 깨며 나타났다. 산 중턱에 자리잡은 한국식의 공동 묘지도 보이고 요정들이나 살 것 같은 작은 초가집의 판자 골뚝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아침 연기, 나는 마치 30여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을 여행하는 착각이 들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 이따금씩 윈도우 크리너가 차창에 맺힌 빗물을 닦아 내고 있었다.

먼지가 나지않고 더움지도 않아 여행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였으나 천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 갔다. 이곳의 날씨는 한번 비가 오면 삼사일씩 계속된다는 얘길 들었고 천지는 고산지대여서 기후의 변화가 극심하며 더구나 중국은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하지 않는가.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시오.”

백두산 여행이 확실해졌을 때 생활관 4층의 독실한 캐톨릭 신자인 두 여선생님께 특별 부탁까지 했는데 날씨가 이 지경이라니…….



백두산 가는길-길 양편의 울창한 숲은 원시림이 아니고 일제시대 독립군의 출몰이 잦기 때문에 베어버린 이후 자란 나무들이라 한다.

한길에는 왕래하는 차가 거의 없다시피 어쩌다 원목을 실은 트럭이 지날 뿐 공기는 더 없이 깨끗하여 감히 공해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웠다.

08시 54분 차가 멎었다.

안개비에 축축히 젖으며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며 길 저 아래 안개 피어 오르는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다. 저기가 청산리 골짜기라 한다. 항일 독립투쟁시대에 김 좌진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왜병을 대파시킨 청산리 대첩의 현장이다. 가랑비속에, 고요한 적막에 묻혀 안개만 피어오르는 골짜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발 밑을 보니 노오랗게 편 민들레가 이 땅도 봄임을 알려 주었다.

10시 36분 미인송이 죽죽 뻗은 사이길을 달리니 저 앞에 마치 신천지라도 나타나듯 「길림성 백하 임업국」의 미인송 마을이 나왔다.

미인송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겨울에 대비한 복장으로 무장하고 다시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하늘을 보니 군데군데 푸르름이 보이고 흰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걸 보니 비는 올 것 같지 않았다.

산이 깊어감에 따라 좁은 신작로 사이로 좁은 하늘이 조금 보일 뿐 거의 햇볕이 들지 않는 밀림의 연속이었다. 보이는 건 조각하늘을 지나는 흰 구름과 울창한 숲과 도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고작이었으며 여행객이나 차량의 통행은 거의 볼 수 없는 한점 오염도 없는 그윽한 선경(仙境)의 연속이었다.

이도백하(二道白河)의 미인송 빈관을 떠난 지 한 시간여 만에 「장백산 자연 보호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백두산 입산 허가를 받아야 백두산에 오를 수 있다는 안내원의 말을 들으며 하차하였다.

입산 수속을 하는 20여 분 동안 모두들 사진 촬영에 열을 올렸다. 나도 열심히 까막눈을 들었다.

비디오 촬영료 40원(한화 6000원)을 뜯기고 자연 보호국을 떠나 2분쯤 달렸을까? 밀림의 평원에 곧게 뚫린 길 저 멀리로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백두산이 처음 그 자태를 나타내었다. 글자 그대로 머리에 군데군데 하얀 눈을 이고 있어 안내원의 설명없어도 누구나 한 눈에 백두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모두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잠잠하던 차안이 갑자기 어수선했다.

해발 2000m 이상을 올라 왔는데도 길은 여전히 평원에 난 길처럼 높은 언덕이나 아득한 계곡 따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길가 나무 밑에는 군데군데 양봉통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어 마치 강원도 어느 산간을 지나는 느낌이 들었다.

산이 점점 더 깊어지자 미인송(美人松) 대신 줄기가 하얀 자작나무 숲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잡목이 거의 섞이지 않는 녹색의 숲속에 하얀 줄기가 우뚝우뚝 솟은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아름다웠다.

달려도 달려도 끝 없는 숲길 저 멀리 보이는 백두산은 가까와지기

는 커녕 신기루처럼 자꾸만 멀어지는 듯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였다.

13시 56분, 도로 노동자 전용 상점 앞에서 잠시 쉬었다.

남루한 차림의 청년과 머리를 길게 판 처녀 2명이 우리 일행을 구경하며 까막눈을 손으로 가리키며 뭐라 소근거렸다. 그들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곳은 해발 2400m 정도의 지점으로 가파른 언덕이 시작된다.(가파르다 해도 설악이나 지리산 올라가는 길에 견주면 얕은 언덕이라 할 만함). 망원렌즈로 살펴보니 멀리 백두폭포가 보였다.

성능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미니 버스는 약간 비탈진 길을 힘에 겨운듯 굉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오르고 있었다. 변종된 줄기가 하얀 자작나무 숲이 길 양 옆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 앞을 틱우려고 파릇파릇한 새 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지금 봄이 시작되려 한다. 나무밑엔 노란 색과 보라색의 꽃도 피어 있어 멋진 봄 풍경을 연출해 내고 있었다. 바로 저 아래 15분 전 아래에는 신록의 초여름이 한창인데

도보로 등산하기 위해 오후 2시 15분 차에서 내렸다.

해발 2500m 정도에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수목한계선」이라 한다.

길의 웅덩이엔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바람에 깎여 마치 조각해 놓은 담장 같았다. 바람이 매우 거세었다. 뒤로 돌아 광활한 만주벌판을 보니 푸른 임해(林海)가 아득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 날씨는 믿을 수가 없다. 빨리 올라가야 한다. 정상을 향하여, 겨울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겼다.

14시 57분, 이 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분다는 풍구(風口)에 도착하였다. 바로 아래 아득한 골짜기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골짜기 건너 저편으로 백두폭포(장백폭포, 비룡폭포라고도 함)의 세 갈래 물줄기가 힘차게 떨어져 내렸다. 이 장소에서 관광객 두 명이 돌풍

에 말려 추락사한 곳이라 한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들고 있는 카메라가 마구 흔들릴 정도였다.

일행은 다시 정상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1990년 6월 7일 16시 20분.

아아 어찌 우리 이 날을 영원토록 잊을 수 있으랴. 결코 결코 지금 이 순간을 잊을 수는 없으리라.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백두산의 정상에 서서 얼어붙은 천지를 내려다 보며 천지 건너로부터 불어오는 우리 북녘의 공기를 가슴터져라 호흡하고 있다. 천지 건너 아련히 보이는 조국 강토를 보면서 목 놓아 마음속으로부터 무엇인가 외치고 싶은 욕망이 끓어 올랐으나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만세를 외쳤을 뿐, 이 가슴터지는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해 외칠 수 있으랴. 게거품을 날리며 아무리 떠들고 붓이 다 닳도록 끝없이 써도 이 순간의 감격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서울이 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광대한 천지와 주변 16봉우리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히 경탄의 소리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엄격한 위엄이 넘치는 성역이었다. 이런 느낌은 나만의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일행 모두(우리 일행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음) 누구하나 환호성은 물론 큰소리로 떠들어 대는 사람조차 없었다. 묵묵히 천지를 바라보며 저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듯 하였다. 숙연한 자세로 서서 광활한 천지를 훑어보며 신비경에 침잠해 있는 모습들이었다.

‘국초(國初)의 땅 아사달(阿斯達)

삼위태백(三危太白)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터 잡은 신시(神市)’—이 성역에 서서 광복이래 이 터에 선 얼마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곳을 찾은 최초의 서산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며 하늘님과 단군 할아버지께 깊이 감사 드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 천지를 볼 수 있도록, 백두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시고 보살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산봉우리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천지 안쪽으로 흘러 내려 천지를 향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봉우리 끝까지 가서 천지를 내려다 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 안위를 생각할 수 있으랴. 더우기 나는 촬영을 맡았으므로 기어코 보리라는 각오로 낮은 포복을 하듯 가장자리를 향하여 기어 갔다. “한 선생님, 위험해요!”하고 누군가 소리쳤지만 못 들은 양하고 끝까지 가서 절벽 저 아래 펼쳐진 천지를 보며 카메라를 돌렸다. 망원렌즈를 통해 가까이 보니 판판한 얼음판이 아니라 얼음이 얼 당시,콩이라도 뿌린 듯 구멍이 숭숭나 있었다. 얼음의 가장자리는 누군가 일부러 깨치기라도 한 듯 얼음이 부서져 녹아 있었는데 물빛은 진한 남색을 넘어 차라리 검다할 정도였다. 천지의 물빛을 보게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가. 이 또한 백두산 신령이 되셨을 단군할아버지의 굽어 살피심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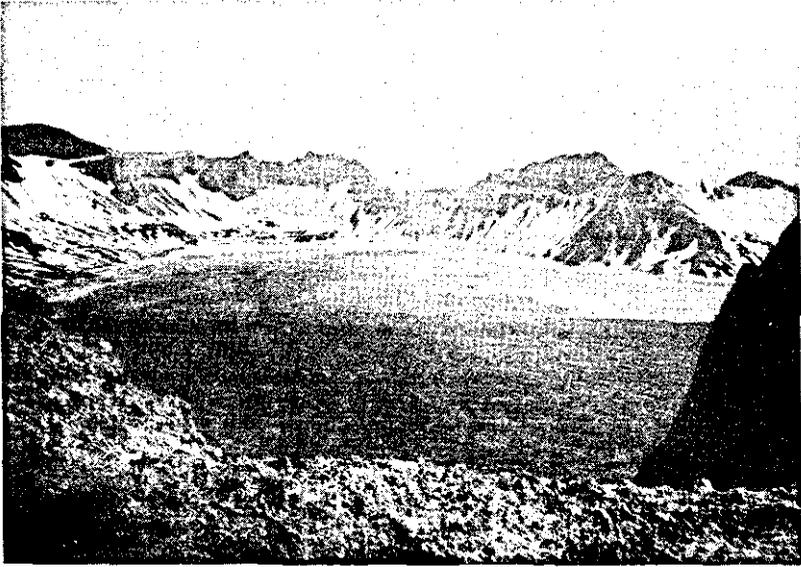
서울에서 백두산까지의 직선 거리는 지도 상으로 약 일천 삼백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울을 떠나 홍콩을 경유, 북경, 심양, 연길을 거쳐 다시 육로로 8시간여, 지도상의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약 일만 팔천리를 돌아 우리의 옛 땅이던 남의 땅을 밟고, 결코 오를 수 없는 산에 올라 있는 것이다. 서울을 떠나기전 백두산에 올라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교육 받았다.

첫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지 말것.

둘째, 땅에 엎드려 절하지 말것

셋째,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지 말것

이 세가지 외에도 자연물을 채취하지 말것, 자연 보호구역 안에서 차내에서도 절대 금연할 것 등이었으며 특히 세 가지를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이후론 한국인의 백두산 입산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필자가 찍은 백두산천지-6월 7일 오후의 천지는 얼어 있으며
주변에는 잔설이 남아있다.

하였다. 그런 행위는 은연중에 우리 국토임을 주장하는 행위라 인식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모두 함께 손잡고 그냥 만세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친절한 안내원 동무는 어디까지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백두산은 예로부터 단군이 탄강한 성지로 숭배되어 신성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옛날 중국의 금(金)나라에서도 1172년 영응산(靈應山)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또한 청(淸)나라에서는 이곳을 청왕조 애친각라(愛親覺羅)의 발상지라 하여 제사를 지내었다한다.

하늘에서 천녀(天女) 세 자매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사이에 신작(神鵲) 한 마리가 붉은 과일을 물고와서 계녀(季女)의 깃털옷(羽衣)에 놓았다. 계녀는 이 과일을 먹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포고리웅순

(布庫哩雍順) 성을 애친각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청 왕조의 조상이라 하였다.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세 개의 강이름은 지금은 한자로 표기되고 있으나 본래 두만강은 천지의 물이 산 밑으로 삼십리나 도망가서 흐른다고 하여 「도망강」이라 부르던 것이 변음하여 두만강이 되었고, 압록강은 앞쪽으로 누비어 흐른다고 하여 「앞누비강」이라고 부르던 것이 압록강이 되었으며, 송화강은 송림사이로 흘러 솔꽃이 층을 이룰 정도로 떠 가기 때문에 「솔꽃강」이라 부른것을 한자로 옮겨 쓴 것이라 한다.

천지(天池)는 칼데라 호(Caldera 湖)로 용왕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중국에서는 달문지(闌門池)라 부르는데 천지의 물은 북쪽의 화구벽을 뚫고 백두폭포가 되어 얼 따오 빠이 강(二道白河江)으로 떨어지는데 이 물이 송화강의 수원이 된다.

「팔십리 한 바퀴 굽은듯 솟은 절벽 천지를 둘러 벽수만 그득히 넘쳐 땅이 없었나 했더니 구름 저 아래 또 하나의 세상이 있도다

(周徧八十里峭壁入池邊 水滿疑無地 雲低別有天)

이 옛 시로서도 옛 사람들이 본 천지의 넓이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천지는 그저 분화구에 고인 호수가 아니라 산상(山上)의 거대한 바다라고나 할까.

중국에서 측정한 천지의 실제 넓이는 21.41평방킬로미터 그 둘레는 18.11킬로미터로 45리가 넘으며 수면만의 넓이는 11.11제곱 킬로미터이고 수면남북의 길이는 4.85킬로미터, 동서의 폭은 3.35킬로미터이며 수면까지의 높이는 해발 2155미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312미터, 평균수심은 204미터로 깊이로 보면 바다로서도 깊은 바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에 서서 천지를 둘러보면 어디나 지척같이 보이는데 이는 공해가 없이 공기가 너무 맑기 때문이라 하였다.

백두산은 휴화산으로 아스피테(Aspite : 순산화산)식 화산이며 문헌에 의하면 1597년과 1668년, 1702년에 각각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장엄한 봉우리들은 그저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그런 봉우리들처럼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 해발 2,500미터가 넘는 열 여섯 봉우리의 이름은 백두봉을 비롯하여 백운봉(白雲峰) 관면봉(冠冕峰) 삼기봉(三奇峰) 천황봉(天豁峰) 지반봉(芝盤峰) 왕주봉(王柱峰) 제운봉(梯雲峰) 와호봉(臥虎峰) 고준봉(孤隼峰) 자하봉(紫霞峰) 화개봉(華蓋峰) 철벽봉(鐵壁峰) 용문봉(龍門峰) 관일봉(觀日峰) 금병봉(錦屏峰)등이다.

천지 수면의 5분의 3은 우리측이고 5분의 2는 중국측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16봉 중 자하봉, 고준봉, 삼기봉, 관면봉, 와호봉, 제운봉, 백두봉등 일곱 봉우리는 우리나라 경내에 있고 아홉봉우리는 중국 경내에 있다고 한다.

다행히 16봉우리 중 최고봉은 우리 경내에 있는 백두봉이며 종래 높이를 해발 2744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최근 중국에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백두봉의 높이가 2749미터 60센티미터라고 한다. 백두봉은 일명 장군봉 또는 병사봉으로 칭하기도 한다. 백두산 정상에 오른 사람중에 기념사진을 찍고 그 설명으로 「백두봉 또는 병사봉에 오르다」고 적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 싶다.

백두산은 꼭대기에 백색의 부석(浮石)이 얹혀 있어 마치 흰 머리와 같다하여 백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만주족은 과륜민산연아림(果勒敏珊延阿林)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한쪽은 푸헌산(不咸山) 탄탄따링(單單太嶺), 타이바이산(太白山) 투타이산(徒太山) 타이황산(太皇山) 라오바이산(老伯山), 장바이산(長白山)등으로 부른다.

저녁 무렵이어서인지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오후 다섯시 안 타갑고 쓸쓸한 심정으로 천지를 되돌아 보며 남이(南怡)장군의 시 한 수를 머리에 떠 올리며 정상에서 하산하였다.

「장검을 빼어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천지에 성진이 잠겨세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 불고 하노라」

내려오는 길에 부석(浮石)처럼 가벼운 화산석 3개를 주워 손수건에 고히 싸들고 내려왔다. 주먹만한 돌이지만 나에게는 달나라에서 우주인이 가져온 월석(月石) 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다. 물론 이곳은 풀한 포기 들 한개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자연 보호구역이며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자연훼손죄로 이국의 가막소에서 감옥살이도 각오해야 했지만 「단군할아버지께서 끝까지 돌보아주시겠지」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겨울을 떠났다. 봄을 거쳐 여름으로 내려온 시간은 오후 일곱시경이었다. 차가 대기한 곳에 오니 모두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기진맥진하여 물을 찾는 사람이 많았으나 목마름을 해소할 만큼 많은 물은 없었다.

다시 차를 달려 백두폭포로 향하였다.

백두산 온천 옆에 차를 멈추고 폭포에 가기 위해 차를 내렸으나 나는 너무 피곤하여 가기를 포기하였다. 2킬로미터 밖에 있다는 폭포의 굉음이 지척에 있는 듯 들렸다. 나는 까막눈의 망원렌즈로 폭포를 감상하며 촬영하였다. 세 줄기의 거대한 물줄기가 땅을 갈라 놓은 듯 기세 좋게 떨어져 내렸다. 여기서 떨어진 물이 이도백하강을 이루고 송화강이 되어 흘러 간다. 나는 저 아래 냇가에 가 흐르는 물을 한 줌 떠마시고 세수도 하였다. 얼음처럼 차가운 천지의 물을 먹어본 것이다. 어찌나 차가운지 창자가 얼어 붙는듯 하였다. 내가 서 있는 저 편엔 달걀을 넣으면 삶아진다는 백두산 온천물이 나온다. 주변엔 하얀 김이 무럭무럭 서렸다.

해는 이미 저물고 갈길은 바빠 온천행은 포기하였다.

6월 8일 08시

길림성 백하 임업국 미인송 호텔을 뒤로 한채 다시 차를 달렸다. 너무 좋은 기분에 밤새도록 마신 술이 아침까지도 깨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선구자의 고향 용정(龍井)과 두만강을 보기 위해 간다. 두만

강 독에 서서 저 건너 보이는 우리의 산하를 보기 위하여.

45년 저 건너 보이는 가고 싶은 우리 땅을 멀리서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모두들 선구자 노래를 힘껏 합창하며 하느님과 단군할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차는 만주벌을 달렸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또 다시 촬영을 위해 맨 앞자리에 앉았다. 앞의 윈도우 크리너가 번지는 빗물을 닦고 있었다. 오늘 백두산에 오르는 미술과 2단이 걱정 되었다.

후기 : 6월 8일 등정한 미술과 2단은 천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갖은 고생을 하며 정상까지 오르기는 했으나 짙은 안개와 모진 비바람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한다. 나는 다시한번 하느님과 단군할아버지와 특별히 기도해 주신 오·김 두 분 여선생님과 집안식구들 그리고 미술과 1단 일행들과 안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여행동안 속썩임없이 내 의도대로 중국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고 잘 재생시켜준 나의 까막눈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중국여행 10일동안을 2시간짜리 8mm 테이프 8개에 담아왔다. 이 테이프를 근거하여 우리 일행에게 주기 위해 20여개를 V·H·S 테이프로 편집·복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20번 이상 내가 쓴 이 글을 본 셈이다. 지금도 가끔 그 16시간의 한 부분들을 보며 그 시간속에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다시는 올 수 없음을 느끼며…….

바닷가 殉鄉者的 나뭇군 낫날

— 金淳一의 시집 「瑞山 사투리」 —

鄭 眞 石

(시인, 문학평론가)

金淳一 시인은 서산(안면도)에서 태어나 서산(태안읍)에서 성장했으며, 지금도 서산(서산시)에서 살고 있는 순 토박이다.

그는 1980년 「현대시학」지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이래, 첫시집 「瑞山 사투리」(대전: 신문학사, 1983)를 펴낸바 있으며 다시 동일 제목으로 시집 「瑞山 사투리」(서울: 해진서관)가 출간되었다.

요컨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50년 가량 향토를 지켜온 金시인의 생애적 일상 공간이라든가, 두번씩이나 자기 고향 지명을 빌어 자신의 시집제목으로 채택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는 시인인가를 역력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시집속엔 「瑞山 사투리」라는 동일 제목으로 쓴 연작시 100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1~31까지의 31편은 첫시집에 게재했던 것을 재수록한 것이고, 나머지 69편은 첫시집 발간 후에 쓴 것으로 주로 「현대시학」지와 동인지 「白紙」에 발표한 것들이다.

시집의 제호 「瑞山 사투리」에서 ‘瑞山’은 金시인 자신의 고향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瑞山」이란 지명은 「瑞山」이란 특정지역만을 국한시켜 지칭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어느 시골 행정지역을 대신 써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지명인 것이다. 따라서 瑞山이란 지명은 자신의 고향인 瑞山지역을 뜻하는 동시에 시골 전체를 표상한다. 그렇다면 키포인트는 ‘사투리’의 의미망이다. 우선 사전적인 각도에서 보면 ‘사투리’란 표준어에 상응되는 개념으로 단지 지방언어(방언), 향토어, 토착민어 따위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金시인의 ‘사투리’가 의미하는 것은 규범화, 모형화, 세련화, 고속화, 상품화, 사무화, 현대식 계량법 등과는 상반되는 자유스러움, 개성적, 투박함, 유유함, 원자재 상태, 친숙함, 재래식 계량법 등을 뜻하는 개념이다.

정리컨대, 金시인의 「瑞山 사투리」란 그의 시세계에 비추어 순박함과 혼돈한 인정으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 농어촌 사람들의 정겨운 시골, 그곳 향토인끼리의 친숙하고, 투박하며, 자유스러움과 부드러움이 감치는 말, 문명에 의해 때묻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공간 등을 두루 표상한다. 이는 한마디로 문명과 경제와 도시인에 의해서 토착민들이 밀려나고 소외받아가게 되는 농어촌 현실상황에 대한 金시인 자신의 자연과 순정과 향토를 파수하려는 문명비판의식, 순향자적 자연에의 지고한 정신세계를 표징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제면에서 거의 일맥성을 띠고 있다. 소재면에서나 표출기법에서나 시의 형태 등 시적 표현양식면에서는 매우 다채롭다. 물론 주제면에서도 세분화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100편 기준).

1. 자연의 모습,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정경 18편(18%)
2. 전통적 생활방식 또는 토속적 세계 17편(17%)
3. 문명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 공간이나 공해의 현장에 대한 고발

14편(14%)

4. 문명에 희생당한 대상 및 물질만능풍토에서 소외된 자나 작은 것에 대한 연민 10편(10%)
5. 몰락된 인간상 고발, 순수가 바랜 인간에 대한 증언 7편(7%)
6. 유년회귀(동심 예찬) 9편(9%)
7. 자연의 풍경이나 생명적 찬탄 9편(9%)
8. 시골지향의지 4편(4%)
9. 소속의식 또는 이웃사랑 4편(4%)
10. 자아성찰적인 세계 8편(8%)

그런데 이러한 분류나 통계는 별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金시인의 이들 각 주제별 시세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립하고 있다가보다는 상호 밀접한 유기적 관계, 즉 총체적 통합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각 주제별 시세계에 대하여 대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자연의 모습,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정경

농어민의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18편으로,

바다가 달을 품고 웅어리진 명울을 푸는 밤 갯가 처녀들이 모여앉아 첫날밤 얘기를 즐겼다.

보리누름에 기름기 졸졸 흐르는 우럭은 눈이나 뜨고 먹지……눈도 못뜨겠더라

갯가 처녀들은 가쁜 숨을 감추며 군침만 삼키고 있었다.

(瑞山 사투리·4에서)

샘골

이 서방은

평생 아이들한테
〈흫처럼 살아라〉
이르며 늙었다

— 중략

가르치지 못한
병신자식만이
집에 남아서
〈흫처럼 살아라〉
이르시던 아버지의 말씀
다시
재 자식한테
이르며 산다

(瑞山 사투리 · 27에서)

갯가붙이는
갯가에서 살아야지
수족관의 농어
눈자위가 떨겅고
살빛이 썩어

(瑞山 사투리 · 31에서)

명칭하고
느긋한 사람들
마늘 생강이 팔리지 않아
헛간에서 썩어도
다시
한발자리 심어놓고
조상 대대로
자식새끼 키워오듯

밀지고 남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눈물처럼 뜨거운
흙을 가꾸며 살아가는
서산 사투리

(瑞山 사투리 · 75전문)

갯마을은 온통
사내 냄새를 맡은
비릿한 웃음으로
가득 차 넘친다

오늘밤
계들은
바다 가득히
알을 풀겠다
(瑞山 사투리 · 76에서)

이밖에도 № 2, 6, 8, 9, 11, 15, 40, 51, 74, 77, 78, 86, 99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한결같이 밝은 모습만은 아니지만 자연(흙과 바다)에 몸을 붙이고 끈끈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순박하고 우직한 숙명적 인생관을 표출시키고 있다.

2. 전통적 생활방식 또는 토속적 세계

옛부터 서산지방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이나 민담 및 전통적 생활방식(식생활, 계량법, 풍속), 재래적 일상용품(가구, 식기, 의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17편으로

등잔불 밑에서도
콧구멍이 까매지도록
「흙」을 읽었고
어찌다
촛불을 켜올 땐
너무 환해서 황송했다

요즈음은
그믐밤도
대낮처럼 밝은 세상
30W 불빛에서는
아예 일손을 놓는다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것일까
어두워지는 것일까
(瑞山 사투리 · 16에서)

갯가에서는/낙지를/생으로 먹지 않았다/
(중략)

살아있는 것을/어떻게 깨물어 먹느냐고/고개를 저으며 깨끔찍하게 여기던
/ 이 갯가불이들도/어느 새/산낙지 먹는 법을/익히고 있다//
(瑞山 사투리 · 52에서)

오늘 아침/하얀 쌀밥에/쇠고기국을 넣고도/밥맛이 없으시다는/어머니/꽂보
리밥에/빨간 꼬추장이랑/얼무김치/능쟁이 황발이 까넣고/비벼서 입이 터지게
먹던/ 그 입맛을/다시 찾아드렸으면//
(瑞山 사투리 · 68에서)

이밖에도 № 17, 19, 44, 59, 60, 61, 62, 63, 63, 69, 70, 83, 93, 96 등이

이에 속하는 작품들로 토속적 생활풍습이나 일상용품이 현대식으로 바뀌으로써 자연히 세상 인심이 썰렁해지고 우리 본래의 삶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직탄한 시편도 있으나 대개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읊조린 시의 밑바닥엔 옛것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 있다.

3. 문명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공간이나 공해의 현장에 대한 고발

오늘날 산업근대화 내지는 국토개발의 불결에 따라 댐공사나 간척공사로 말미암아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마을이 수몰되거나 바다가 물이 되고 있다. 이는 신이 만든 자연의 원형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개발입장에서는 경사일지 몰라도 향토인이나 뜻있는 사람한테는 '고향상실'이라는 애환과 아픔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인간들의 의식 까지도 살벌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시인은 이처럼 문명에 의해서 훼손된 자연공간이나 공해의 현장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瑞山/앞바다가 막히면서/파아란 물소리/싱싱하던 갯바람이/목줄이 끊긴/갯벌에 묻히고 있다//

(중략)

새벽/꿈길에/룻가에 찰싹이는/밀물소리가/눈만 뜨면/개에 나가 살던/갯가 불이들의/ 가슴을 저민다//

아, 어디로 갔나/새벽물에/펄떡펄떡 뛰던/처녀 배이지같은 물놓은 승어때/

(瑞山 사투리 · 57에서)

4. 문명에 희생당한 대상 및 물질만능풍조에서 소외된 자나 작은 것에 대한 연민

金시인의 시엔 문명의 분비물(각종 공해)로 인하여 희생당한 사
 람이나 사물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물질만능풍조에 놓여민을
 비롯한 소외된 자 혹은 사라져가는 것이나 작은 것에 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가령 「瑞山 사투리 · 38」은 청각기능이 무디어지고 마비된
 멍멍이를 통하여 인간의 비정을 넉넉히 증언하고 있다. ‘개구장이
 들이 다가가도/멍청하니’ 있는 멍멍이는 작가 자신을 표상할 수도
 있다. 그는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세상소리에 스스로 ‘신경을 쓰지
 말고/여름을 위해서’ 즉 어지러운 역사의 흐름과 현실상황 앞에서
 아무런 구실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을 자조하고 자책하고
 더우기 시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통감하게 피로워하고,
 절망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인권이 존중되고, 평화
 롭고, 위대한 민주복지국가)을 갈망하면서 그 계단에 자신을 바칠
 그날(여름)이 올 때까지 비록 아득하게 ‘멀기만한 하늘을/바라보며’
 주어진 오늘의 소임에 충실하며 살(실속, 힘)을 옹골지게 짜우고 있는
 것이다.

5. 몰락된 인간상 고발, 순수가 바랜 인간에 대한 증언

金시인은 산업화, 현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순수성이 변
 질되어 가고 몰락된 인간상을 서글퍼하기도 한다.

새벽 하늘을/총으로 위협하고/어른들은/참새를 잡았다//아이들이 참새를
 살려내라고/울었다//다음날도/어른들은 참새를 잡았다/아이들 몰래/털을 뜯
 고/막소주 한 잔으로/빨간 얼굴을/위장했다//

(瑞山 사투리 · 42전문)

자연을 사랑하는 순박한 어린이의 동심을 통해 어른들의 몰지각성
 (밀렵해위)을 점잖게 공박하고 있다. 이 시에서 ‘어린이’는 시인
 자신을 위시한 순수를 지키려는 사람과 순박한 농어촌 사람들을,

‘어른들’은 도덕성이 타락된 세상 사람들이나 퇴색한 도시인들을 각각 표상하고 있다.

6. 유년회귀(동심예찬)

우리 인간한테는 누구나 현실에 회의를 느끼거나 저항감을 의식했을 때는 흔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퇴행의지가 작용하게 된다. 한편 동심 그 자체를 동경하고 예찬하기도 한다.

마구간에서/흙냄새 나는 사랑방에서/낮게 뿔수록 낮게/흐르던 말씀이/도시의 한복판에서부터 두툼 산골/갯가에까지/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십자가에 펼쳐이느/예수의 옷이 눈부시다//

예배당이/높고 클수록/돌층계를 오르는/어깨가 넓고 당당한 사람들은/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기름기 도는 말씀으로/기도를 한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빈 하늘을 맴돌 때/맨발의 예수는/길보다 낮은 곳/목자도 신자도 없는/너댓 평 쓰러져가는 예배당/씩어가는 나무 십자가 아래서/빛보다 환한/동네 조무래기들과 어울려/술레잡기를 하고 있었다//

(瑞山 사투리 · 79 전문)

신은 물질이나 응변으로 숭배하는 자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겸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시에서 유의사항은 시인의 의도는 사람들은 타인이나 사회나 절대자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 결코 물량공세나 거창한 부르짖음으로 받드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어떤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성경말씀이 재음미되는 시다.

7. 자연의 풍경이나, 생명력 찬탄

금시인의 시에는 자연(농어촌)등의 풍경이나 식물같은 생명체에 대해 예찬한 것들이 있다.

찬 서리가 내리던 날 화분을 방안에 들여놓았다 점점 찬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성애가 두텁게 햇빛을 막는 강추위가 계속되더니 방안에 들여놓은 제라늄이 얼어죽었다 내 작은 방안의 훈기로는 어찌할 수 없는 추위

겨울이 가고 따스한 햇빛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창문의 성애도 녹아내려 방안의 훈기가 살아나면서 다 얼어죽은 줄 알았던 제라늄에서 새싹이 파르라니 피어나고 있었다

지난 여름 아끼고 사랑했던 크고 당당한 가지들은 다 얼어죽었는데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주 작고 오죽찮은 줄기만이 모진 추위를 이기고 살아남아 이렇게 새싹을 피울 줄이야

(瑞山 사투리 · 82전문)

강추위로 얼어죽은 줄만 알았던 제라늄이 봄이 되자 새싹을 파르라니 피어내는 것을 발견하고서 ‘지난 여름 아끼고 사랑했던 크고 당당한 가지들은 다 얼어죽었는데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주 작고 오죽찮은 줄기만이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이렇게 새싹을 피울 줄이야’라고 자연의 위력과 생명체의 질김에 탄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의 초점은 사랑받는 가지와 외면당했던 줄기에 대한 역설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있다.

8. 시골지향의지

금시인의 시에는 적설적으로 도시를 마다하고 시골을 선호하거나 고수 내지는 지향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 있다.

시골로 내려올수록/싱싱한 얼굴/하늘이랑 바다가/과랑게 웃고 있다/표정이 없는 고속도로를 버리고/기름물은 표준말을 버리고/시골로 내려오는 길//

이라고 있음에서 강렬한 시골지향의지를 읽을 수 있다.

9. 토속의식 또는 이웃사랑

金시인의 시에는 가족이나 사회나 나라나 겨레 등 소속집단에 대한 애정 또는 이웃사랑을 추구한 시들이 있다.

바다에 갔던 개구장이 아이들이 눈병을 가지고 왔다 집에 홀로 남았던 막내는 눈병에 걸린 아이들과 격리되어 심심해서 풀이 죽어 있다가 <나도 눈병 걸릴래> 떼를 쓰고 눈병 걸린 아이들 속에 끼어들어 신나게 놀았다

눈병은 삼시간에 나를 제외한 온 집안 식구들한테 옮았다 눈병에 걸린 식구들은 모두 자유로운데 눈병에 걸리지 않은 나의 행동이 제한되었다 세수도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단절된 방안에서 나는 눈병에 걸린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부러웠다

나는 가두어 둔 문을 박차고 나도 눈병 속으로 뛰어들었다 식구들과 함께 아플 수 있는 이 기쁨 나는 바로소 자유로웠다

(瑞山 사투리 · 3 전문)

눈병에 걸린 가족들과 단절된 방안에서 '눈병에 걸린 식구들의 웃음소리를 부러워하다가 '나를 가두어둔 문을 박차고 나도 눈병 속으로 뛰어들었다 식구들과 함께 아플 수 있는 이 기쁨 나는 바로소 자유로웠다' 라는 진솔한 토로가 갖는 의미와 참다운 정신적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10. 자아 성찰의 세계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찌면 자아 성찰이요, 자기 구현이요, 자기 구체에 있을 것이다.

金淳一氏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거나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거침없이 그의 「瑞山 사투리 · 1」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내 얼굴에는 늘 바보스럽게 해에 웃는 웃음이 붙어다녀서 사람되기는 다 틀렸다고 한다 피사리를 가서도 피대신 벼를 뽑아놓고 해에 웃는다고 주인한테 퇴박맞고 이른 새벽부터 논두렁에 나와 웃는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종일 재수없다고 사람들은 투덜댄다 막걸리 냄새만 맡고도 질로 나오는 그 바보스런 웃음 때문에 술맛이 없다고 잘 끼워주지도 않고 초상집 시신 앞에서까지 웃는다고 뺨을 맞으면서도 해에 웃는다 병원엘 가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절에도 갔었지만 해에 웃는 나를 내려다보시던 부처님이 한바탕 웃어대더니 처성드렇게 따로 있지 어서 가라고 한다

〈무슨 웃음이 그렇지 부처님도 꼭 바보스럽구먼〉

나는 시무룩한 어머니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오면서 별 희한한 일이라도 엿본듯이 해에 웃는다

이 시는 진정 그의 자화상이기에 그렇다. 일차적으로 표현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둔 수준작이거니와, 무엇보다도 金시인의 인격적 특성과 깊이가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어떻게 대하든 그저 좋다고 해에거리는 좀 모자라는 척 낮은 포오즈를 잔뜩 취함으로써 얼따기(?) 부처상을 연상하도록 유도하고 복선을 깔고 있지만 실은 바로 여기에 그의 겸허한 듯한 웅골진 주체의식과 남몰래 달빛 아래서 숫들에 오래 간 은장도마냥 날카롭고 풍자적인 현실관과 아울러 처절하게 뼈아픈 내면적 고독과 도도함이 농축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갈무리하건대 첫째, 金시인의 정신적 중심체는 불교사상이다. 그의 시 속엔 가라앉고 무게있는 불교적 요소와 색깔이 잔잔하고 흥건하게 내재되어 있다.

둘째, 金시인은 긍정의 시인이다. 그는 흥분과 격앙된 어조로 고발이나 증언을 일삼는 현실참여파 또는 냉소적 시인이 아닌, 부드럽고 다감하고 화해의 목소리로 나직하게 메시지하는 시인이다. 그러면

서도 그의 조용한 틀 속에는 예리한 통찰력과 아이러니칼한 해학이 배어 있다.

세째, 金시인의 화법은 주로 간접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서술적 종결어미로 거의 일관되다시피한 간결한 시행으로써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같은 시적 유희술은 작위적 테크닉의 소산이 아니라, 그의 생애적 연륜과 관조적 우주관과 오랜 시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체질적 발성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곧 그의 시가 여러 독자들에게 거부감없이 어필될 수 있는 그만의 묘법의 하나이리라.

네째, 金시인은 사랑의 시인이다. 무릇 대타적인 존재, 특히 자연과 향토와 우리 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서정적 향토시인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이 시집의 '後記'에서 고백한 다음과 같은 金시인의 절규에 귀기울여 보자.

서울이나 大田에서 까마득하게 먼 이곳 '瑞山'에도 도회지 사람들이 몰려 오면서 인심이 변하고 사는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바다를 막고 공장이 들어설 준비를 서두르면서 바다도 산도 논밭도 서울사람들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겨자씨만도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절망하고 절망하는 일뿐이다. 瑞山 사투리를 위해 밤을 새워 절망하는 일뿐이다.

모두가 도시문명의 편향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오직 자연과 향토와 순정을 지키고자 시골지향을 견지하면서 외롭게 그러나 묵묵히 충청도 선비적 지조와 전형 걸음새를 걸어가고 있는 金시인의 殉鄉者的 발길과 시퍼런 낫날에 다수운 박수를 보낸다.

서산 문학회 회원

성명	근무처	자택전화	직장전화
권성중	서령고등학교	665-4436	64-8156
권순하	농민문학사	02-992-6957	02-309-0939
김순일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665-3909	65-0783
김용동	서산중학교	665-5449	64-5574
김태우	서산국민학교	665-6348	64-5121
김창수	어은국민학교	665-4685	73-9404
김형순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62-2888	65-0782
남정화	해미고등학교	65-3393	65-2585
류상동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665-3613	65-0782
리성주	대산국민학교	665-3007	63-8007
문수호	서산여자고등학교	665-3985	665-2795
문희태	서령중학교	665-6727	64-5101
서종숙	서산국민학교	665-2022	64-5121
송국범	팔봉중학교	665-8481	62-6006
신득균	음암중학교	65-5254	63-5237
이영하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665-7703	65-0785
인성희	신홍사	665-2782	665-2782
조희만	고성국민학교	62-2403	62-6049
최경옥	대산국민학교	65-0153	65-0153
한근식	서산의료원	64-2824	64-2101
한동철	서산국민학교	665-8657	64-5121



기획에서 인쇄까지

신아전산

여러분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섭니다.

골치아픈 기획,
이마에 손을 얹고 아무리 머리를
긁어 짜보아도 짜증만 날때,
“으휴- / 누가 대신 해 줄사람
없나?”

막상 대행할 사람을 아무리
물색해 보아도 썩 마음에 들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관
직접 일처리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것.

지금,
바로 다이얼을 돌려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인쇄, 납품까지
썩 마음에 들게끔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신아전산



대표 엄한직

서울중구을지로3가95-12 천이빌딩 305호

Tel. (02)267-7880

Fax. (02)268-9132

사랑하는 형제인 그대

임만기 시집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수정할 시간은 잘 없다.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는
영혼세계를 숫자로 잴 수 없는
있음의 너는 망각을 찾아,
보다 분명하게 들어 낸다.
내가 천재라고 확인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것이 있다.

〈天才 전문〉



嶺南社

사랑찾기

김연식 詩集



月刊

농민문학

이달의 초대시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이달의 초대시
 김영동 · 역사의 스승 외
 정창섭 · 흑암의 신비, 자리한 밤에 외

이달의 초대수필
 귀島 · 王의 生活
 특집 (기획) 탐방시리즈 2
 수영농장을 가다 (백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3동 402-34
 전화 309-0939, 308-8371

● 편집후기

○십년이 넘도록 헛애기를 배기만 하다가 애타게 기다리던 아가 하나를 낳은 기분이다. 병신 자식이라도 좋다. 병신 자식이 고향을 지키는지 않던가?

○이 창간호에 실린 글들은 변변치 못함을 자인한다. 그러나 우리 서산지방 문학 발전에 밀착이 된다는 점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글쓰는 일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서산이 시로 승격되고 대산공단이 들어서면서 외형상 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거대한 내장속에는 성인병을 물고오는 슬냄새, 돈냄새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하루에 다만 한 줄의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장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는 앞장 설 것이다. (일)

서산문학

1991. 창간호

인쇄일/1991년 5월 25일

발행일/1991년 5월 30일

펴낸곳/서산문학회

펴낸이/柳商東외 회원일동

만든곳/교단문학사 출판부

☎ 1210-1013 서울·서대문구 홍은3동 402-34

☎ (02)309-0939, 308-8371

FAX 308-8371

등록번호/바-1540호(1990년 12월 7일)

값 3000원